

시로 읽는 성보순례
청운교 백운교

불국사청운교백운교
국보 제23호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어진 마음으로 살생을 않으며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어디로 가나 근심이 없다.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3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82호 2012년 4월 4일 수요일

금전뿐 아니라 재능도 나눠요

불교계 보시 트렌드 변화… 틈새강연 등 다채

지금까지 사찰에서 불사희사금 등 금전적 보시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수준으로만 진행되던 보시행이 '재능기부'를 비롯한 맞춤 기부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돼 눈길을 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은 3월 19일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한 시간 기적' 팀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협약 '한 시간의 기부운동'을 맺었다.

'한 시간의 기부운동'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이 한 달 동안 번 아르바이트 수익금 중 하루 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모아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아름다운 동행과 협약 하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학생 5명이 '한 시간 기적' 팀을 조직해 직접 기획·진행·관리하게 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기부운동을 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모아진 기금은 학생 한명당 10만원 상당의 한학기 교재로 지원된다.

프로젝트팀장을 맡은 김용찬 씨(동국대 국제통상학과 4학년)는 "기부는 적은 금액, 작은 노력이라도 마음이 우러나와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생들이 공감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대학생들이 기부운동에 여러 방법으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생들에게 신선함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불교계에는 이런 맞춤형 기부가 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물질 지원 보다는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기부가 참여자와 기부단체 모두 선호하기 때문이다.

3월 13~27일까지는 우리은행에서 아름다운동행에 '기부 마케팅 사고방식 구축'과 관련한 강연도 재능기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재능기부는 참여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 노력에 대비한 현장에서의 효율이 높다. 불교계에서는 재능기부가 신행활동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찰 사회봉사모임의 봉사활동, 병원불자연합회의 의료봉사 등 직능단체들의 봉사활동은 그대로 재능기부가 된다.

특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진행 중인 '내 꿈 찾기 의지나눔 사업'은 불교계 재능기부의 대표적 사업으로 타종교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의지나눔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다양한 직업군 봉사자들이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현장 경험을 제공,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는 서

금전·봉사서 재능기부로
사찰사회봉사가 바로 기부
타종교서 벤치마킹하기도
맞춤형 재능기부 개발 필요

울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2011년에는 가톨릭 재단 '바보의 나눔'이 3000만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도 했다.

전문분야 재능 뿐만 아니라 사찰 신도들의 재능보시도 줄 잇고 있다. 사보 제작, 합창단, 풍물패 조직, 차보시 모임 등 영역이 다양하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매년 불교기자학교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수료한 신도들이 조계사보 제작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종보인 불교신문 팟캐스트 서비스 개국 연수에도 재능기부자들이 몰려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매년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은 "많은 역량과 의지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재능기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많다. 이제는 맞춤형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3월 28일 추대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봉정받은 주장자를 대중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참나 속에 안락과 평화가 있다"

조계종 13대 종정 진제 대종사 추대법회
3월 28일 조계사서…1만 사부대중 운집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법원(眞際法遠) 대종사의 추대식이 3월 28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날 진제 종정스님은 대중에게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라는 화두와 함께 "참나 가운데 대안락과 평화가 있다"는 내용의 법어를 내렸다. "남북이 함께 비폭력을 실천해야 한다"며 시대의 화두로 평화통일을 제시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전국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 관계자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美 종교학자이자 랍비 잭 벰포라드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스님은 "참나 가운데 밝은 지혜가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복덕이 갖추어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자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대안락과 평화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해 '참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마음의 가지가지 갈등과 잡념을 없애고 진리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은 오직 참선뿐"이라며 "일상생활 속에 이 참선을 잘함으로써 편안한 나날을 보내며 마음의 지혜를 계발하여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진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고
자비무적 정신으로 통일을"
이 대통령 "부처님 지혜로
마음 밝혀 나라 발전하길"

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 참선을 생활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종정스님은 "온 세계가 한집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는 고통받는 이웃과 중생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며 병들고 가난한 이를 내 몸 같이 사랑하고 보살피자"고 말해 이웃과의 나눔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종정스님은 "남북이 함께 비폭력·자비무적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대결구도가 허물어지고 남북동포가 하나 되어 통일조국을 성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종정스님은 유구한 한국 불교의 정통을 이어가실 분이다. 나와 모든 생명이 다르지 않다는 부처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밝혀 모두 화합하고 나라가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美 국가조찬기도회에 진제 종정스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했던 랍비 잭 벰포라드는 "미국에 여러 불교가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불교인지 의구심을 가졌었다. 진제 종정스님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불교를 접했다"고 말했다.

벰포라드는 "그동안 서구사회에서 활동해 온 불교인들이 지나치게 서구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했다"며 "진제 종정스님은 자신이 수행해 온 불교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글=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중국정부는 티벳 탄압 중단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성명서 채택

"티베트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세계인과 함께 중국정부의 탄압 행위를 엄중 경고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티벳 탄압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월 30일 제189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채택했다.

종회는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120만명이 넘는 티베트 국민들이 죽어갔으며 수백만 난민들이 인도를 비롯한 세계를 떠돌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소신을 단행한 이들의 신병 양도와 주둔 군대의 조속한 철수, 양심수 석방을 비롯해 승려에 대한 충성 강요 행위 및 강제 이주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핵발전은 인류와 공존할 수 없는 惡"

4대종교인, 합동세미나 자리서 탈핵·탈원전 선언

"핵발전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인류와 공존할 수 없는 악이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4대종교인들은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생명과 탈핵' 주제 합동세미나에서 탈핵·탈원전을 선언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장 법응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윤재 목사, 원불교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 천주교 주교회의 양기석 신부 등 4대종교인들은 핵발전을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이자,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일로 규정했다.

이들은 "탈핵·탈원전뿐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포함한 '문명적 전환'은 지속가능한 삶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 인류 앞에 놓인 커다란 이정표임이 확인됐다. 모든 종교인이 이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4대종교인들은 탈핵·탈원전을 위해 종교간 연대를 비롯해 국제적 연대 등 인류가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전환의 기술적·경제적 부문에 있어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무형문화재분과위, 만장일치

문화재청 무형분과위원회(위원장 임돈희)는 3월 30일 고궁박물관에서 분과회의를 열고 2월 9일 지정 예고했던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등회를 둘러싸고 진행됐던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동섭 기자

사 령

신 규 **김 주 일**
명)편집국 취재부장

신 규 **정 혜 숙**
명)편집국 취재기자
이상 2명, 2012년 04월 02일부

신 규 **신 중 일**
명)편집국 취재기자
이상 1명, 2012년 04월 09일부

882호 CONTENTS

종단 2
조계종 189회 임시중앙종회

종합 3
조계종 13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추대식
조계종 1000일 결사 입재

시방세계 5
도심속에서 '마음의 길'을 걷다



종립학교를 가다 12
동국대 서울캠퍼스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3호 불국사청운교백운교



청운교 백운교

문덕수

청운교 백운교를 건너 님의 뜰, 두 손 모을이거나
날개 펴고 싶은 청운교 홍예문 돌사다리 열일곱
그 사다리 받친 백운교 돌다리 열여섯 계단
속세의 흙발로 밟으니 두렵네
하찮은 벌레 한 점 머무는지 삼가면서
다듬고 갈고 닦아놓은 이 맑음 이 높이
조심스런 내 발걸음만 오르락내리락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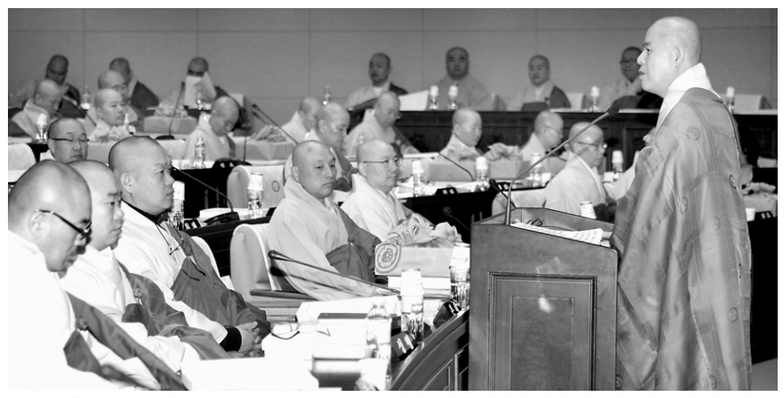
청운교 건너 잠시 숨 고르고
올라온 길 굽어보니 가파르고
돌아서 오를 길 우러러 보니
도리천忉利天 달디단 향내 문득 머리 위에 쏟네
백운교에 다시 첫발 올려 내 삶 다잡으니
저 아슬한 자하문 비로소 열리고
다보탑 석가탑이 뿌려놓은 꽃길도 보이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문덕수 시인은… 경남 함안 출생. 195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황홀〉 〈새벽바다〉 등.

선거법 · 산중총회법 등 제개정 무산

조계종 제189회 임시중앙종회, 사찰법 · 승려법만 통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7일 제189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선거법 · 산중총회법 개정안 등을 원만히 협의해 달라고 의원스님들에게 당부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조계종 제189회 임시중앙종회가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법 등 주요 안건들 대부분을 이월 · 폐기한 채 폐회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3월 27~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첫날 81명 중 60명이 출석한 이번 종회는 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제정안의 통과와 중국 정부의 티벳 탄압 중지 ·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 촉구 등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종회는 이외에도 산중총회법 · 사찰부동산관리법 · 승려법 · 사찰법 · 법인법 개정안 등 종헌종법 제정안 심의와 원로의원 · 초심호계의원 · 법규위원 ·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과 인사심의를위한특별위원 ·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 보선의 선 등 인사 심의, 불기2555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 승인 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에서 "종교가 세상 따라간다고 말한다. 투명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조류 읽어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 빗댄 것"이라며 "종단은 종단 재정과 인사, 선거제도와 수행풍토의 질적 변화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입법활동에 종단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다.

보선 스님은 "이번 종회에서 결산 등 각종 법안 정책에 대해 지혜롭게 논의해 합의 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는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으로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선거공영제 도입을 비롯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 내용을 강화한 산중총회법 개정을 종단 현안관련 긴급간담회에서 종회에 요청했다. '선거법 제정안'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해 종도들이 이해하는 원만한 대안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종정추대식 등을 이유로 휴회했던 종회는 29일 오전 10시 제189회 임시회를 속개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 표결했다. 투표 결과 56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4명으로 제적의원 2/3를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종헌 개정안은 조계종 종정 원로의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 자격을 법계와 승납 세납에서 법계로만 규정하고, 교구종회 강화와 징계 · 변상 등 조항을 신설해 삼보정재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9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지난 회기 이월된 '사찰부동산 관리법'이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투표에 부쳐 찬성 16표, 폐기 24표로 폐기됐다.

사찰부동산 관리법은 종단 토지처분금을 총무원으로 모아서 집중투자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종회와 본사주지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자는 법안이다.

법안을 제출한 일문 스님은 표결에 앞서 "종단지도자연수에서 진각종, 천태종을 둘러 본 것은 재정통합의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것이다. 현재 종단은 각 본사 입장만 강조하다보니 재정능력이 모두 쪼개져서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다. 이를 중앙서 관리 투자해 짓자는 것이다. 총무원장 전횡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구종회 강화 등 담긴 종헌 부결
선거법 개정안 등 다수법안 이월
中 티벳탄압 중단 등 성명 채택

이어 종회는 승려법 · 사찰법 개정안 심사해 만장일치로 통과 후 나머지 법안의 심의 일정을 조정해 뒤로 미뤘다.

개정된 승려법은 2011년 10월 개정된 승려법이 공포되기 전 승려분한신고 미필자를 구제하는 경과조치를 담고 있다. 사찰법 개정안은 창건주 권리를 1회만 승계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이 부결된 종헌과 관련한 산중총회법은 폐기됐다.

종회에서는 비구니스님들의 종무행정 진출의 벽이 여전히 높음이 또 다시 확인됐다.

일운 스님 등 비구니종회의원 스님들은 종헌 개정안 심사시 법규위원의 자격을 '비구'에서 (비구니를 포함한) '승려'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장 보선 스님은 "종헌 규정에 비구스님에 한정된 것을 비구니스님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은 원로회의 등 공의를 거쳐야 할 곳이 많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투표에서 종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에는 비구니스님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정서가 상당수 반영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종단이 어떤 형태로든 비구니스님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종회는 8건의 종헌종법 제개정안 가운데 대부분을 폐기 · 이월시켰다. 특히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를 통해 5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종헌, 선거법, 산중총회법 등 첨예한 관심에 있던 법안들이 모두 폐기 · 이월됐다.

종회는 종책질의에 집중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를 미뤘지만, 정범 스님의 말처럼 "법안 심사가 종회의 첫 번째 의무"를 미룬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환경종책 있기는 한가"

조계종 임시총회…기획실 · 사회부 등 종책질의서 질타 쏟아져

前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기획실 · 재무부 · 사회부 종책질의에서 지리산 삭도 관련 화엄사 토지사용 승인건에 대해 발언했다. 스님의 질문 요지는 삭도 관련 조계종 입장과, 종무회의서 화엄사 토지사용 승인을 조건부 승인한데 대한 절차상 하자와 교역직스님의 책임 추궁 등이다.

법광 스님도 "환경위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화엄사 토지승인건을 강행했다. 현재 환경위원 일괄 사태는 집행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종책질의에서 종무회의에서 자신은 지리산 삭도 건설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최소한의 파괴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민에 대한 민원, 당해 사찰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경 스님은 "기획실장스님이 떳떳하게 케이블카를 찬성했다고 밝히는 것은 조계종에는 국립공원 보존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개정선거법 통과 바랬지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씨넷)는 제189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개회 전날인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선거법 제개정은 자성과 쇄신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제189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선거법이 다뤄지지 않았다. 사진은 불씨넷 회원들이 종회가 열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社團法人 大韓佛敎 宗團總聯合會 任員 改編 및 會員宗團 加入 公告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는 1984년 故 서경보 세계초대법왕 일붕 큰스님께서 창회한 이래 1994년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로 확대 재창회한 이래 1백여 종단 단체의 참여로 발전하고 활동해 오면서 그동안 매년 2회씩 연합법회를 통해 성도재일, 출가재일, 열반재일은 물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단일교단으로써의 단결과 승려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진력해 한국 최대의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원종단과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법인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각 종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앙망합니다.

■ 참가방법 : 우편접수 또는 팩스, 전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적극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종단 및 단체가입 또는 지부설립)
■ 참가자격 : 현재 설립운영 중인 각 종단 및 불교관련 신행단체 또는 사회사업단체
■ 접 수 처 : 서울 은평구 녹번로 6가길 7호 전화 02)358-6641-3 / 팩스 02)358-6643
■ 각 종단 업무대행 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제 2012-33호

총재 의륜 회장 청운 합장

“오늘이 교단발전·국민행복 디딤돌 되길”


3월 28일 진제 대종사가 한국불교역사기념관을 나와 종정 추대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진제 종정스님에게 주장자를 봉정하는 모습.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대종사 추대식 봉행하던 날

진제법원 대종사가 조계종 제13대 종정에 추대되던 3월 28일, 조계사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술렁였다. 진제 대종사 주석처인 부산 해운정사를 중심으로 동화사 등 전국 각지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조계사 마당을 가득 메웠다.

특히 4·11 총선을 앞두고 불심을 잡기 위한 여야정치인의 줄이은 행사 참석에 주요 언론의 취재경쟁도 치열했다.

행사에서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추대사에서 “종정은 한국불교의 법통과 종지의 계승자이며 수행과 법력의 위력을 발해 불자와 우리 사회에 진리의 근간을 제시하는 법의 본류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로회의 부의장스님은 “진제 대종사야말로 모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구현해 진일보하고자 하는 한국불교와 모든 생명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해 신문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와 세계만방에 ‘희망의 공성’을 울릴 것이라 확신한다. 산승 또한 인연 대중들의 밝은 지혜의 마음에 함께 해 기꺼이 종정 추대에 일심정례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진제 종정 예하는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로 이어지는 선가 법맥을 계승해 부처님 법등을 크게 밝혀 드신 수행자의 표상이다”라며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는 일은 수행자에게 더없는 다행이다. 이는 시대와 사회에도 커다란 축복이기도 하다. 오늘의 이 뜻 깊은 자리가 교단 발전, 국민 행복, 나라의 평화가 실현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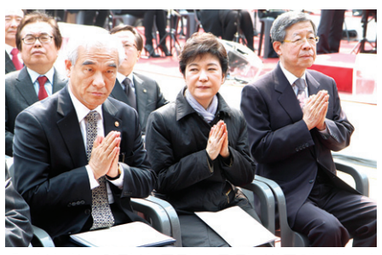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진제 종정 추대를 계기로 부처님 자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사를 통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된 과거는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이다. 만 리 밖에서도 듣게 되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저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헌사에서 “종정예하의 교시를 잘 받들어 삼보호지와 불교중흥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추대식 후 진제 종정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생명평화 릴레이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1000일 정진등’ 점등식을 가졌다.

한편, 이날 추대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과 교구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 등 조계종 스님들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 이웃종단 지도자와 박희태·정세균·고흥길·박진·주호영·조윤선 의원 여야 정치인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추대식에는 최광식 문광부 장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장, 동국대 김희옥 총장 등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1000일 정진’ 시대 소망 담아 힘찬 첫발

강정마을-쌍용차-팔당-이웃종교인-다문화 가정 등
“생명평화 기운이 온누리에 흘러넘치길” 염원

해군기지 문제로 생명평화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는 강정마을, 친환경 농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팔당 두물머리, 노동자를 공장으로 보내달라고 외치는 쌍용차 평택공장을 비롯해 이웃종교인, 통일운동가,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 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를 찾았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3월 28일 종정 추대식 직후 '민족화해,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1000일 정진결사'를 입재했다.

행사는 진제 종정스님의 증명에 이어 본부장 도법 스님이 정진등에 점화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첫 정진에 나선 김봉규 강정마을 홍보부장과 동참자들은 정진단 앞에 ‘구럼비를 지켜주세요’라고 쓴 제주에서 가져온 돌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

김 홍보부장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삶의 원천이다. 강정마을 주민 뿐 아니라 구럼비와 주변에 서식하는 뭇 생명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두 번째로 유영훈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동참자들은 “생명의 땅 팔당 유기농지가 지켜지길 기원하며 두물머리와 강정마을이 생명평화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서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참 잔잘’이라고 기록을 남긴 뒤 “이는 평화의 순 우리말” 이라면서 어떤 소중한 가치들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키고 가꾸어 갈 때만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웃종교인으로 참여한 김경일 신부와 김민해 목사 등은 도법 스님과 함께 정진을 마친 뒤 “생명평화의 기운이 천일기도를 통해 온 누리에 흘러넘치길 기원한다”, “근거 없는 낙관, 생명평화 1000일 정진기도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생명평화 정진을 알리는 점등을 하고 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생명평화기도를 통해 더 이상 죽지 않고 투쟁할 수 있도록 고귀한 내 동지와 가족들을 살려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포교원 대학생 전법단 사무국장 수안 스님과 길상사 청년회 회원들은 “생명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발원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 골고루 회향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조동섭 기자

만냥의 황금도 다투면 부족함이나
서푼 황금이라도 사양하면 남음이로다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스님 법어

踏破千聖頂額上(답파천성정액상)하니
世出世間不思議(세출세간부사의)로다.
棒下圓成無生忍(봉하원성무생인)하면
一超直入如來地(일초직입여래지)로다.
일천 성인의 이마 위를 밟아 파하니
세간과 출세간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함이로다.
주장자 아래 남이 없는 진리를 뚜렷이 이룰 것 같으면
한 번 뛰어서 바로 부처님 지위에 이름이로다.

寂滅涅槃(적멸열반)이 卽是(즉시) 仁義禮智(인의예지)요
仁義禮智(인의예지)가 卽是(즉시) 寂滅涅槃(적멸열반)이라.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고, 지혜로움이 곧 적멸열반이라.

眞道而行(진도이행)에
風行草偃(풍행초언)이로다.
참 진리의 도를 행함에
바람이 불에 풀이 누움이로다.

“人貧(인빈)함은 智短(지단)이요, 馬瘦(마수)하면 毛長(모장)이라. 사람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야위면 털이 길다”하였으니,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댄,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하고 의심하여 一念(일념)이 지속되게끔 노력할지어다. 今生(금생)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느 生(생)에 나고 죽음을 면하리오.

참나 가운데 밝은 지혜가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복덕이 갖추어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자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대안락과 평화가 갖추어져 있음이로다.

이 참나를 바로 알아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만인 앞에 진리의 廛(전)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자유자재합니다.

지금 서구의 지식인들은 종교를 초월하여 인간성회복의 대안으로 간화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참선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가지가지 갈등과 잡념을 없애고 진리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은 오직 참선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이 참선을 잘 함으로써 편안한 나날을 보내며 마음의 지혜를 계발하여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爭卽不足(쟁즉부족)이나 讓卽有餘(양즉유여)로다.
만냥의 황금도 다투면 부족함이나,
서푼 황금이라도 사양하면 남음이로다.

四海五湖(사해오호) 형제들이여,
온 세계가 한집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 받는 이웃과 중생이 있는 그 곳에 함께하며 병들고 가난한 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보살핍시다.

山抱禽獸族(산포금수족)하고 水摩魚蟹群(수마어해군)하니, 산은 모든 새와 짐승을 안아 기르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베풀고, 물은 모든 고기와 어패류를 양육하며 인류와 무정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니, 산과 물과 같은 덕행을 행하여 통일과 세계평화를 앞당깁시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한민족의 정신사를 주도할 절실한 염원인 화두는, 한반도에 남북이 함께 비폭력?자비무적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지혜광명이 밝아 대결구도가 허물어지고 평화가 충만한 대화합의 장에서 남북동포가 하나 되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자손만대로 물려줄 통일조국을 성취하여 세계평화를 이끌어 우뚝 솟는 대한민국이 될 그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진리의 한 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萬古徽然何處覓(만고휘연하처멱)고
頭頭物物現古風(두두물물현고풍)이로다.
만년토록 빛나는 것을 어느 곳에서 찾을꼬?
두두물물이 고풍의 진리를 드러냄이로다.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法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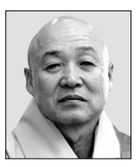
빛명상 | 문의전화 1588-3138
인터넷빛명상 무료체험하기 NAVER 인터넷빛명상 검색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이 책에서 찾아라!
건강하고 풍요롭게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 빛(viit)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행복순환의 법칙
이 책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빛(viit)을 내면에 충전하는 빛(viit)명상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심신의 정화,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빛(viit)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천의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빛(viit)을 만나면 알게 모르게 심신이 정화되고 현실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만 그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따라 상당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추천한 책 ▷
비과학, 반과학, 탈과학도 아닌 초과학적인 세계로서의 빛(viit) – 이어령 (초대문화부 장관, 중앙일보 상임고문)
건강하고 풍요롭게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 – 강석진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이사장, 전 GE Korea 회장, 서양화가)
미래를 풍요롭게 가꾸는 최상의 에너지 –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및 능률 향상의 혜택 – 배재욱 (변호사, 전 청와대 사정 비서관)
도서출판 로대 | 정광호 지음 | 12,800원
교보, 영풍, 반디 전국서점 베스트셀러 주요언론격찬
“참깨 속에 참기름이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 우주 근원의 마음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에 치유 에너지 있지요
〈중앙일보 2011.11.10 문화면(26면) 전면기사〉
향기와 빛명상이 있는
그림찻방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정광호 작가의 글과 담원 김창배 화백의 차(茶)그림이 어우러져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책
도서출판 로대 | 지은이 정광호 | 그림 담원 김창배 | 12,800원
02)523-3183

일 주 문



마곡사 신록축제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5월 19~20일 마곡사 일대에서 2012 마곡사 신록축제를 개최한다.



통도사 서각반 작품전

통도사성보박물관장 지준 스님은 3월 29일~4월 15일 통도사 기획전시실에서 '제8회 서각반 작품전'을 개최한다.



능인선원 화성신령기도법회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4월 6일 화성 능인대학교 부지에서 화성신령산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고운사 빨리어 무료강좌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4월 매주 월요일 총 12회에 걸쳐 빨리어 무료강좌를 개최한다.



봉은사 보살계 수계산림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4월 24~28일 봉은사에서 윤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공생선원, 고우 스님 서장강연

공생선원 선원장 무각 스님은 4월 9일 서울 공생선원에서 고우 스님 초청 서장 법회를 봉행한다.



송림사 불교대학 졸업식

칠곡 송림사 불교대학 학장 혜성 스님은 3월 28일 송림사 대웅전 법당에서 수계 및 졸업식을 거행했다.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취임

홍광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조경학과)는 3월 31일 2012한국전통조경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군종특별교구봉사단 5대 회장 취임

박주서 씨는 3월 23일 서울 호국 원광사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봉사단 심우회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화촉〉 현대불교신문사 이은정 기자

본지 이은정 기자는 4월 8일 12시 제천 청풍리조트 그랜드볼룸홀에서 어성수 씨와 화촉을 밝힌다.

'있는 그대로'의 불교에 주목을

진제 종정 추대식 참가한 美 랍비 잭 벰포라드

"진제 스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불교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런 불교를 본 적은 없다."

3월 28일 조계종 제13대 진제법원 종정 추대식에 참가한 美 랍비이자 종교학자인 잭 벰포라드(사진)는 추대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벰포라드는 30년 넘게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와 화합을 이끌어 온 세계적 종교간 대화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는 1992년 로마교황청이 과거 반유대인학살에 대해 유대인의 용서를 구한 '프라하 협정문' 작성에 참여했고 2006년 종교간대화협회가 수여하는 '평화와 관용의 상'을 수상했다.

잭 벰포라드는 "현대 미국에 알려진 불교는 만트라, 호흡 등 뉴에이지 경향이 짙다. 이것이 진짜 불교인가에 대한 의구심 지울 수 없다"며 "근본이 확실한 불교 가르침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한국불교가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벰포라드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로 세계 종교 지도자와의 활발한 교류, 다언어 번역, 출판을 통한 전세계적인 콘텐츠 유포를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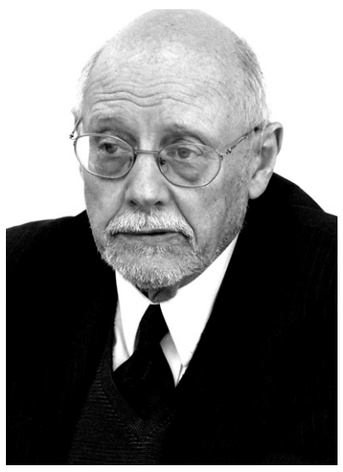
잭 벰포라드는 "진제 스님의 미국 방문 때 스님을 보자마자 비범한 종교 지도자라는 느낌 받았다. 다른 종교자들도 나와 같이 느꼈다"고 말했다.

벰포라드는 "지난 2월 진제 스님이 美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에 앞서 뉴욕에서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할 때, 스님은 힌두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유대교 등 여러 종교지도자의 어려운 질문에 너무나도 쉽게 대답했다. 마치 어떤 질문을 할지 알고 있는 듯 했다"고 말했다.

잭 벰포라드는 "과거에 종교는 고립된 섬과 같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종교학자들을 중심으로 상대편 종교를 바르게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내가 가진 화두도 내 종교에 충실하면서 상대편 종교에도 거짓됨 없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벰포라드는 "서구사회에서 불교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이웃종교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서구에서 불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서구사회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잭 벰포라드는 "진제 스님을 내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는 있는 그대로 불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나는 진제 스님의 진정한 불교 메시지가 다른 종교에 그대로 전달되게 하자는 의무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종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경제적인 힘을 능가하는 종교적인 이 힘은 좋게도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제 스님 같은 불교지도자들을 통해 세계종교가 제 위치를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불자들과 생명의 소중함 느끼고 싶다"

엄홍길 대한불교조계종산악회 초대회장

불자 산악인 엄홍길 씨가 거사불교 활성화를 위해 4월 7일 출범되는 대한불교조계종산악회(이하 산악회) 회장직을 맡았다.

엄홍길 씨는 "불자 산악인으로써 이번 산악회 창립을 맞아 불교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엄 씨는 "불자이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절에 다니면서 산도 오르게 됐고 불교에 관심도 갖게 됐다"며 "불교와 산과의 인연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을 오르게 되면 생명의 모든 소중함과 모든 인연에 감사함을 알게 된다"며 "이번 산악회 창립을 통해 불자님들과 소중한 인연을 쌓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포교원(원장 지원)은 이번 산악회 창립과 더불어 한국산악연맹과 연계해 故 박영석 대장 등 산악인으로 활동하다 희생을 당한 영가들을 위로하는 의식도 진행한다.

평소 등반을 하다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의 유가족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밝혀왔던 엄홍길 씨는 이번 행사에 대해 "포교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6좌 등반에 성공한 엄홍길 씨는 "내 인생에 17좌 도전은 네팔지역에 16개 휴먼스쿨을 건립하는 것"이라며 현재 '엄홍길 휴먼재단'을 통해 네팔지역 학교건립에 주력하고 있다.



포교원은 같은날인 4월 7일 계룡산 동학사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2012 국태민안 기원 1만인 계룡산 등반대법회'를 봉행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범어사 차기 주지 수불 스님

부산 범어사 제26대 주지후보에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 사진)이 선출됐다. 범어사는 3월 25일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에는 384명 선거인단 가운데 352명이 참여했다. 수불 스님은 352표 가운데 195표를 얻어 당선됐다. 원정 스님은 85표, 상운 스님은 70표를 얻었다. 2표는 무효처리 됐다.



수불 스님은 1975년 범어사로 출가해 1978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안국선원을 개원해 조계종 내에서 선의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조동섭 기자**

"법인 설립 계기로 종단 중흥"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법인 등록한 총무원장 의륜 스님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이 법인으로 등록됐다. 창종 19년 만의 종단 법인 등록이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겸 총무원장인 의륜 스님은 "창종 이후 지난해 송림사를 총무원 청사로 정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했다. 법인 등록이 된 만큼 700여 신도들의 힘을 모아 종단발전의 기틀을 닦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륜 스님은 "향후 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행자교육에서부터 종단 구조를 보다 체계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윤명철 동국대 교수, 뗏목탐험대 출정

뗏목 항해 전문가인 윤명철 동국대 교수가 뗏목을 타고 필리핀부터 여수까지 탐험을 시작했다.

동국대 교양교육원 윤명철 교수는 3월 28일 동국대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5명의 탐험대로 구성된 '3동아문명호' 출정식을 개최했다.

윤 교수는 이날 "4월부터 6월까지 뗏목으로 필리핀 루손섬을 출항해 대만과 오키나와, 제주도를 경유해 최종 목적지인 여수 엑스포장에 입항하는 탐험을 진행한다"며 "조류흐름과 해양생태 등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중생의 아픔 노래한 반야월 선생 별세

3월 26일 노환으로 별세한 불자원로가수 반야월(본명 박창오) 선생의 영결식이 3월 30일 진행됐다.

반 선생은 2500여 곡의 가요를 만들어내며 우리 가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가수보다 반야월이란 이름의 작사가로 활동했으며 '울고넘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 고개' '산장의 여인' '소양강 처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반야월 선생의 곡 대부분에는 중생의 아픔을 감싸 안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이 담겨있다. 해인사 약수암에 머물면서 만든 곡들이 그러하다.

"중생의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우서 부처님 무릎 앞에 합장을 하오"('약수암의 밤' 1954년 발표)



이 밖에 반야월 선생은 2005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난 부처님이 따로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만 바로 가지면 부처인데 그러니 내 작품 속에도 나타나지"라고 말한 바 있다.

반야월 선생은 마산방송국 문예부장, 한국가요작가동지회 종신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 한국전통가요사랑뿌리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과 지도 법사 법당 스님, 국제선센터 신도 등 30여 명이 3월 24일 '마음의 길을 걷다' 프로그램을 통해 안양천변 길을 걸으며 행선 수행하고 있다.

콘크리트 숲 속서 내마음의 나무를 찾는다

국제선센터, 도시환경보호활동 겸한 걷기 명상 눈길
궂은 날씨에도 30여 대중, 발걸음에 집중 '마음의 길 걷다'

3월 24일 서울 전역에서는 초봄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눈보라가 몰아쳤다. 오후 들어 영하의 기온 속에 부는 강풍에 오전의 포근함에 열렸던 행사들이 줄지어 취소된 하루기도 했다.

이런 날씨 속에서 도심 거리를 걸으며 명상하는 걷기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과 법당 스님을 비롯한 국제선센터 신도 30여 명은 3월 24일 안양천에서 걷기명상을 진행했다.

국제선센터가 2012년 진행하는 '불교와 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마음의 길을 걷다'는 서울시 명소를 걷기명상으로 여행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면서 최고의 건강 유지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발달, 사무공간에서의 좌식 생활의 보편화로 도시인들에게 걷기의 기회는 결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사찰들이 진행하는 걷기 명상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삼삼오오 모인 참가자들은 주지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안양천으로 이동했다. 전날 늦은 저녁 내린 비로 인해 떨어진 기온과 함께 아침 내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다행히 출발 직전 날이 활짝 개었다.

출발 전에는 걷기명상 지도법사 법당 스님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당 스님이 알려주는 걷기명상법을 듣고 안내에 따라 한걸음 한걸음 한강변으로 나아갔다.

안양천에는 이미 봄기운을 받아 쑥과 소리쟁이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무수히 피어 있었다. 안양천 주위의 억새는 바람과 함께 운치를 더했으며 멀리 눈 덮인 북한산 산마루는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참가일행은 안양천 중간 지점인 양평교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을 걸었다. 일행은 걷기 명상과 함께 수변생태 보존을 위한 환경보호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양평교에서 국제선센터로 돌아오는 길. 화창한 날씨는 진눈깨비로 변했지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한껏 들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최혜원 보살은 "북한산이 눈덮여있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포근하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쳐 걷기 명상에는 다소 힘든 날씨였지만 즐거웠다"고 말했다.

최선유 보살은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방법을 알게 돼 신기했다. 명상 중에 바람을 느꼈는데 살에 닿는 느낌과 그에 따른 마음쓰임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육체적 건강 방편으로서 걷기뿐만 아니라 자연을 느끼고 그 속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의 건강까지 찾는 걷기명상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도시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거점사찰로서 역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는 도심 걷기명상을 매월 마지막 주 진행예정이며 2차 걷기명상은 4월 28일 여의도 선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이젠 도심 걷기가 대세…동호회도 구성

따듯한 봄을 맞아 걷기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다양한 걷기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가 진행하는 오뚝이 마인드 워킹은 대표적인 걷기명상 프로그램이다.

조계사는 4월 14일 제3기 걷기 명상을 시작한다. 매 기수마다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해 인기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오뚝이 마인드 워킹은 조계사 경내를 비롯해 청와대 경복궁 등 인근 도심 지역을 걷는 것으로 구성돼있다.

진행 담당자인 조계사 부주지 의연 스님은 페이스 북과 카페 '의연 스님과 함께하는 걷기명상'을 통해 30여 명의 고정 참가자들도 지도하고 있다.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도심걷기명상 프로그램과 함께 옛길 걷기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찰과 유적, 미술관 등을 당일 코스로 여행하며 걷기명상을 진행한다. 첫 시작으로는 4월 14일 오전 7시 30분 여주 신륵사에서 진행한다.

숲길 걷기로는 **숲명상학교장** 마가 스님이 진행하는 걷기 명상이 있다. 남산 걷기명상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국대 정각원과 남산 일원에서 진행된다. 마가 스님의 지도하에 솔발명상, 걸음집중훈련 등이 실시된다.

당일 프로그램으로 부족하다면 오대산 전나무숲길로 유명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진행하는 '교감과 소통, 숲길 걷기명상' 템플스테이도 참가해볼만 하다. 매월 1회 2박 3일간 진행되며 4월 27~29일 6기 프로그램이 시작한다. 템플스테이와 함께 월정사 주변의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숲속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가 진행하는 마곡사 둘레길인 솔바람길을 걷는 명상 템플스테이도 기업체 차원 참가가 줄을 있고 있다.

이밖에 **해남 대흥사**는 새벽숲길 걷기명상, **공주 영평사**는 백련꽃길 걷기 등 전국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겸한 걷기명상을 진행하고 있다.

걷기명상(행선·行禪)은 무엇?

보통 명상은 조용한 곳에서 앉아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에는 특정장소나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까지 여겨진다. 하지만 명상은 어떤 주제를 사색하거나 천착하는 의식 행위가 아닌 생각 그 자체를 쉬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생각이나 견해가 아무리 정밀하고 논리적일지라도 그것은 의식의 산물로써 또 하나의 번뇌이며 망상일 뿐, 본래 마음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상은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실체[性品]를 찾는 수행으로 의식을 한 곳에 모으는 '집중'과 의식을 깨어있게 하는 '각성(覺醒)' 방법이 있다.

'집중'은 잡다한 생각을 쉬고 일념(一念)이 되며 일념이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무념처(無念處)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다.

'각성'은 마음속에 생멸(生滅)하는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관찰하여 본래 마음 자체에는 '생멸조차도 없다는 도리(無生法忍)'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의 집중(止)과 각성(觀)'을 통해 마음의 실체를 찾아가는 것이 명상수행이다.

walking meditation. 걷기명상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의 집중이나 각성'이 가능하다면 모두 명상이란 것에서 출발한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호흡'이나 '발걸음'에 집중하며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New 신제품 흑룡초



흑룡의 해 임진년은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크기 ∮7.5 × 29c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육각초 7.0∮× 34



연화 大 9.5∮× 11㎝, 연화 中 9∮× 10㎝, 연화 小 7∮× 6.5㎝



밀납연화 小 7∮× 6.5㎝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백목향,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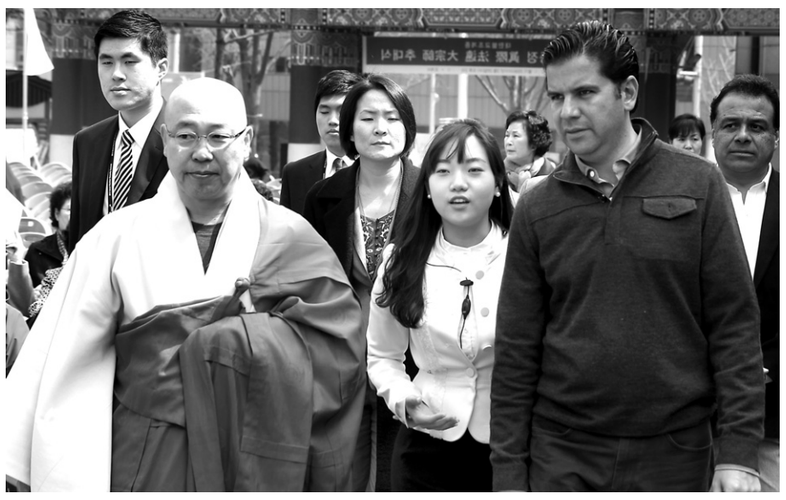
향수림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해외정상들 잇따라 한국불교 체험







조계사 · 봉은사 찾아 타종 · 연꽃 만들기 등 불교문화 체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해외정상들이 잇따라 조계사 · 봉은사 등을 내방했다. 봉은사에는 3월 25일 터키 총리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에 이어 28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내방했다. 터키 경제부장관 부인, 주한터키대사 부인과 동행한 에도르안 여사는 대웅전 참배 후 경내 전각들을 둘러보며 한국불교 역사 ·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는 경판 3000여 장을 보관한 판전에서는 경판을 인쇄하는 인경 체험을 했다. 에르도안 여사는 다래헌에서 주지 진화 스님과 차담을 하는 동안 "한국의 예법과 정서가 터키와 비슷하다"며 연신 놀라움을 나타냈다. 에도르안 여사는 2시간가량 대웅전 참배, 사찰투어, 인경 체험, 차담 등 불교문화 체험 후 봉은사를 떠났다.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봉은사 종루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직접 타종을 해 보기도 했다. 같은 날, 조계사에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내방해 대웅전 등을 둘러봤다. 사진 좌측부터 터키 총리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의 봉은사 · 조계사 방문 모습. **조동섭 기자**

"해인사주지 징계는 봐주기"

해인사정상화추진위, 초심호계원 문서견책 비판

조계종 초심호계위원회(위원장 세영)가 종법 위반 혐의로 징계 회부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고불암 감원 겸직)을 3월 26일 문서 견책한데 대해 해인사정상화추진위원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해인사정상화추진위(이하 추진위)는 27일 성명서에서 "선각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으로 구형한 호법부의 주요 제소내용이 초심호계원에서 전부 문서견책으로 결정됐다"며 "초심호계위원회의 회의는 무법과 봐주기 그 자체로 종헌종법이 실종되는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는 "아주 봐주기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선각 스님은 이번에 호계원에 제소한 사건 외에도 ▷해인사를 대형 납골사업장으로 만든 일 ▷대장경 축전 빌미로 해인사 동구 초입의 1만2000평을 24억원대에 매각한 일 ▷토지처분금과 단청불사금 등 해인사공금 25억원을 들여 선각 스님이 소유 · 운영하던 조주고시텔 건물을 매입한 일 ▷소리원이라는 임대주택사업에 43억원대 이상의 해인사 공금을 사용한 일 ▷8년간 납골사업을 추진했으면서도 아직 갚아야할 부채가 194억이라고 총무원에 보고하는 일 등으로 해인사 산중은 물론이고 온 종단의 의혹과 불신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189회 중앙종회에 상정된 '고불암부채현황감사촉구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해인사 산중에서 진행되는 부당한 납골사업의 실체를 밝혀주고 해인사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총무원 문화부 사찰도서관 지원 공고

사찰도서관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사찰도서관 공모를 시행한다.

2012 부처님글사랑 사찰도서관 선정을 희망하는 사찰은 4월 20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lym_art@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화부는 접수된 사찰 가운데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 사찰을 방문 실사하고 최종결정 후 개별통보할 계획이며, 사찰도서관으로 선정 된 사찰은 600만원 상당의 불서와 사찰도서관 현판을 기증 받게 된다. (02)2011-1779

이나은 기자

동국대, 산학협력선도대학 선정

5년간 최대 200억 지원 받아…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동국대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8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지원대학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동국대 등 51개 대학을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동국대를 비롯해 성균관대와 한양대 등 7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과부의 이번 산학협력 선도대학 선정은 기술혁신형과 현장밀착형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이뤄졌다. 동국대는 대학당 매년 20억~40억원이 지원되는 현장밀착형에 지원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사업시행 결과에 따라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동국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도심형 첨단융합산업 육성'을 목표로 동국대의 강점인 문학과 연극,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와 정보통신분야를 융합하는 CT(Culture 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 융합형 산학협력 사업이다.

특히 서울과 일산 캠퍼스를 활용해 서울 충무로에서 일산까지 지하철 3호선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CT 클러스터 '충무로 Culture Valley' 육성 사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앞으로 산학협력 중점교원을 확충하고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를 개편운영하는 한편, 기업체와 연계한 특성화학과 및 트랙 교육을 통해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예술-공학-경영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기업연계 교육제도를 확산시킴으로써 산학협력 시스템의 선도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동국대는 KT와 현대정보기술, 엠게임 등 산학협력협의회 소속 400여개의 참여기업과 서울테크노파크,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현장과 밀착된 산학협력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선정은 동국대학교가 건학이후 수주한 국고지원 사업중 최대 규모로 서울지역의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관계자는 "그동안 동국대가 산학협력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힘을 쏟은 결과"라며 "현장밀착형 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은 물론, 동국대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분야와 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선도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긴급재난서 생명 구하기 나서

조계종 복지재단,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약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과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이 긴급재난시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종선 스님과 이기환 청장은 3월 29일 전법회관 6층에서 긴급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조계종 자원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과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및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종선 스님은 "국내는 선진국에 비해 심정지환자와 중증외상환자의 소생률이 저조하다. 긴급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구축이 미약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종교계와 시민단체, 공공기관을 망라한 생명존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환 청장은 협약식을 마치고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이 청장은 "전문적인 구호 활동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활동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이번 협약은 종단이



종선 스님과 이기환 청장은 업무협약을 맺고 생명존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발표한 5대 결사 중 생명결사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조계종 봉사대원의 10%만이라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복지재단은 연말 개최하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심폐소생술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봉사자 2명 정도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시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승 스님은 이어 "사찰 특성상 산중에 있는 사찰들이 많고 건물이나 문화재가 대부분 목재다. 화재에 대비해 소방차량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통사찰의 화재예방 시스템을 특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기환 청장은 "양산 통도사에 소방차량을 1대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문화재 화재 예방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4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5월 1일(화요일)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는 수행자 향한 경책

동국대 종학硏 · 성철선사상硏 학술대회서 불교사 흐름따라 조명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스님으로부터 촉발됐던 돈점 논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인환)와 백련불교문화재단 성철선사상연구원은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돈점사상의 역사와 의미'를 주제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제5차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임승택 경북대 교수가 '초기불교 경전에 나타난 돈과 점', 종호 스님(동국대)이 '중국선사들의 돈점론과 그 이해', 정영식 동국대 HK연구초빙교수가 '돈오돈수와 조사선',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돈점논쟁 새로 읽기'를 발표했다.

임승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 아니면 도'라는 방식으로 '돈이냐' 혹은 '점이냐'를 놓고 따지는 것은 초기불교 가르침에도 위배되며 시대적 분위기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돈점논쟁을 간화선이 만연한 풍토에서만 가능한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봤다. 절대적 가치와 신념만을 강조하지 않는 현대사회의 소통 메시지가 한국불교의 돈점논쟁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종호 스님은 "돈점론은 중국선에서 수행과정 및 증오(證悟)에 대한 자기확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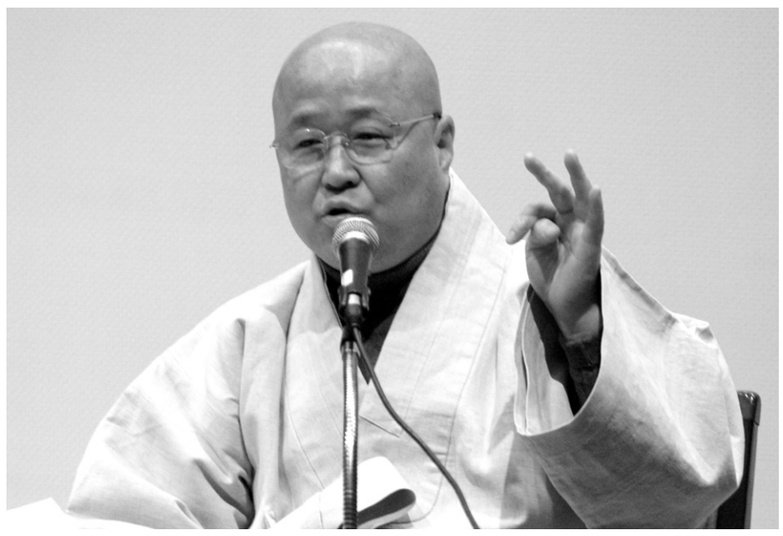
스님은 "돈점론이 수행하는 도중이라면 장애이고, 가져서는 안 될 망념거리지만 수행자가 자신의 수행법을 이해 · 확신하고 수행의 방향을 잡고 수행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크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은 육조혜능 등 중국 선사들의 돈점론을 설명했다.

스님은 "혜능은 언하즉오(言下卽悟)의 돈오돈수론만이 아니라 선수후오적 돈오돈수론도 보이고 있다"며 "신회는 돈오점수론의 최초 주장자로 알려졌지만 돈오돈수사상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마조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적 내용을 같이 보였고, 황벽은 돈오돈수와 점수돈오를 보였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위산은 돈오점수를, 위산의 제자 향엄은 돈오돈수를, 향엄의 사형인 앙산은 돈오점수를 보였다고 해 한 법맥에서도 근기에 따라 돈점이 혼재했음을 보였다.

깨달음에는 돈 · 점 구분 없어
중국선사는 근기따라 돈점 혼용
믿음 · 정견 · 대발심이 중요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중국 선사들은 수행자의 근기를 살펴 돈오점수를 더 많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은 "중국선의 중점은 돈오설이다. 수행과 관련해서는 선오후수적 수증론인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론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스님은 "수증론은 선사들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상상근기와 상근기에 배대해 설명된다"고 말했다. 돈오는 상근기 이상이며, 돈오돈수는 상상근기의 최상근기자, 돈오점수는 상근기자라는 설명이다.

종호 스님은 "상근기나 상상근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선사들은 현실에서 근기를 끌어 올리는 방법을 설했다. 구체적으로 돈법에 대한 믿음,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확신의 믿음 등 '믿음'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선사들은 중도실상에 대한 정견을 일으키는 것, 보리심을 발하는 대발심을 설했다"고 말했다.

믿음, 정견, 대발심이 중하근기자가 상근 혹은 최상근기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종호 스님은 "선사들은 선이 최고 근기자들에게 해당되는 수행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중하근기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최상근각자가 되는 방법을 설했다. 그에 의해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선은 상근기 이상의 소수자만을 위해 선택된 수행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과 정견, 발보리심을 통해 최상근기자가 될 수 있는 보편적 수행법이라는 설명이다.

스님은 "어록에는 사비돈제(事非頓除)나 보림(保任) 등 점수 관련 구절이 돈수 관련 구절보다 많이 언급돼 있다"며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가운데 중국 선사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은 돈오점수론"이이라고 말했다.

종호 스님은 "간화선 주창자 대혜와 그의 스승 원오도 돈오점수의 내용을 보였다. 이는 최상근기자보다 돈오점수가 대다수라는 수행자의 근기 성찰에 따른 가르침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중국선은 돈오점수론이지만 그 형태가 어찌됐든 중국 선사들은 수행자들의 근기를 살피며 보다 효과적으로 후학들을 이끌어 줄 방법을 찾았고, 그것이 중국선의 돈점론에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식 동국대 HK연구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돈오돈수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선의 특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교수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돈오 이후에 수행을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즉 돈오점수냐 돈오돈수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불교에서는 고려중기 이후 돈점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왔다는 설명이다.

정영식 연구교수는 "한국선에 있어서 돈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돈오돈수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성철 스님이었다"며 "스님이 제기한 돈오돈수는 수행을 게을리하는 오늘날의 풍토에 대한 경책이며, 조사선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운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스님들이 시체를 묻어야 했던 이유?

김성순 HK연구교수, 불교학연구회서 밝혀

일본불교는 스님들이 장례를 집전하고, 사찰에 납골하는 것이 대중화돼 장의불교로 불린다. 한국불교에서도 스님들이 시체를 거두고 화장 혹은 매장을 했다는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김성순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는 불교학연구회가 3월 24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봄논문발표회에서 '시체를 매장했던 승려들: 매골승과 삼매히지리'를 주제발표했다.

매골승은 뼈를 묻는 승려라는 의미로, 고려시대 사원에서 승려나 단월들의 화장을 할 때 다비 · 습골 · 매장 등 장례 과정을 맡아 처리하던 승려를 말한다. 삼매히지리는 일본에서 장송을 담당했던 하급 승려이다.

김 연구교수는 "한국의 매골승은 (장례과정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본의 히지리는 '자임(自任)' 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불교를 국가적으로 장려했던 고려시대에 권력층의 임종과 장례식이 사원에서 자주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매골승이 자리 잡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불교적 자비의 교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설립한 대비원에서 극빈층이나 재난으로 인한 무연고 시신들의 장의를 처리해 줄 직능자가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승려들이 이 일을 하게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헤이안시대 말기부터 정토신앙이 확산되고, 겐신의 〈왕생요집〉이 보급되면서 서서히 사원 안으로 장례식 등 임종의식이 들어왔다. 이어 가마쿠라 신불교 시대에는 기존의 제도불교인 관승집단에서 벗어난 히지리들이 민간을 떠돌며 포교활동을 벌였다.

김성순 연구교수는 "일본의 히지리는 민간포교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장의를 실천하며 장례불교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다가 국가정책에 의해 제도사원에 강제환원당했다"며 "한국의 매골승은 불교사원 자체의 요구와 국가적 시책에 의해 제도적으로 장의에 참여했다가 그나마 축소된 임무를 후일 민간결사조직인 향도계에 넘겨주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법화사상으로 석굴 조성

문무왕 연구교수, 금강대 HK학술대회서 발표

금강대 HK연구센터는 3월 24일 금강대에서 '법화신앙의 원류를 찾아서'를 주제로 제5회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주제발표 '중국 초기석굴에 나타난 법화신앙적 요소'를 통해 법화사상과 불상 조상의 관계를 조명했다.

문 연구교수는 운강 · 용문석굴에서 미륵보살의 구현은 전육불(前六佛)-석가불(釋迦佛)-미륵불(彌勒佛)로 과거-현재-미래의 법화적 도상학 특징이 구현된 점을 고찰했다.

문무왕 연구교수는 이를 〈미륵경〉 계열의 신앙적 특징보다는 〈법화경〉 계열의 신앙의 특징에서 찾고자 했다.

문 연구교수는 "운강석굴 제2기 석굴에서 상단 미륵보살과 중단 석가다보이불병좌상이 구현되는 점이나 용문석굴 고양동의 좌우불감에 있어서 상단은 석가불이 중단은 미륵교각보살상이 위치하는 점도 이러한 미륵이 석가의 계승자라는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무왕 연구교수는 "운강석굴은 담요의 사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법장인연전(附法藏因緣傳)〉을 중심으로 법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이 사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법화경〉적인 미륵신앙을 통해 새로운 열망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연구교수는 "이러한 미륵에 대한 열정이 단순한 사후에 도솔왕생의 열망이 아닌 미륵신앙을 통해 현세에서 미륵불의 현실을 바라는 강한 의지도 함께 투영됐다"고 말했다.

문무왕 연구교수는 "운강석굴의 전통과 새로운 용문양식의 출현은 북위의 변천과 연관이 있다"며 "운강석굴은 국가적 후원에 의한 조상활동이 석굴을 조성하는 기본적 동인이 된 반면에, 용문석굴은 국가적 동인과 함께 북위사회의 불교적 성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북위 운강 · 용문 석굴은
전육불 · 석가불 · 미륵불의
과거 · 현재 · 미래 법화도상 구현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치즈키 마스미 교수(日 미노부산대)가 '일본에서의 법화신앙 수용과 전개-일연종을 중심으로'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가 '관음신앙의 변용과 그 특징' ▷후쿠시 지닌 교수(日 미노부산대)가 '일연종의 신라 · 고려불교 인식에 대해서' ▷한지연 교수(금강대)가 '서역에서의 법화신앙 전개-천산남로와 양주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중국 운강석굴 . 문무왕 연구교수는 법화사상이 이들 석굴조성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발표했다.

'전자불전' 제13집 발간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는 최근 〈전자불전〉 제13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은 '한국 정토신앙의 순례코스 개발'을 주제로 ▷아미타불의 신앙과 왕생(법상 스님) ▷한국 정토신앙 관련 문화재 현황(정우택 교수) ▷한국정토 신앙관련 사찰의 분류 조사(이홍구) ▷한국 정토신앙 순례코스 개발을 위한 제언(이재수 연구원) 논문이 실려 있다.

기고논문으로 ▷한글대장경 웹서비스 시스템의 개선(곽문상 정원석 채희원 이재수 이용규 이금석 홍영식 보광 스님)이 수록됐다.

조동섭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호국성사 서산대사 충혼 기린다

해남 대흥사, 4월 16일 탄신 492주년 기념 대제

과거 국가제향으로 모셔졌으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지된 '선산대제'가 복원 재현된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4월 16일 오전 10시 대흥사 경내에서 '탄신 제492주년 호국대성사 서산 대제'를 봉행한다.

서산 대제는 오전 9시 30분 예제관 봉향 행렬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중요무형문화제 56호 종묘제례보존회가 집례 하는 서산 대제 봉향, 서산 대제 복원기념 법요식 순으로 진행된다.

서산 대제 조선 정조 이래 매년 조선왕실에 의해 봉향돼 왔다. 대흥사에는 서산휴정, 사명 유정 스님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정조의 왕명으로 지어진 사당 표충사가 있다.

당시 정조는 해남 대흥사와 영변 보현사에 사당을 짓고 각각 표충사와 수충사라고 이름 붙였으며 직접 제문을 작성해 보낼 정도로 호국불교의 정신을 기렸다. 하지만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등 근현대 과정을 거치며 위축돼 사찰 행사 정도로 인식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를 비롯한 불교계에서는 복원 공청회 및 국가 차원 봉행 촉구 성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산 대제에는 당시 봉향 기록인 '표충사 향례홀기(表忠祠享禮笏記)'와 '진설도(陳設圖)'를 비롯해 서산대사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도 개관한다.

서산 대제 복원을 기념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금산사를 비롯한 호남 6본사 주지 등 교계 주요 스님들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장과 국가브랜드위원장 등이 주요내빈으로 참석한다.



2011년 열린 제491주년 서산대제 모습. 대흥사는 매년 서산대사 제를 올리는 등 스님의 선양사업에 힘쓰고 있다.

대흥사는 "국난의 위기에서 중생을 위해 칼을 들고 나선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흥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되는 제18회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061)534-550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불련 전북지부, 내장사서 산사체험

한국대학생 불자연합회 전북지부(지부장 최경선 · 전북대 2)는 3월 24~25일 정읍 내장사에서 새내기 회원들과 함께 산사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대불련 전북지부 소속 전북대, 전주 대, 군산대생불자들로 구성된 대불련 전북지부 학생들은 예불, 108배, 명상체험, 참선, 스님과의 대화, 사찰 전각의 이해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산사에서의 생활을 체험했다.



신경선 회장은 "이번 산사체험을 통해 새내기학생들에게 산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불련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매월 산사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마이리더스클럽, 지역불자 강좌 개최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운영하는 빛고을마이리더스클럽(대표 임영광)은 3월 22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원영 스님(전 조계종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을 초청해 초기불교의 생활상에 대한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강좌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살았으며, 의식주 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원영 스님은 법문에서 "주제에 대한 답은 불교경전의 율장이다. 초기 불교가 융성해지고, 출가자가 늘어가면서 불교의 다양한 계율이 생겨났다"며, "당시 수행자들이 얼마나 혹독하고 엄한 규율 속에서 수행했는지를 생각하여, 오늘날 우리 모습들을 점검하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임영광 대표는 "올해에는 불교의 수행관련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부모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MY리더스클럽은 지난 2010년에 만든 지역불교단체로 불자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재가불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불교교리의 발달사, 세계불교의 흐름, 등 강의와 지역사회 돕기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월 25일 청암사에는 여러 종단 스님 20여 명과 500여 신도가 운집했다.

임제불교조계종 창종 5주년 기념법회

총본산 여수 청암사서 500여명 운집

세계엑스포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 여수에 위치한 임제불교 조계종이 창종 5주년을 맞아 기념대법회와 지역주민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임제불교 조계종(종정 지암)은 3월 25일 여수 롯데웨딩홀에서 창종 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종단 중요 직책 소임자에게 임명장과, 법계고시 수여증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암 스님, 각성 스님(전국사설사암단체 총연합회 총재), 화담 스님(대한불교 불교종 총무원장), 법각 스님(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옥 스님(여수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여했다.

법요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상축기원문, 발원문, 경과보고, 임명장 및 법계고시 수여증,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장학금 전달, 환영사, 축사 법어가 진행됐다.

지암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여수와 인연을 맺은 지 5년의 시간이 흘렸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제불교 조계종 총본산인 청암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매월 광주소년원에 1대1일 맨토링을 통해 30여명의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우수인제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불교사원주지聯 회장 경희 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신임 회장에 대구 서봉사 주지 경희 스님이 추대됐다. 대구사원연합회(마하야나불교문화원)는 3월 26일 불교대구회관에서 제68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구 서봉사 경희 스님을 제11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제11대 회장 임기는 5월 1일부터 4년이다.

한편 대구사원연합회는 총회에서 66억 4000여만 원(부설기관 포함)의 2012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대구 진명사 개원

대구 평리동에 자리한 조계종 진명사(주지 원일)가 3월 24일 개원법회를 열고 대구 서구지역 포교활동에 본격 나섰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과 포항 오어사 주지 장주 스님, 강성호 대구 서구청장, 김주본 대구운불련 회장 등 500여 불자들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혜인 스님은 "남을 용서하는 밝고 맑은 마음으로 편안한 참사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법문했다.

진명사 주지 원일 스님은 "개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도움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불교총聯 정기총회 개최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성문, 동화사 주지)는 3월 24일 대구 문화웨딩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불총은 총회에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를 비롯한 각종 기획사업과 전통등 심포지엄을 비롯한 학술연구사업, 유소년 풋살대회을 비롯한 각종 포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불총 회장 성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를 시작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900회 맞은 부산불교 거사림 법회

1972년 7월 31일 영도 도서관에서 금강경 강송회를 계기로 창립한 부산불교 거사림(회장 원당 최수황)이 3월 27일 제 900회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중명법사로 참석한 남해 용문사 주지 성전 스님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생활하면 삶의 터전이 행복하고 나의 존재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법문했다.

최수황 회장은 "앞으로 거사림을 부산 대표 포교사단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용문사 성전 스님과 거사림 회원들이 기념법회를 통해 활발한 신행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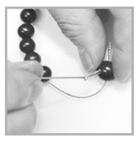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회 여성문제 보살사상으로 극복을”

현대사회의 여성문제와 불교

조계종 교육원 인문강좌 – 조승미 서강대 종교硏 연구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스님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3월 16일, 23일, 30일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불교인문사회문화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 나선 조승미 서강대 종교연구소 연구원은 ‘현대사회의 여성문제와 불교’에 대해 강연했다. 조승미 교수는 가족, 성차별, 성문제, 낙태, 여성성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여성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불교가 현대여성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교육원은 5월까지 고운기 교수의 ‘스토리텔링 삼국유사’, 최재천 변호사의 ‘스님을 위한 법률이야기’, 최로덴 동국대 박사의 ‘티베트불교의 향기’, 각묵 스님의 ‘초기불교 특강’ 등을 진행한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조승미 교수는 여성성을 중시한 보살사상이 현대여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 · 가정 · 직장 시달리는
한국여성은 우울증 세계 1위
보살사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사회제도 개선위해 불교적 사유를

현대여성의 사회적 문제

불교는 오랜 시간 동안 여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남녀 평등관에서부터 여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까지 다양하게 조명됐지만, 정작 불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불교가 어떤 경험과 비전을 제공했는지 알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불교와 여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여성’ 뿐 아니라, ‘여성들의 불교’가 함께 조명돼야 합니다. 현대여성의 문제는 비단 여성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우울증, 자살, 성차별, 가족해체 문제 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불교의 〈전녀신경(轉女身經)〉에는 다양한 여성의 삶과 고통들이 담겨있습니다. 경전에 실린 여성의 삶은 집안의 힘겨운 노동, 임신과 출산, 가정폭력, 구속과 억압 등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고대사회의 여성 삶이기는 하나 현대여성의 삶과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한국 기혼여성들은 가사, 양육, 직장일 등 삼중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때문에 현대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주부 우울증 1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한국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40~50대 가장들의 우울증 · 자살에만 초점을 맞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시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우울증 · 자살률은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네’라는 답이 연령대별로 10%씩 높게 나왔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한 것은 사회관계 속에서 무력한 입장, 불평등한 맥락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고학력 출신의 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은 낮은 지위와 권력으로 역할이 분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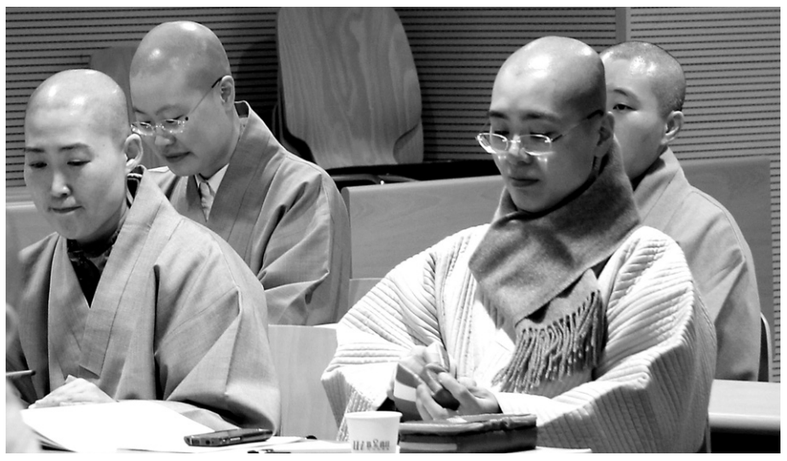
특히 사찰의 주요 신도인 노인여성불자들은 호르몬의 변화와 경제, 배우자, 건강, 엄마로서의 역할 상실로 사회적인 박탈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여성의 역할로부터 벗어나야

여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가르침을 구했는데 이때 “법을 말하는 사람은 방편의 힘이 있는 까닭에 다섯 가지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이에 대해 청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식으로 담무갈보살이 제시됐는데, 담무갈보살은 육만팔천의 여인들과 오욕을 즐기면서 하루에 세 번 반야바라밀을 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야경〉의 이 같은 설정은 기존에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성적 교접을 거부했다면, 욕망의 실체도 없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거부를 다시 거부하는 형태의 사상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성이라는 말도 여성을 여성의 역할로부터 분리시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종속적 역할을 강조하는 여성 성역할론이 존재합니다. 변성은 불교가 여성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도로 제시된 것이라 해석해야 합니다.



적, 성별분업, 모성의 가치복원, 사회적 모성의 확대 등이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제도로 시급하게 구현돼야 합니다.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전환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이런 사고전환의 도모를 위한 상상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녀신경〉에는 여성의 삶과 고통이 담겨있지만 이는 진정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승보살의 마음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녀신경〉에 ‘이 몸을 근심해야 한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여성이 여성의 몸을 남자로 바꾸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남자로의 변성(變性)을 여성구제로 삼았던 것은 이 경전뿐 만이 아닙니다. 아미타 정토관련 경전에서도 이 같은 의미의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여성은 여성의 존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 여성을 남자로의 변성왕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성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불교에서는 붓다가 된다는 것은 많은 신체적인 특성의 성취로 설명됐습니다. 그 중 거대한 남성성기가 말처럼 숨겨져 있는 음마장상(陰馬藏相)의 획득이 한 요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강한 남성성과 금욕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의미는 여성이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교설이 형성되게 만들었습니다. 즉, 여자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대승불교에는 성별자체의 비실체성으로 의식이 확대돼, 성의 전환이 경전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반야경〉은 대승불교의 성의 비실체성을 대표하는 경전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스토리가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인 담무갈보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최초 붓다가 비구니 교단을 허락하지 않았던 점도 세속의 관습을 기준으로 한 입장이었습니다. 출가승가의 많은 계율도 불교신자들을 비롯한 세속 사회의 관습과 사고방식에 의거해 존경을 잃지 않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은 현대 사회의 관습과 인식에 준해 불교문화 창출과 교리에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나타냅니다.

보살사상으로 여성성 부각해야

불교에서 양성평등과 여성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은 단연 ‘보살사상’입니다. 보살사상은 여성성의 중시를 의미합니다. 〈반야경〉은 반야바라밀을 어머니로 비유하고, 보살수행의 전형으로 모성의 경험과 모성적 사유에 주목해 이를 적극적으로 교리화 했습니다. 여성의 모성을 사회적 모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현대 여성주의의 과제와 전망을 불교에서 이미 구현돼 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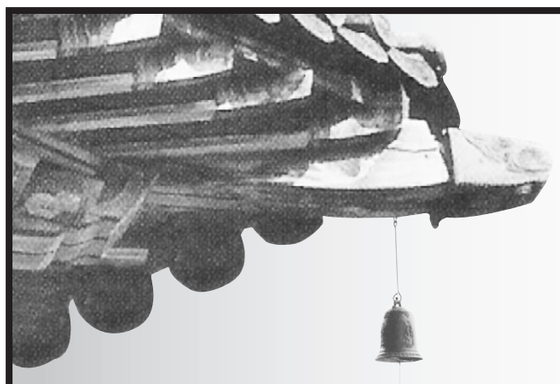
여성성을 중시한 보살사상의 전통은 현대에서 그 가치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가 진정 사회 속에서 중생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시대가 도래되면서 불교는 해탈 지향을 넘어, 모든 생명을 구제하고자하는 보살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성적 가치를 중시한 불교전통의 극점은 여래장 사상입니다. 모든 존재를 ‘여래장’ 즉, ‘여래의 자궁’으로 명명한 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경험이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 승화된 것입니다. 여성을 성스럽게 승화시키는 타 종교의 여성찬미와는 다른 긍정의 시각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에서는 여성의 보살핌과 보육의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이것을 사회와 가정을 지켜 나가게 하는 원리로 중시합니다. 즉, 여성의 모성은 극도로 찬미하지만 반대로 여성의 독립과 자아실현의 욕구는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성의 가치 회복은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성별분업 사고방식의 해체 구조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주의종교의 여성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성찬미가 오히려 억압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성의 고통에 관심해 온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과감히 재해석해야 여성성을 중시해 온 보살사상의 전통과 그 가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전통을 회복하는 반면, 여성의 해방 과제해결과 행복한 여성의 삶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실에서 중생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불교로 거듭날 것입니다.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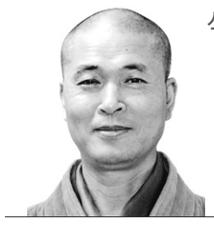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울타리 밖 그것이 도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도(道)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이 그것이야."
학승이 말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느 길을 말하는 것인가?"
학승이 말했다.
"대도(大道)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도(大道)는 서울 장안으로 통하고 있어."

問 如何是道 師云 墻外底 云不問者箇 師云 問什麽道 云大道 師云 大道通長安

길은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 발로써 닦은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졌다. 길은 많은 길이 있다. 집으로 가는 길, 학교로 가는 길,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 직장으로 가는 길 등.

작은 길은 큰길을 만나고 큰길은 더 큰길을 만나면서 길은 결국 서울로 통한다. 여행하는 나그네가 일단 길을 만나면 안심할 수 있다.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은 따라가면 곧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도 길이 있고, 학문에도 길이 있고, 선문(禪門)에도 길이 있다. 길은 결국 서울에 도착하듯이 바른 길을 안다면 선(禪)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래서 인생은 곧 도이고, 도는 곧 선이고, 선은 곧 우주의 중심이다.

조주 스님은 학승이 도(道)에 대해 묻자, 담장 밖의 길이라고 말했다. 학승이 못 알아듣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도(大道)를 묻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자, 여전히 조주 스님은 도가 곧 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 다만 대도는 서울로 통하는 큰길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바로 도라는 것이다. 아하, 이거야말로 '달에 대추나무가 걸린 것' 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먼지를 털고 부처를 볼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먼지를 터는 일은 없지 않지만 부처는 볼 수는 없는 거야."

問 撥塵見佛時如何 師云 撥塵即不無 見佛即不得

먼지를 턴다는 것도 옳지 않다. 도대체 어디에 때가 묻고 먼지가 끼었다고 털고 닦을 것인가? 부처를 본다(見性)는 것도 옳지 않다. 역대 선사 중에 부처를 보았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본단 말인가? 깨달음도 옳지 않다. 역대 선사들 중에 누가 깨달았다고 말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깨달을 것인가? 모두 옳지 않다. 오로지 부처의 행만 필요하다. 지금 곧바로 부처의 행을 익혀나간다면 육조 스님이 좋아할 것이고, 역대 선사가 칭찬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병(病)이 없는 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4대(大)와 오음(五陰)이다."

問 如何是無疾之身 師云 四大五陰

4대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이다. 오음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을 말하는데 물질, 느낌, 생각, 작용, 식별이다. 곧 몸과 마음의 다섯 가지 작용을 말한다.

병들지 않는 몸은 있는 것일까?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여기에 대해서 조주 스님의 대답은 그냥 평범한 이 사대육신이라고 대답했다. 잘 생각해보면 이치가 있다. 사대육신 그 자체는 원래 아프지 않다. 아픈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이다. 사대육신은 찢어져 피가 나도, 무너져 넘어져도, 불에 타도 말이 없다. 아픈 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대육신은 원래 병이 없는 것이다. 병을 만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육신이 병들었다 생각하고, 무너졌다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할 뿐이다. 원래 몸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 모두 마음이 지은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8〉

사성제-도제(道諦)

마음의 만성질환 치료약 '팔정도' 제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한 번 들인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좋은 습관을 들여 여든까지 간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습관은 보통 안 좋은 쪽으로 들어 있다. 나태함 신경질 욕설 무례 등과 같은 성격 문제들이 모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자아의식에서 발현된다.

툭하면 신경질을 내고, 험한 말을 내뱉고, 남을 언짢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도 그것이 잘못인지 조차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고착화 되고 마음은 점점 왜곡된 상태로 변해갈 가능성이 더 크다. 마음의 '만성 불치병' 과 다를 바 없다. 일반인들의 이런 생활 속의 안 좋은 습관도 고치기 힘든데 하물며 도박꾼이나 마약 중독자는 어떠하겠는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는 말은 그저 내뱉기 쉬운 말에 불과할 뿐 현실 속에서는 좀처럼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치료되지 않는 만성 관절염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이러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 방법론이 바로 '도제(道諦)' 이다.

도제는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으로의 길' 을 안내하는 진리이자 방법론이다. 즉 불치병이라고 생각됐던 병에 치료약이 있다는 선언인 것이다. 그 약의 이름은 불자라면 잘 알고 있는 '팔정도(八正道)' 이다.

팔정도는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 ·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 · 정정진(正精進) · 정념(正念) · 정정(正定)의 여덟 가지 항목을 가리킨다.

이 여덟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열거한 순서대로 수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팔정도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선후관계 없이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의 교학적 해설에 의한 견해차일 뿐 팔정도가 열반에 이르게 하는 방법론임에는 변함이 없다.

팔정도의 수행법에 관해 〈상응부경전(相應部經典)〉에는 '갠지스 강을 비롯한 모든 강이 동쪽 바다를 향해 흘러 이윽고 대해(大海)로 들어가는 것처럼, 비구가 팔정도를 수행하면 열반을 향해 나아가 이윽고 열반의 대해에 도달할 수 있다' 고 설해 있다. 이처럼 팔정도는 열반으로 인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직접 치료하는 것 외에도 몸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도제에 있어서도 고(苦)의 직접원인인 집(集)을 제거하는 것 외에 집과 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마음상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여덟 가지 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고의 제거가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고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인격전체를 건강하고 완전한 상태로 하기 위한 방법이다.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고뇌를 계기로 최후에는 인격의 완성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⑬

여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친구여' 라고 부르지 말라 〈맛지마 니가야 26〉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어느 때 맹자님은 군자가 마땅히 즐거워할 만한 즐거움 세가지를 논한 일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천하의 훌륭한 인재를 얻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맹자님같은 대스승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다. "남의 스승 되는 것을 삼가라."

아, 얼마나 남의 스승노릇 하는 것이 어렵기에 그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스승이 되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하셨던 분이…. 나도 명색 선생의 입장에 서있는지가 십여 년을 훌쩍 넘다보니, 이 맹자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선생은 언제 선생이 되는 것일까? 발령장을 손에 들었을 때인가, 아니면 교단에 처음으로 올라섰을 때인가? 내 생각에는 학생들이 '교수님', 혹은 '선생님' 이라 불러줄 때가 아닐까 싶다. 김춘수 시인의 말씀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말이다.

이러한 내 생각을 부처님께 적용시켜 볼 때, 그것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그분을 향해서 '부처님', 혹은 '스승님' 이라 불러주시기 전에 스스로 "나는 여래다, 나는 아라한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최초로 법을 펼치시기 위해서 찾아간 사슴동산(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비구들이여, 여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친구여' 라고 부르지 말라. 여래는 아라한이며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다."(일아스님 번역,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여래(如來, tathāgata)는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신 분, 혹은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라는 뜻. 부처님께서 창안하신 용어이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 전에, 남이 나를 여래라고 불러주기 전에, 스스로 "나는 여래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부처님 이후에는 감히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나는 여래다"라고 선언할 수 없다. 아마도 있다고 한다면, "사이비가 아닌가" 의심해야 할지도 모른다. 반드시 앞서 깨치신 분으로부터 깨침을 인가(印可)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인가해 주시는 분은 스승이고, 인가를 받는 분은 제자이다.

스승이 있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스승을 모시고 있기에 행복하다면, 스승이 없는 자는 또 얼마나 고독할까. 정말로 나는 이제 누구를 스승으로 모실 것인가, 라고 부처님께서도 한탄했다는 경전이 있다 하지 않던가. 그러나 어쩌랴. 최초의 붓다, 최초의 선구자가 담당해야 할 고독인 것을…. 그 이전에는 아무도 바르게 온전히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함께 수행했던 도반이었다고 해서, 교진여 등 다섯비구는 옛날처럼 "싯다르타여"라고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부처님은 옛날의 싯다르타가 아니었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는 불사(不死)를 성취하였다. 나는 가르치리라. 그대들에게 담마를 가르치리라."(위의 책) 자신 있게 스승이 됨을 자임하셨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학생들로부터 부단히 인정을 받아야만 스승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관념은, 내가 불사를 성취하지 못했고, 내게 담마(dhamma, 法)에 대한 자신이 확고하지 못해서이리라.

〈정정합니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11' (제880호)에서, "그런데 불교는 양보주의와 포기주의를 터부시하고 있다"는 오식(誤植)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양보주의와 포기주의에 터하고 있다"로 바로잡습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새로 만든 수조 장식·크기 강조 기능 왜곡

수조(하)

예전에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수조는 분명한 용도가 있어 장소의 적합성과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형태의 독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사찰에 설치되는 수조를 보면 장식성과 크기만을 강조할 뿐 뚜렷한 디자인적 특징이나 장소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키치(kitsch)적 경향을 보이는 것들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과거에 만들어진 수조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흉내 내거나 분위기를 살짝 바꾼 아류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키치적 경향을 보이는 것들이야말로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통사찰에서 볼 수 있는 최근 설치된 수조 가운데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크기를 강조하여 사찰의 경관을 해치는 경우이다. 사찰에 도입된 수조의 기능이 물을 담아두고 그 물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단순히 음용수를 담기 위한 수조를 지나치게 크게 하여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것은 사찰의 본래적 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조자체의 크기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장식이나 내용물이 첨가되어 규모가 왜곡되는 경우도 피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장식성을 강조하여 수조가 가진 의미를 달리 해석하게 만드는 경우도 문제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수조와는 상관없는 조각을 도입하거나 지나치게 규모를 강조한 조형물을 덧붙여 수조가 가진 제 기능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

지난날 만들어진 수조의 형태나 조각 혹은 여러 개의 수조를 조합하는 방법 자체를 흉내낸 경우 역시 좋지 않은 사례이다. 특히 선암사 달마전 뒤뜰에 만들어놓은 삼탕을 흉내낸 경우가 많은데 선암사 삼탕은 그렇게 만들어진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장소에 만들어놓은 이러한 조합은 디자인적으로 아류에 불과할 뿐 제대로 된 조형성을 발견할 수 없다.

여러 곳에 있던 수조를 옮겨와 전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수조가 형태적으로 특이하거나 수조에 새긴 조각이 훌륭해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면 몰라도 다른 곳에 있던 수조를 모아서 전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수조에 연이나 수련을 심기 위해 절 마당에 다수의 수조를 늘어놓는 것 역시 사찰의 경관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로부터 절 마당은 특별한 기능성을 가진 곳이었는데, 이러한 절마당이 가진 의미를 생각한다면 탑 주위에 수조를 진열하고 그곳에 꽃을 심는 것은 오히려 사찰경관의 진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수조에 담긴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사찰의 경우 수조의 물을 받아먹는 그릇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인데, 이 플라스틱 물그릇은 색깔도 그렇지만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물론 지난날 사용하던 박으로 만든 바가지의 경우 구하기도 어렵고 깨지기도 쉬워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그릇을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그릇을 보면 좋은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더구나 아무 곳에나 놔두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다. 일본사찰의 경우에는 나무나 대나무 혹은 양은으로 만든 물그릇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릇의 형태나 크기가 다양하고 정갈하게 관리하여 수조에 담긴 물을 마실 때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양은 물그릇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을 받을 때 나는 청량한 소리도 아름다운 사찰만들기의 한 요소가 된다.


아무렇게나 놓인 물그릇은 불결한 이미지를 준다.

전통 수조는 용도 · 형태 독창성 뚜렷
크기 · 불필요한 장식 사찰 경관 해쳐
물마시는 플라스틱 그릇 비 위생적
일본사찰 대나무 · 양은 그릇 사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찰의 수조에 담긴 물은 샘이나 개울에서 대나무 홈통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목조비구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야말로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약수가 자연스럽게 수조에 담겨 항상 철철 넘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찰이 대부분 깊은 산속에 위치하였으니 사찰마다 맛이 다르고 성분이 다른 물을 사시사철 부족하지 않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산사의 물마저도 오염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더구나 천연적으로 형성된 샘물이 마르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물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기계장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수질도 문제가 되지만 물을 공급하는 것도 과거처럼 낭만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도꼭지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어 기계적이고 인공적이 되고 말았다. 물론 사찰에 따라서는 지하저수탱크에서 물을 공급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 경관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탑주위에 수조를 진열하고 꽃을 심는것은 경관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불교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조각상을 도입하거나 조형물을 도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표현돼야할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징적 의미를 얻을 수 없다.


석조 용도와는 상관 없이 규모를 크게 만드는 것은 다른 요소들과의 부조화를 낳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선암사 삼탕을 흉내낸 수조


기능 ·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지나친 장식성은 오히려 예술성을 저감하게 된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한국불교학 세계화… 미래지향 '통섭' 교육

④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한국 불교학의 산실인 동국대 교정 모습. 동국대는 제2건학 운동을 통해 세계속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1906년 개교…근대불교학 시발
초대총장 권상로 박사 등 1세대
1962년 불교문화연구원 설립
2009년 불교학술원 통해 새도약

동국대의 역사는 한국 불교학의 역사이다. 1906년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의 개교는 근대불교학의 시발점이었고, 이후 명진학교가 불교사범학교, 중앙학림, 혜화전문, 동국대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동국대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동국대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1906년 5월 설립됐다.

당시 한국 불교계는 일본 사원건립을 이유로 한국사찰에 대한 침탈과 위협이 계속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신불교운동이 일어났다. 신불교운동은 홍월초·이보담 스님 등에 의해 명진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종래 전근대적 강원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불교계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립된 명진학교는 근대적 교육을 위한 외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통강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리 수학 자연 등 다양한 신학문을 수용한 명진학교의 교육과정은 산중불교에 머물러 있던 한국불교를 개혁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됐다. 또 명진학교 구성원들이 주축이 돼 조직한 광복회는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중앙불교전문학교 시절 자치활동을 보장 받은 학생들은 불교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및 답사를 계획, 실시했다. 그들은 불교중심의 각종 학술공개강연회를 개최했고 〈일광(一光)〉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학생들도 나선 불교 대중화는 명진학교와 불교사범학교 출신의 우수한 교수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방이후 동국대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권상로 박사는 뛰어난 학식을 바탕으로 불교학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수많은 저술과 논문을 통해 불교학의 지평을 넓혀나갔다.

권상로 박사가 1939년 일본인 교수와 함께 〈이조실록 불교초존〉 19권을 출간한 것은 불교학 연구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조실록 불교초존〉은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불교관계 기록을 뽑아 모은 것으로 방대한 분량의 조선왕조실록을 일일이 훑어보지 않아도 손쉽게 필요한 사항을 찾을 수가 있어 오늘날까지도 불교연구자들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28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한 포광 김영수 스님은 화엄 유식 불교논리학 불교사학 고대사 및 고전문학 등 다양한 불교관련 학문을 섭렵하며 한국 근현대불교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1937년과 1938년 잇따라 〈진단학보〉에 발표한 '오교양종에 대하여' '조선선종에 대하여'라는 논문은 거시적 시각에서 한국불교사를 정리한 것으로 신라시대에 오교양종(五教兩宗)이 성립됐다는 것과 한국 선종이 중국의 아류가 아닌 독자성을 갖고 발전해온 것임을 주장한 것으로 한국불교사 정리에 큰 틀을 제시했다.

1940년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불교학 연구는 해방과 함께 혜화전문학교가 1946년 동국대학,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활발히 진행됐다. 우선 외형적으로 석사과정이 신설돼 학문을 심화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으며 이후 박사과정을 신설, 동국대가 명실상부한 현대불교학 연구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1960년대 들어 동국대는 불교학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불교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불교학 연구 분야는 학자들의 개별적 연구보다 연구소 중심의 연구 활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공통된 주제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성과를 배가시킴은 물론, 연구의 한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다.

1962년 불교문화연구원 설립을 통해 동국대는 불교학 중심의 확고한 위상을 세우게 된다. 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와 선학 및 불교미술·문화재 연구 등을 통해 향후 불교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원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한국불교사상사 정립이었다. 이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올곧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상사에 대한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연구원은 1960~1970년대 〈불서전관목록〉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등 문헌과 사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 〈한국화엄사상연구〉 〈한국천태사상연구〉 〈한국선사상연구〉 〈한국정토사상연구〉 〈한국밀교사상연구〉 등 연구성과물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한국불교사상사의 체계를 마련해 나갔다.

불교문화재 발굴과 수집, 보존을 위해 불교박물관을 개관한 동국대는 한국 불교미술사 연구 분야 개척에도 힘썼다. 황수영 박사를 중심으로 1964년 진행한 부여지방 소재 백제 폐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는 당시 폐사지 발굴이 전무하던 당시 학계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동국대가 배출한 불교학자들은 학회를 결성해 학술적 담론을 이어 나갔다. 이들은 학회 중심의 활동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불교관련 학회가 전무하던 1973년 국내 불교학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한국 불교학의 집대성을 위해 창립된 한국불교학회를 비롯, 1988년 인도철학회, 1997년 국제원효학회, 2000년 한국선학회 등이 동국대를 중심으로 설립된 불교학술단체들이다.

동국대는 2009년 불교학 중심 기관이던 불교문화연구원과 동국역경원,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를 총괄·감독하는 불교학술원을 설립해 불교학 연구의 변혁을 꾀했다. 이어 2011년 5월에는 조계종 역사와 전통사상 수행에 대한 학문적 토대 마련을 위한 종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에 종호 스님을 임명했다.

불교학술원은 설립 초기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의 초대 불교학술원장 임명의 호재를 살리지 못해 표류하는 듯 했으나, 2011년 4월 제2대 원장 인환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임명 이후 괄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인환 스님 원장 취임 후 21세기 대장경 불사라 칭해지는 200억원 규모의 '불교기록유산 집성 역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정부로부터 수주했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한국불교문헌 집대성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21세기 통합대장경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동국역경원이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대장경 한글화를 뛰어넘는 것이다. 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 관련 원전을 집대성해 역주를 다는 것이 1차 사업, 이를 디지털화해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2차 사업까지 15년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불교학술원은 지난해 HK사업도 수주했다. 이외에도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불교학 진흥 연구인력 양성, 한국불교학 진흥기금 모연 등을 차근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2011년 처음 개최한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는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또, 올해 3월 29일에는 성철 스님 탄신100주년을 기념해 백련불교문화재단 성철선사상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여는 등 조계종지 종풍의 학술적 선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종학연구소는 세계적인 불교학자를 초청해 간화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동국대 일산병원의 복강경 수술 모습. 양·한방 협진을 자랑하는 동국대 일산병원은 불교이념을 근간으로 2005년 개원한 환자 중심의 첨단병원이다.

불교학 등 인문학 명문 동국대
융복합 토대 이공계도 혁신 물결
IT NT BT분야 특성화 대폭 투자
일산 바이오메디캠 개원 등도

동국대는 최근 산학협력과 학부교육 혁신을 기반으로 융복합 학문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국대는 2월 28일 IT 관련학과 연구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사를 벌여온 신공학관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신공학관과 지난해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산학협력관, 종합강의동 준공으로 IT(정보통신)교육분야와 NT(나노과학)교육분야의 연구 인프라가 3배가량 늘어났다. 교수들의 연구실은 물론, 강의실, 세미나실, 실험실 등이 대폭 확충된 것이다.

이번에 문을 연 신공학관은 연면적 2만 3075㎡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IT와 전자전기, 반도체 관련 학과의 연구실과 실험실로 이용될 예정이다. 교수들은 물론 대학원생들을 위한 전용 연구공간도 배정됐다. 동국대는 신공학관 완공에 이어 기존의 공대 건물도 리모델링을 시행해 첨단 연구인프라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동국대의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불교학과 인문학 교육 전통에 융합형 이공계 교육을 더해 이공계와 인문학을 동시에 육성하는 전략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최근 이뤄진 일련의 연구 인프라 확대를 바탕으로 이러한 융복합 교육에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연구시설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인문학 중심 대학에 첨단 융복합 이공계 교육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융복합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학부교육 선진화 방안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동국대는 이러한 학부교육 선진화 모델을 i-LOTUS 모델이라 명명하고 4C 전략 -Convergence(융복합), Core Competency(핵심역량 신장교육), Culture University(새로운 대학문화 조성), virtous Cicle system(선순환 교육시스템)을 마련했다. 동국대가 이처럼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학부교육 선진화와 대대적인 연구인프라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고등교육 보편화와 분과학문 중심의 파편화된 교육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문제, 고도화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속에서 탄탄한 인성에 기초한 통섭의 교양을 갖춘 인재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동국대는 이런 대학교육 패러다임 혁신과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을 선도하는 융복합 학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의 이러한 노력은 이미 산학협력 분야에서 서서히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돼 인문학과 문화예술, 영화 등의 기존 학문구조에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또, 특허와 학교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첨단형 융복합 이공계 교육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동국대의 야심찬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진각종립 위덕대는 취재에 불응, 이번 기획 시리즈에서 아쉽게 빠졌습니다.

"통섭 교육 통해 학부교육 선진화 진력"

김희옥 총장



"불교학을 기반의 건학이념을 튼튼히 다지고 이를 통해 인문학·이공계간 통섭적 인재 육성에 총력을 다하는 학부교육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2년째를 맞는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급변하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학도 효과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며 "미래지향적 학문구조개편의 보완책을 마련해 융·복합 신설학과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적성을 파악하고 역량을 개발해 우수인재로 배출시키기 위한 '인재동국 프로젝트'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재동국 프로젝트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학생을 학교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김희옥 총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 연구, 인문과 공학 등 융합의 교육을 만들 계획이다.

김희옥 총장은 "2011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2건학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 발을 순조롭게 내딛었다"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학교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불자는 부처님과 같은 생각·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부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건학이념을 통해 구현하는 곳이 동국대"라며 "교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3)

깨진 탑 뒹구는 마을에서 법향을…

아쇼까왕은 진흥왕과 광개토왕이 닮고자 했던 제왕

이 글을 쓰는 나를 보고 왜 아쇼까왕의 유적을 답사하는가 하고 묻는 분이 있다. 답사의 명분이 궁금하다는 것인데, 나와 혹은 우리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일 터이다. 불교를 믿지 않는 분의 궁금증은 더하다. 당연히 일리가 있는 질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불교전래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이니까 4세기 후반이므로 기원전 3세기 때 활동한 아쇼까왕은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아쇼까왕이 그리스나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으로 전법사신을 파견하였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때 삼국이 건국되기 이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어느 땐가 나는 〈삼국유사〉를 보고 몹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아쇼까왕의 그림자가 우리 불교사에도 드리워져 있던 바, 〈삼국유사〉 탑상편 '황룡사 장육존상'에 다음과 같은 글이 보였던 것이다.

'신라 제24대 진흥왕 즉위 14년(553) 2월에 대궐을 용궁 남쪽에 지으려는데 황룡이 나타났으므로 이에 절로 삼고 황룡사라 했다. 30년(569)에 담을 쌓고 17년 만에 겨우 완성했다. 얼마 안 가서 바다 남쪽에서 큰 배 한 척이 떠와서 하곡현 사포(현 울주 곡포)에 닿았다. 이 배를 검사해보니 공문이 있었다. 인도 아육왕이 황철 5만 7천근과 황금 3만 푼을 모아 석가의 불상 셋을 주조하려다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인연이 있는 국토에 가서 장육존상을 이루어 달라'고 축원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얘기는 아쇼까왕(아육왕)이 마치지 못한 불사를 신라 진흥왕이 완성했다는 점과 인도불교가 신라로도 들어왔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전설이 분명해 보였지만, 그때 이미 진흥왕은 아쇼까왕을 자신이 닮고 싶은 제왕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왕은 영토를 정복해 나가는 위업이나 불법으로 통치하려 했던 통치구상이 흡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광개토왕도 아쇼까왕을 흠모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역시 〈삼국유사〉 탑상편 '요동성육왕탑'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 그렇다. 여기서 육왕(育王)이란 아육왕을 줄여서 한 말이므로 아쇼까왕이다. 광개토왕이 요동성을 정복한 뒤 신하들과 순행하다가 아쇼까왕이 세운 불탑 자리를 발견하고는 신앙심이 생겨 칠중목탑(七重木塔)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던 곳마다 아쇼까 스투파가 세워지다

우리는 부처님 8대 성지, 혹은 그에 버금가는 성지에만 아쇼까왕이 순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대당서역기〉를 보면 부처님이 법을 설했던 곳이라면 어디든 아쇼까왕이 찾아가 스투파를 조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행이 힌두스탄호텔에서 1박을 한 뒤 답사하려고 나서는 라트나기리(Ratnagiri), 우다야기리(Udayagiri), 그리고 랄리타기리(Lalitagiri)는 일찍이 부처님이 와서 설법한 곳인데 현장의 〈대당서역기〉는 10여 군데의 아쇼까 스투파가 실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오다국(烏荼國, 오릿사주 북부)은 주위가 7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20여 리로 토지가 비옥하여 농업이 성대하다. (중략) 가람은 1백여 군데로 승도는 1만여 명인데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천사(天祠)는 50여 군데로 이교도들이 잡거하고 있다. 스투파는 10여 군데로 모두 여래가 설법했던 곳이며 아쇼까왕이 세웠던 것들이다.'

라트나기리는 부바네스와르에서 북동쪽으로 90km, 커텍으로부터는 70km 떨어진 거리에 있단다. 일행이 굳이 우리 불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라트나기리로 가려고 하는 까닭은 그곳이 앞서 얘기한 대로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아쇼까왕이 스투파를 세웠던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인도 대승불교가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불꽃을 피웠던 곳이기 때문이다.

동인도에서 대승불교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8세기 중반(750)부터 약 250년간 존속한 팔라왕조 때라고 한다. 팔라왕조는 수도가 빠딸리뿌뜨라였고, 동인도의 벵갈과 깔링가까지 영토를 넓혔다고 전해진다. 동인도 최대의 불교대학인 비크라마쉴라 사원도 팔라왕조 제 2대 다르마팔라왕이 건립하여 12세기까지 크게 발전했던 승가람인데, 인도에서의 대승불교가 소멸한 시기도 팔라왕조 뒤에 선 세나왕조가 회교도 침략으로 쇠퇴하는 동안 1203년 회교도들이 비크라마쉴라사원을 약탈하고 불질렀던 13세기로 잡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답사일행이 가고 있는 라트나기리에 대한 정보도 역시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장이 7세기 중반 그곳에 들렀을 때 푸슈파기리 승가람(불교대학)이 번창하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돌로 조성된 스투파가 많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의 기록은 팔라왕조가 들어서기 100여 년 전부터 라트나기리 일대에 대승불교가 번창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다.

인도의 대승불교가 마지막으로 꽃피웠던 라트나기리

버스에서 내린 일행은 라트나기리 박물관에 들러 출토된 유물들을 보고 라트나기리 유적지로 들어선다. 출토된 유물들의 대부분은 문수보살상 등 밀교적 불상들과 힌두 신상들이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 답사일행은 그 이유를 라트나기리 유적지에서 바로 알아낼 수 있었다. 라트나기리 승가람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변화한 대승을 비판하고 나선 금강승 수행법을 즉 밀교 교의를 가르치는 중추적 대학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라트나기리 승가람 학승들이 날란다대학 고승인 사하라파다를 초빙하였다고 하는데, 사하라파다는 일반신도들에게도 삶에 밀착된 가르침인 밀교 교의를 설파하고 다닌 고승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의 밀교 대가인 사하라는 중인도 엘로라와 서인도에 금강승을 전파했다고도 한다.

라트나기리 승가람은 승려들의 거주공간인 비하라(僧院)와 기도와 예배공간인 차이티아(塔院)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구도는 ㅁ자 형태의 가람구조다. 일주문 같은 사각 돌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비하라가 요즘의 대학 기숙사 방처럼 연달아 있고, 사각 돌문 맞은편에 차이티아가 배치된 구조인 것이다. 출입구에 문수보살상과 힌두교 신상들이 방치돼 있고, 사각 돌문에 환영과 행복을 준다는 힌두 신 락슈미가 조각돼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로 보아 인도의 대승불교가 소멸하고 힌두교로 건너가는 역사공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이다.



라트나기리에 남아 있는 아쇼까 스투파와 석굴 유적. 인도의 대승불교가 소멸하고 힌두교로 건너간 역사의 공간 라트나기리에는 깨진 부도와 탑들이 뒹굴고 있었으나 당시 불법의 향취로 마을이 고사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진흥왕·광개토대왕이 닮고자한 왕
'대당서역기' 아쇼까탑 조성 기록
라트나기리 승가람 밀교 수행 교육
아직도 발굴 진행, 출토물 걸작 평가

석굴 형태로 조성된 차이티아는 돌부처님 한 분이 모셔져 있고 규모는 협소하다. 일행은 인도에 와서 처음으로 한글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잠시 무릎을 꿇고 앉는다. 석굴의 차가운 기운이 머리를 맑게 헹구는 동안 대요 스님이 짧게 법문하신다.

"답사단 여러분, 왼손을 내리세요. 오른손 집게손가락은 하늘을 향해 올리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30초 법문이다. 모두에게 던지는 촌철살인의 화두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강행군하며 답사하는 이유도 아쇼까대왕의 유적을 징검다리 삼아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한 번 회광반조해 보고자 함이 아닐 것인가.

석굴 안에서 심신이 서늘해졌나 보다. 밖을 나서니 정오의 햇살이 따갑다. 비하라 승방을 무심코 지나치는데 도곡거사가 사진을 찍고 있다. 자세히 보니 창틀이 돌로 조각돼 있고, 창턱에는 물받이 홈이 밖으로 나 있다. 무슨 용도인지 알 길이 없다. 혹시 찻물을 흘려보낸 차생활의 흔적은 아닌지 상상의 나래가 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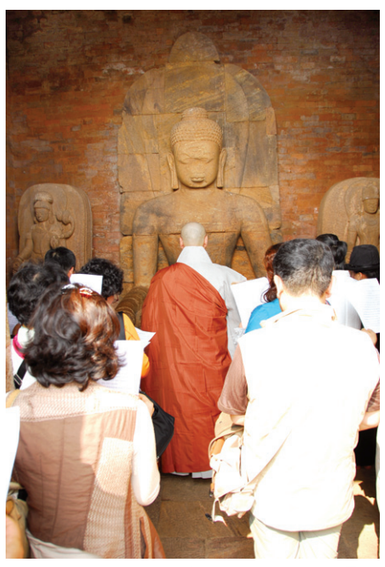
보리수 옆을 지나쳐 언덕 봉우리에 조성된 스투파를 가는데, 흙에 묻혀 있다가 드러난 불두가 보인다. 흙을 파헤치자 더욱 선명하게 나발이 드러난다. 이래서 라트나기리를 보석(라트나)의 언덕(기리)이라는 것일까. 안내하는 인도 청년에게 묻자, 라트나기리를 발굴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발굴 초기인데도 출토된 유물들이 굽타시대 이후 최고의 걸작품들이라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승가람 터를 나와 마을을 내려오는데 마을 고샅길 도처에 깨어진 부도와 탑, 그리고 기단석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다. 나도 모르게 〈황성옛터〉란 유행가가 떠오른다. 말 그대로 폐허가 된 라트나기리다.

그렇다고 마을이 고사했다는 느낌은 안 든다. 고목의 새싹 같은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보이고, 마을 골목길에서 본 아기가 나뭇가지의 꽃눈처럼 귀엽고 예쁘다. 아기를 돌보고 있는 남자에게 아기이름을 물어보니 사말(Samal)이라 하고 이제 16개월 되었단다. 나는 아기가 복전(福田) 같아서 지폐 한 장을 손에 쥐어준다. 그러나 아기는 돈이 아직 무언지 모르고 떨어뜨린다. 남자가 대신 받는다. 나는 문득 라트나기리를 지켜나갈 이 아기야말로 만주스리(Manjusri), 문수동자가 아닌가 하고 상념에 잠긴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답사단이 법회를 보고 있는 라트나기리 석굴



16개월된 아이에게서 비춰진 문수동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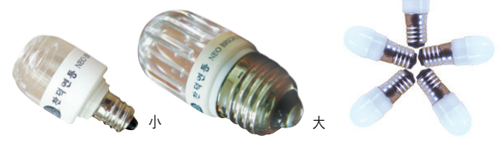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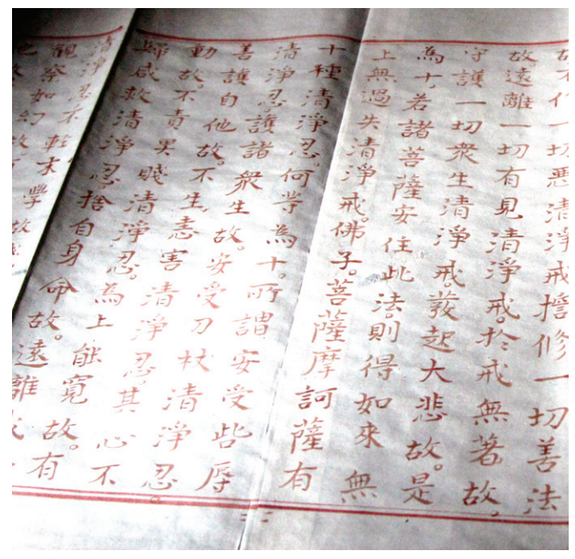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②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80권 60만자 설혈 화엄경 보며 '광도중생지대원' 합장 발원



혀끝을 찔러 피를 주사와 섞어 〈화엄경〉을 사경하는 그림



설혈경(화엄경)의 일부

설혈경은 가장 희귀하고 높은 문화재 · 신앙적 가치를 지녀 明代 조혜 스님 혀 찔러 사경 400톤의 용장목판경 중국 최고

종이와 비단에 기록된 경문(紙帛經書)

운거사에는 종이나 비단에 쓴 경문 2만 2000권이 소장돼 있고, 명대의 남장, 북장, 단행본으로 조판 인쇄한 불경 필사경 서장 어경 두루마리가 소장돼 있다. 특히 설혈경(舌血經)은 가장 희귀하며, 매우 높은 문화재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설혈경은 혀끝의 피를 묻혀 쓴 80권, 60만자의 〈대방광불화엄경〉으로, 작자는 명대의 고승 조혜이다. 운거사 안내문에는 "사료기록에 따르면 고대의 승려는 불조 석가모니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혀를 찔러 피를 내어 먹으로 삼으며 손을 태워 등불로 삼았다고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조혜 스님은 설혈경을 쓴 대표적인 스님으로 숭정 13년(1640)부터 자기의 혀를 찔러 나온 피와 주사를 섞어 먹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경건하게 〈대방광불화엄경〉을 썼다. 전시관에는 조혜 스님이 피로 쓴 은은한 홍색의 글자에서 뿜어 나오고 있는, 설혈경의 경건함과 원력의 힘이 많은 불자들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있었다. 설혈경 친견을 통해 일행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30여 년 동안 출가생활을 한 필자도 옛 조사들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치열하게 수행했던 모습을 감히 흉내 내지는 못할 지라도 선조들이 땀 흘려 이룩한 불법을 훼손하지는 않는 수행인으로 살아야겠다고 발원하며 모형으로 만들어진 조혜 스님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귀의 발원해 본다. "광도중생지대원(廣度衆生之大願)"

전시장에는 북장이 전시돼 있고, 변상도 부분이 펼쳐져 있었다. 변상도(變相圖)는 경전 맨 앞에 붙여져 있어 권수도(卷首圖)라고도 불리며, 경전의 내용을 이미지로 압축한 그림으로, 사경 변상도와 판화변상도가 있다. 그 중에서도 판화 변상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판화 변상도는 옛 판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장 변상도는 중국을 대표하는 변상도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변상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시장 유리관으로 인해 사진 촬영이 잘 되지 않았으나 마침 고판화박물관에 소장된 북장본으로 아름다운 변상도를 독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조혜 스님이 사경하는 모습을 본 떠 만든 상

중국 대장경의 역사

운거사의 삼절중에 하나인 종이와 비단에 기록된 지경(紙經)이 전시된 설혈진경관(舌血眞經館)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중국 대장경의 역사가 궁금해 진다. 2006년 중국 인쇄박물관을 방문하였을 때 만난 인연이 있는 뤄슈바오(羅樹寶)선생(인쇄박물관 부관장으로 퇴임한 서지학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에서 제일 먼저 조성된 대장경은 〈개보장(開寶藏)〉으로 정부 조직이 성도에서 각인(刻印)한 첫 번째 대장경이다. 이 대장경은 송대 개보(開寶) 4년(971)에 만들기 시작해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983)에 완성했다. 〈개보장〉은 12년에 걸쳐 5000여 권, 13만 개의 각판으로 만들어진 권축장(卷軸裝)이다. 권축장은 권장, 권자본, 수권이라고도 하며, 종이 서적 최초의 장정 형식으로 두루마리 형태로 이뤄진 것이다.

〈개보장〉은 각판(刻板) 완성 후 수도인 개봉으로 옮겨와,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인경원에서 인쇄했다. 인쇄된 경전은 남북의 큰 사원들에 나누어 보관했으나, 현존하는 개보장은 몇 권에 불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장경 조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만수대장(萬壽大藏)〉은 일명 〈숭령장(崇寧藏)〉으로 북송시대 원풍(元豊) 3년(1080)부터 숭령2년(1103)까지 북주의 백마산 동선사원에서 각인했다. 모두 6434권이고, 500여 개의 함으로 된 경절장(經折裝)이다. 경절장은 대부분 불경을 장정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으로 절첩장이라고도 부른다. 지그재그로 반복해서 접혀 있는 병풍형태이다.

〈만수대장경〉은 충진, 지화, 계장 스님 등이 탁발해 모은 돈으로 각인한 것으로, 민간 자본으로 새긴 최초의 대장경이다.

〈비로장(毘盧藏)〉은 송대 정화(政和) 2년(1112)부터 소흥(紹興) 21년(1151)까지 북주의 개원선사에서 각인했다. 6000여 권의 경절장으로, 역시 민간자본으로 모금하여 새긴 것이다. 〈원각장(圓覺藏)〉과 〈자복장(資福藏)〉은 남송시대 절강의 호주에서 두 번에 걸쳐 증보해 각인한 대장경이다. 첫 번째는 소흥 2년(1132)에 지역의 부호인 왕씨 형제가 출자하여 호주의 원각선원에서 각인한 대장경으로, 550여 개의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원각장이라 부른다. 가희 3년(1239)에 호주의 자복사에서, 첫 번째 각인했던 대장경을 약 5740권의 경절장으로 천자문 순서대로 각인한 것으로 민간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이 대장경을 자복장이라 부른다.

〈적사장(磧砂藏)〉은 남송 소정(紹定) 4년(1231)에 소주 적사의 연성원에서 설립한 경방에서 자본을 모금해 대장경을 각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원대 지치 2년(1322)까지 계속되었고, 완성되는 데에 91년이 걸렸다. 1532종의 불경이 수록되어 있고, 천자문 순서대로 배열된 경절장이며, 591개의 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란장(契丹藏)〉, 일명 〈요장(遼藏)〉으로 요나라 정부가 출자해 연경에서 각인한 것이며, 각인 착수 시기는 요나라 통화 8년(990)보다 이르며, 중희 23년(1054)에 완성했다. 5천여권, 5백여 질로 구성된 권축장이다. 이 경권은 각 사원에 보내어 보관한 것 이외에 고려 왕실에도 보내져 우리나라 대장경 조성에 영향을 주었다. 〈금장(金藏)〉, 일명 〈조성장(趙城藏)〉으로 금나라 황통 9년(1149)부터 대정 13년(1173)까지 대장경판회가 주도해, 민간자본으로 강주의 천영사에서 각인했다. 7000여 권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노주의 여인인 최법진이 비구니가 되어 팔을 잘라 고행하며 탁발하여 진남 일대의 신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에 빈부를 막론하고 돈 있는 자는 돈으로, 돈 없는 자는 당나귀, 옷감, 목재 등의 물건으로 기부했고, 한인 외에 여진인 몽골인들도 기부했다고 전한다. 1934년 산서성 조성현 광승사에 숨겨져 있던 한 부를 발견하였으며, 1943년에 일본군이 이 경권을 강탈하려 하자 팔로군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해방 후 북경도서관에 4330권을 보관 · 정리하였고, 산서성 박물관에 132권이 보관되어 있다. 현재 이 경전은 모두 4462권으로 2000여 권은 소실됐다. 〈남장(南藏)〉과 〈북장(北藏)〉은 명나라 조정에서 출자하여 각인한 대장경으로, 남장은 홍무 5년(1372)에 조정의 명을 받아 남경의 대보은사에서 각인한 대장경이다. 636함 6330권의 경절장이며, 천자문 순서로 편집되어있다. 후에 이 대장경을 남장이라고 불렀다. 영락 연간(1403~1424)에 명나라 성조인 주체의 명령에 따라 대장경을 각인하여, 정통 5년(1440)에 완성하였는데, 637함 6361권의 경절장이다. 만력 연간에 41함 410권을 다시 각인했는데, 이후에 이를 북장이라 불렀다. 중국의 대장경은 국가에서도 만들어졌지만, 민간에서 승려들과 신도들의 신앙심으로 이루어진 민간 판본이 유독 많음을 알수 있으며, 금장을 조성할 때 팔을 잘라 고행하면서 탁발하여 경전을 만들었던 최법진 비구니 스님의 절절한 이야기나 설혈진경관의 주인인 명나라 조혜 스님이 혀를 찔려 경전을 완성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용장목판경(龍藏木板經)

운거사의 삼절중에 마지막인 〈용장(龍藏)〉목판경은 청 옹정 11년(1733)에서 시작하여 건륭3년(1738)까지 판각되었으며, 모두 718상자에 1662부, 7160권, 7만9000개의 목판으로, 전체 경판의 총중량은 400톤에 이르며, 중국 목판경의 최고이다. 목판경의 재질은 모두 우수한 배나무를 선택하여 조각하여 만들었으며, 조각솜씨가 정교하고 글자체가 바르고 수려하여, 불상과 판면이 정교하면서 아름다워 생동하면서 멋이 있다. 이 경판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지 1700년간의 저서를 집대성한 것으로 불학, 철학, 역사, 과학, 예술의 연구에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 용장 목판 변상도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는 "해희도(海繪圖)"가 있으며, 목판경관에 전시되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제자를 위해 설법하는 영산회상도가 웅장하게 표현되어 있다. 불화판화의 판각 솜씨는 세밀하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뛰어난 기량으로 선이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부처, 보살, 나한, 비천 등 모두 76명의 형상이 각각 살아있는 듯 하여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과 보살들과 나한들이 지금이라도 이 세상에 나투실 것 같은 아름다운 변상도이다. 용장목판관에서는 용장 목판을 직접 찍어 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주사 먹으로 찍어낸 해회도 변상도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한 용장 변상도와 고판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옹정 연간의 변상도를 비교하여 보니, 고판화박물관 소장품은 자금성 무영전에 소장되어 있는 내부각판(內府刻版)으로 인출된 것으로 운거사 변상도보다 앞서 제작된 것으로 세밀한 필선이 더욱 돋보이는 작품이다. 용장 목판경관을 빠져나와 보니 일행들은 요나라 때 건립된 아름다운 전탑인 나한탑에서 자료 촬영에 한참이다. 운거사에는 당나라와 요나라 시대에 건립된 탑들이 남아 있으며, 미술사적인 가치가 높은 탑이나, 해가 지는 시간으로 인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산문을 나서게 된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 · 박도화(고판화박물관)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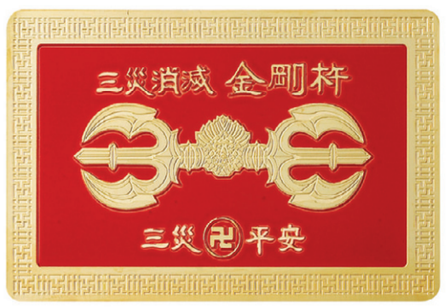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100리 오가며 탁발 굶는이들 도와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㉑ 묵군자(默君子)와 광녀(狂女)

해인사 시절의 어느 날이었다. 경허 스님은 경상도 지방에서 유명한 묵군자(默君子)의 소문을 듣게 됐다. 경허 스님은 그가 있다는 한 암자를 찾아갔다.

경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암자의 방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묵군자는 방 안에 혼자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경허 스님이 들어가 앉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벽을 보듯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몇시간을 두 사람은 나란히 보며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동안을 서로 말없이 앉아 마주보기만 할 뿐

군자와 광녀는 모두 같은 도반
묵향과 썩은내 구분할바 있으리
말하지 않음 속에 법거량 있고
한데 뒤엄킴 속에 불법 나퉈

이었다. 묵 군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마주 앉아 있던 경허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묵군자, 묵군자. 내 그대의 이름을 들은지가 오래더니, 과연 헛된 이름이 아니로군."

묵군자가 곧 대답했다.

"네, 경허 스님, 경허 스님. 성망(盛望)을 들은지가 오래인데 바로 경허 스님이 아니시오."

생면부지의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묵군자는 경허 스님을 바로 알아보았다. 묵군자가 하인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묵군자는 하인을 시켜 주안상을 한상 차려오도록 했다. 법담의 상대를 만난 서로는 백년지기와 같이 함께 음식을 들며 이야기를 쏟아냈다. 몇일 동안 경허 스님과 묵군자는 한방에 묵으며 법을 논하며 지냈다.

경허 스님의 경지가 드러난 일화는 또 있다. 그 대상은 군자로 이름을 날린 묵군자와 반대인 광녀였다.

경허 스님이 해인사 조실로 있던 어느날이었다. 경허 스님은 만신창이가 된 광녀를 데리고 와 조실 방에서 같이 식사하고 자곤 했다. 이 광녀는 스님이 자신을 예뻐하는 줄 알고, 가지도 않고 조실 방에서 계속 기거하며 숙식을 함께 했다.

만공 스님은 이런 모습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문 밖에서 혼자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 경허 스님을 뵈러 오면 "스님께서는 지금 주무십니다"하며 돌려보내곤 했다.

만공 스님이 몇일 뒤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경허 스님은 광녀에게 팔베게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다리를 걸치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 광녀를 자세히 보니 코도 눈도 분간할 수 없었으며 손가락도 없었다. 또 걸친 옷은 고름과 소변에 쩔어서 올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며 씻지도 않아 몸에서는 송장 썩는 악취까지 풍겼다.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의 경계를 한참 서서 생각했다. 자신이 만약 저 여자를 저렇게 같이 데리고 잘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도저히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다.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공 스님은 열 번을 고쳐 생각해도 경허 스님의 법력을 따를 수가 없구나 하여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㉒ 지리산 기슭에서의 자비행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마천(馬川)이라는 마을이 있다.

마천 마을이 자리한 심산 유곡은 실상사(實相寺)·백장암(百丈庵)·벽송사(碧松寺)·상무주(上無住) 등지로 갈 수 있는 길목이지만 무성한 숲 속 오솔길로 높고 험한 재로 인해 이따금 길손이 찾을 뿐이었다.

어느해 초여름 무렵이었다.

모진 흉년 끝에 마천 마을 주민들은 보리고개를 넘다 못해 굶주려 아사할 직전에 이르게 됐다. 당시는 일제 강점기로 어지럽고 어렵던 암흑시기여서 어느 누구도 두메산골의 가파른 민생고를 해결 할 수 없었다.

경허 스님이 우연히 그 곳을 지나게 됐다. 스님은 지리산 마천 마을의 참상을 보고는 가던 길을 멈추었다. 한동안 생각에 젖어 있던 스님은 가던 길을 되돌려 남원 쪽으로 향했다.

스님은 단숨에 100리 가까운 길을 걸어 남원 땅에서 탁발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스님은 가까스로 바랑 가득히 곡식을 모을 수 있었다. 경허 스님은 그 짐을 짊어지고 걸음을 재촉해 100리 길을 다시 걸어 마천 마을로 돌아왔다. 스님은 집집마다 손수 돌며 굶주린 주민들에게 손수 식량을 나눠주면서 자비 보시행을 베풀었다.

여러 차례 걸쳐 스님은 100리를 걸어 탁발을 하고 또 100리를 걸어 자비행을 베풀었다. 굶어 숨넘어갈

탁발과 보시행은 다르지 않아
굶주림 앞엔 부처도 없어
100리 길 걸음이 행선
한마음 내는 순간 부처

고비에 놓인 두메 사람들을 계속 이처럼 살려놓은 뒤에야 스님은 이렇다할 말도 없이 비로소 가던 길을 다시 걸어 산중 오솔길로 접어들어 홀로 자취를 감추었다.

지금까지도 지리산 기슭 마천 마을 일대에는 굶주려 죽게 된 산골 사람들을 구원한 경허 스님의 자비행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림 · 박구원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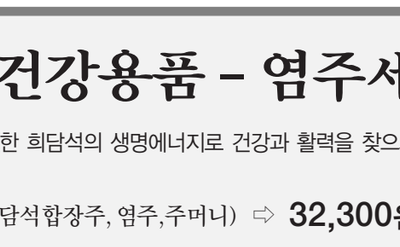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뷰 출가의식 지원
신뷰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뷰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나의 서원 나의 신행 〈6〉

‘동심에 불교를’ …노래포교 촛불 57년

어린이 찬불가 포교 대명사 운문 스님 운문사 주지



운문 스님은 … 1928년 전남 장성에서 출생. 1944년 인곡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53년 해인사 강원을 나왔다. 여수 흥국사와 진주 연화사 주지를 거쳐 조계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무부장 등 역임. 조계종 종정 및 총무원장 공로상, 포교대상 2회 수상.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창립, 서울 구기동 운문사 창건, (사)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 등 역임. 1000여 찬불가를 작사 했으며 각종 〈찬불가집〉과 〈합창곡집〉 등 다수의 불교음악집 편찬. 전국불교음악제 등의 개최에 산파역을 하고 현대 불교음악 발전을 견인 함.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비봉로 5길, 가파른 언덕길의 끄트머리에 ‘삼각산 운문사’ ‘한국불교음악역사관’ 이라는 두 개의 현판이 걸린 건물이 있다. 현판이 아니면 주변의 가정집들과 구별이 안 되는 외양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복도에 모셔진 천불단이 절임을 알게 한다.

4층은 법당이고 3층이 운문스님(雲門, 85)의 공간이다. 속세 나이 85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스님은 혼자 살면서 매우 규칙적인 일상을 보낸다. 새벽에 잠이 깨면 예불로 하루를 시작, 참회문과 〈불설천불인연경〉을 독송하고 절을 한다. 식사는 꼭 정해진 시간에 소식을 하고 피곤하면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스님의 서원을 듣고 싶어 찾아 왔습니다.”기자의 말이 떨어지자 눈을 한 참 감았다가 뜨더니, 어느새 시간을 1955년으로 돌려놓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1955년, 해인사 선방에서 참선 하던 젊은 스님은 목포 정혜사로 갔다. 출가 한 지 11년 된 선객이 도시 절의 주지를 맡은 것인데, 큰 절에서 생각한 불교와 마을에서 만나는 불교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뭣고?’ 화두를 목에 걸고 정진하던 젊은 수좌가 만난 불자들은 부처님 앞에 복 빌러 오는 것이지 깨달음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었다.

“막막했지만 현실은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어린이들이었지. 이미 나이든 불자들의 기복신앙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아이들에게는 바른 불교를 가르치고 싶었거든. 그러나 불교를 어렵게 느끼는 아이들과 소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 어느 날 동네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옛날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아이들과 금방 친해지는 느낌을 받았어. 그렇게 아이들과 친해지다 보니, 내가 부르지 않아도 아이들이 무리지어 우르르 계단을 따라 절까지 올라오기도 했지.”

그런 가운데 스님이 주목한 것은 아이들의 노래였다. 노래는 함께 어울러져 놀 때 서로 친하게 하는 힘도 있지만 생각을 공유하는 기능도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쳤다. ‘그래, 노래로 포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터져 나온 자신감은 운문 스님의 서원이 싹을 트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을 법당으로 모이게 하여 법회를 했다.

어려운 의식이나 복잡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부처님 전생담을 들려주고 함께 노래 부르는 법회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봉착했다. 매일 같은 노래만 반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데 법당에서 동요나 학교교가 등을 부르는 것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궁리 끝에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의 곡은 그대로 하고 가사를 불교의 이야기나 교리로 바꾸어 불렀다. 나름 재미있었다.

그러나 가사와 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완전한 노래는 아닌 법.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노랫말이 필요했다. 운문 스님은 작사를 하기로 했다. 한 번도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스님이지만, 노랫말을 만드는 일은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며칠 고민 해 만든 가사를 들고 목포 시내 학교의 음악 교사인 김제민 선생님을 찾아 갔다. 스님의 사정을 이해한 음악교사는 기꺼이 작곡을 했고 운문 스님의 첫 찬불동요 ‘경배하세’가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운문 스님은 서원을 더욱 다잡았다.

“그때,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어. ‘부처님! 음악을 통한 포교, 찬불가 보급 운동을 한 30년 쯤 하겠습니다’ 라고. 뭐 그 서원이 어쩌다가 평생의 일이 되어 버렸지만. 허허허.”

은사인 인곡 스님은 “출가 했으면 참선이나 염불에 매진해 도를 이룰 것이지 노래는 무슨 노래냐?”고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도 시절인연의 흐름을 거역하기도 비켜 가기도 싫었다. 바른 법을 전하는 것도 수행자로서의 근본에 충실 하는 길이 아닌가?

1950년대는 누구에게나 혼란이었다. 전쟁을 치른 직후였으므로 나라는 가난했고 국민의 정신은 허했다. 모든 게 어수선한 가운데, 불교계는 비구 대처 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외래 종교는 무섭게 교세를 확장해 가고 불교계의 포교의지는 점점 희미해지는 형국에서 운문 스님의 서원은 작은 촛불이나 다름없었다.

불교가사를 동요곡으로 부르다
추월성 · 정민섭 등 작곡가 만나
매일 한곡씩 노랫말을 만들었다
첫곡 ‘경배하세’ 이어 1000여곡 작사
은사스님 참선권유… ‘바른 전법 고집’

몇 년 뒤 운문 스님은 진주 연화사 포교당의 주지를 맡게 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 법회는 물론 청년법회까지 꾸리고 찬불가 부르기를 지속했다. ‘학교종이 땡 땡 땡~’으로 시작하는 동요를 ‘우리절 종이 땡땡땡~’으로 바꾸어 부르기도 했다. 스님이 직접 노랫말을 쓰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강원에서 경전을 본 것을 토대로 경전의 일화나 게송 등을 찬불가의 노랫말로 바꾸니 아주 효과적이었다. 원력을 잃지 않아서였을까? 글을 읽을 때나 풍경을 감상할 때면 순간순간 노랫말들이 생각났다. 미술 전람회에서 그림을 보고 작사를 하기도 했다.

대구 관음사에서는 작곡가 추월성 선생을 만나 많은 곡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가르쳤다. 그때가 1957년이었는데, 거의 매일 한 곡씩 노랫말을 만들었다. 추월성 선생이 미처 작곡을 다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 노래들이 지금 다 불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골목에서 고무줄놀이 하는 아이들도 찬불가를 부르며 율동을 맞추기도 했다. 운문 스님은 골목에서 아이들을 찬불가 부르며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즐거웠다. 스스로 세운 서원을 실천하며 스스로 즐거워지는 것을 희열(喜悅)이라 하던가?

스님은 대구에서 김기우 선생과 정민섭 선생을 만나면서 더 많은 찬불가들을 만들었고 포교 현장에 활용했다. 정민섭 선생의 경우 운문스님과의 인연으로 경희대학교 작곡과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에도 운문 스님과 함께 많은 찬불동요를 만들었다.

지방 도시의 골목에서 촛불로 밝혀진 운문 스님이 서원은 서울의 한 복판에서 몇 만 촉광(燭光) 전깃불로 확산됐다. 1962년 조계사 주지를 맡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지방에서 찬불가 포교의 경험을 충분히 쌓았던 운문 스님은 불교1번지 조계사에 ‘연화어린이합창단’을 구성했다. 찬불가 자체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성인 합창단도 거의 없을 무렵에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으므로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운문 스님의 확신과 서원은 변함없었다. 음악 없이는 포교도 안 된다는 확신, 보다 많은 찬불가를 만들어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정법으로 포교하리라는 서원. 운문 스님은 전문가들에게 합창단을 맡기면서 질적 향상을 꾀했다. 당시 합창단 노래지도는 이찬우 선생이, 지휘는 김기영 선생이 맡았다. 이찬우 선생은 정민섭 선생의 후배이며 김기영 선생은 당시 소년한국일보사 합창단 지휘자였다.

스님과 합창단장 그리고 지휘자의 노력은 2년 뒤 4월 꽃을 피웠다. 동국대학교에서 ‘어린이 찬불가 발표회’를 가진 것. 반응은? KBS가 운문 스님을 소개할 정도였다. 선뜻 오르간을 기증한 어느 불자는 겨울이 되어 연습실이 추워지자 자신의 반지를 팔아 난로를 사주기도 했다. 2년 뒤에는 한 불자가 당시로는 무척이나 귀한 피아노를 두 대나 기증했다. 이때 운문 스님은 ‘나의 서원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대중이 함께 이루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애들이 절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나는 그때 아이들이 많이 올수록 불교에 장래가 있다는 생각이었거든. 지금 봐.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불교와 음악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야. 근자에 들어 산사음악회가 많이 열리는데 반응이 좋잖아? 그런 법석이 30년만 먼저 시작됐어도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거야.”

노래에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는 것일까? 이 무렵부터 사찰에 중 고등학생 법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법회에서는 찬불가가 불리었다. 물론 운문 스님이 주지를 맡은 조계사에도 대한불교 중고등학생회가 생겼는데 1978년 조계사 학생회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맥을 잇고 있다. 운문 스님은 안병호 선생의 도움으로 청소년연합회를 결성해 사찰 학생회의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그때 내가 안병호 선생과 서울 시내에 20개의 불교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자는 서원을 세웠는데 다 이루지는 못했어. 좀 아쉬운데 인연이 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때 개운사 보리수 합창단, 칠보사 어린이 합창단 등이 속속 창단되었는데 그 영향이 지방에도 상당히 미치긴 했어.”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운문 스님의 찬불가 운동과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대 구 연락처
대구 (지장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053)632-0078 010-9243-0113 범성스님 합장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 지 순 례

미얀마 성지순례
5/30, 6/1, 6/8, 6/14, 6/21, 6/23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팀, 호스카 포함

여행사 남녀 가이드 견습생 모집
◆ 해외 파견 견습생 2명
◆ 국내 연수 견습생 2명
◇ 서류제출 :
- 여권사진 부착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종단불문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통.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 호
불교성지전문여행사 주) 마하연 투어
문의 : 02)365-7747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운문 스님은 참회문과 〈불설천불인연경〉을 독송하며 하루를 연다. 스님이 매일 독송하는 발원문이 하나 더 있다. '동식물 천도 발원문'이다. 우리가 먹는 동물, 식물, 공기 물 등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성실한 삶을 다짐하는 서원이다.

함께 봄 들판의 풀잎처럼 돋아나 자랐다. 그리고 1956년부터 8년 동안 만든 찬불동요 87곡을 묶어 〈불교동요집〉(1964년)을 발간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찬불가와 관련한 많은 대목에 운문 스님이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부여 받는다. 어린이 합창단, 피아노 반주, 찬불동요집 등등.

그렇게 찬불가 포교의 대명사가 된 운문 스님은 주로 서울에서 지내며 많은 일을 진행했다. 그 공로로 조계종 포교대상을 두 차례(제1회 공로상, 제3회 대상) 받았고, 중앙종회와 포교원에서도 요직의 소임을 맡았다. 몸도 마음도 참으로 바쁘게 살았던 것인데, 이 동안에도 꾸준히 노랫말을 쓰고 작곡을 의뢰해 찬불가를 만들었다.

운문 스님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혼자가 아닌 단체를 통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제3세대불교음악동호회가 발족되면서 찬불가는 대형화되고 법회현장을 벗어나 본격적인 무대공연의 시대를 열었다. 1990년대는 찬불가의 새로운 도약기이자 저변 확대 시기였고 운문 스님은 찬불가 운동 40년을 넘기면서 각종 모임의 정신적 지주였다.

2000년 (사)삼보불교음악협회 초대 이사장을 맡으면서 보다 다양한 찬불가집을 편찬하고 사찰 합창단의 연합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도모했다. 전국불교음악제 등의 대형 찬불가 무대의 뒤에는 항상 운문스님이 반세기 전에 세운 서원의 불빛이 비치고 있었던 셈이다.

세상에서는 운문 스님이 작사한 찬불가가 족히 1000곡은 될 것이라 말한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노랫말만 만들고 곡을 붙이지 못한 것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그 숫자 역시 허상이다.

"많이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불리느냐 하는 게 문제지. 요즘 찬불가 많이 부른다고 하지만 아직 생활화된 것은 아니거든. 나는 우리나라에도 찬불가 성지(聖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삼보불교음악 협회가 만든 찬불가집

62년 조계사 연화 어린이 합창단 창단
삼보불교음악협회 초대 이사장
불교음악 역사관 건립에 운문사 기증
"서원은 혼자 이루는 것 아니야"

그리고 여기 구기동 운문사에 있는 한국불교음악역사관을 중심으로 찬불가 성지가 이뤄지는 것도 좋을 것이야. 내가 살던 곳이라서가 아니라 실재로 여기서 불교 음악과 관련한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스님은 지금 거처하는 운문사를 삼보불교음악협회에 기증해 불교음악역사관을 건립하도록 했다. 20세기 불교음악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열매를 보전할 상징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한 세기동안 굵은 선으로 흘러 온 찬불가의 역사가 어떻게든 정리되고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5년 전인 여든 살부터 작사를 안 해. 눈이 나빠져서 글을 읽는 것도 만만치 않고, 더 이상 노랫말 만드는 것보다 널리 보급되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한국불교음악역사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건물은 아주 특별해. 한국 찬불가의 역사를 담은 곳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토굴이야. 토굴인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은 토굴인지 알겠지? 이 방에도 여기 안 선생(안병길 지휘자)이 좋은 황토 흙을 엄청나게 많이 넣었고 벽도 전부 황토벽돌이야. 일 층에 천불단을 만들고 천불을 모셨는데, 거기 인연 있는 불자들이 공덕을 심으면 불교음악도 발전할 거야. 나는 매일 '불설천불인연경'을 독송하는데 참 좋아."

운문 스님의 서원은 반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동안 찬불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이제 대중 속으로 그 많은 노래들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향의 기도를 올린다. 그렇다고 운문 스님에게서 찬불가의 향기만 나는 것은 아니다.

스님이 매일 독송하는 발원문이 하나 더 있다. '동식물천도발원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생명이다.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도 생명이다. 또 날마다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도 더 없이 감사한 존재들이다. 그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경건하고 진지하며 성실한 삶을 다짐하는 서원인 것이다.

"일체가 하나인 것은 하나가 일체이기 때문이야. 나는 주변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니 항상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운문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평생 찬불가와 찬불동요를 만들었다. 30년만 하려던 일을 평생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즐거웠고 중요했기 때문. 이제 스님은 일체와 하나를 어우르는 생명의 화엄을 노래하고 있다.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잘보기



동국대 명예교수

몇 일 전 안과에 갔다. 눈물이 자주 고이기도 하고 눈이 워걱거리는 양이 무슨 사달이라도 나지 않았나 염려가 돼서 였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안압도 재 보고 백내장 검사도 했으나 정상이란다. 검사 전 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

여지껏 안경을 쓰지 않고도 사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기 그지 없는 일이다. 예전에 누군가가 '스님은 시신경이 남들보다 하나 더 있는 모양이에요'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거울은 비단 외출할 때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아무 때나 자기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필수품이다. 그러다보니 집안에 한 두 군데 거울이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거울 앞에 서면 육신이 훤히 보인다. 그런데 거울 앞에서 육신이 확인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 연전에 하얀 실오라기가 머리에 붙어 있기에 털어내려고 했으나 떨어지지 않았다. 재차 시도해 봤으나 헛수고였다. 어느 결에 흰머리가 내려 앉았던 것이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간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세월은 경이로움도 안겨준다. 그 때의 심경은 분명히 경이로움이었다.

거울 앞에 서면 한 순간에 온 몸이 드러난다. 마치 요람에서 새끈거리는 어린 아이를 보는 엄마의 시선과도 같이 한 눈에 들어오는 거울이다. 몸을 그렇게 비치듯이 마음을 확인할 수 없을까. 방법이 있다.

마음을 보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육신을 비추는 거울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독서는 정성을 쏟아야만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육신을 단련시켜 복근을 자랑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누구하나 탓할 리 없다.

건강도 육신의 건강만 유별나게 신경쓰는 세상인 듯 하다. 건강이 어찌 몸건강 뿐인가. 마음의 건강도 그에 못지 않다.

책을 읽는 것은 부엉이 살림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정신세계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곧 흘러내리고 만다. 그래도 물주기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 결에 콩나물은 시루 오둠지를 넘어서게 된다.

마음건강 챙기기에 소홀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쉽다. 온정이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양보가 없고 이해가 없는 세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석존이 강조한 것은 잘보기였다. 잘 보아야만이 세상은 훈훈하고 갈등이 가라앉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잘 본다는 것이 정견(正見)이다. 범어로 정견을 samyag-dṛishṭi라고 한다. samyag는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함께'의 뜻이고 dṛishṭi는 '심안으로 보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본다는 불교적 표현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심안으로 보는 것이므로 육안으로 본다는 뜻과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견은 통찰이요 확신을 말한다.

정견이야말로 바깥 세상에 신경쓰라는 말이 아니다. 밖이야 거울 한번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세계는 오묘하기 그지없어 몇 번 본다고 이해되고 깊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닌듯하다.

마음은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이 다르다. 그렇듯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음의 작용이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현대인은 재테크라는 말을 빈번히 쓰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신 없이 산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금전에만 급급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만 모인 세상이라면 여간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이 아닐까.

육체 보려 거울 앞에 서듯
마음 보기 위해서는 독서해야
독서는 마음 건강케하는 원동력
마음 챙기기 소홀하면 사회 시끌
정견은 통찰과 확신 뜻해

몸만 건강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참 위험스러울 것이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재테크는 단연 독서하는 즐거움에서 찾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책마저도 놓아버리는 것이다.

통은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운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보면 볼 수록 갖고 싶은 마음도, 헐떡거리는 마음도 닦아가노라면 가치관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유심히 보면 지니는 것은 헐떡거림이요, 갈증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알 수 있다. 그 때의 즐거움은 체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지복(至福)일 테니까.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번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험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들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종파 초월·재가중심 생활불교가 특색

50년된 서구불교 변화 정리

영국의 한 불자 작가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년간 서구불교와 불자들의 변화를 10개의 항목으로 조명해 주목된다.

英 '가디언'(www.guardian.co.uk)지가 3월 16일 〈Gautama Buddha:the Life and Teachings of the Awakened One(고타마 붓다:삶과 깨달음의 가르침)〉의 베스트셀러 작가 비스흐바파니 브롬필드(Vishvapani Blomfield · 사진)의 글을 게재하고, 불교가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 서구불교와 불자의 변화를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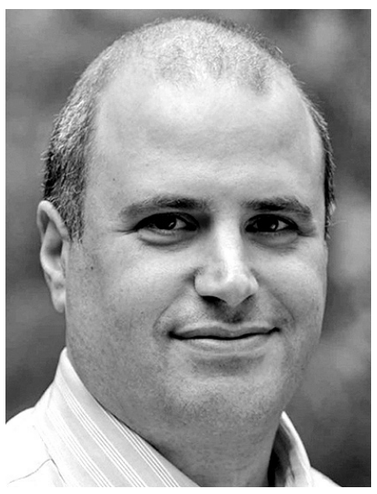
영국의 불교공동체 '삼보 불교회(Triratna Buddhist Order)' 전문위원이자 〈The Triratna(삼보)〉 지의 편집장인 비스흐바파니 브롬필드는 BBC 라디오 프로그램인 'Thought for the Day'의 고정 논평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가디언' 지의 기사를 발췌했다.

불교가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불교는 기존 서구 문화의 패러다임과 반하여 거칠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다. 그렇다면 우리(서구인)가 지난 50년간 불교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일까?

①깨달음이 전부가 아니다 : 불교가 대중화의 첫 발을 내딛을 1960년대 당시, 불교에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은 불교의 궁극적인 최고의 경험으로 열반(nirvana)을 꼽았다. 그러나 10년 후, 서구 불자들은 크고 신비로운 경험보다는 '성격과 행동을 고치고 다지는 데(reshaping character and behaviour)'서 불교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젊은 불자들은 신비주의보다는 사회를 개선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②출가자에 주목하지 않는다 :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가자는 수행과 공부에 매진하는 전문인(the real practitioners)이다. 또한 재가자들은 그들을 적극 돕고 있다. 그러나 현대 서구 사회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별은 맞지 않고, 더욱이 서구의

英 작가, '가디언' 지에 기고
불교 유입 후 사회 변화 관찰
'깨달음 전부 아니다' 등 10가지
과학 추종과 깨달음 관계 등 과제



사원의 수는 비교적 적다. 따라서 재가자 서구불교계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불교 운동에도 적잖은 힘을 실고 있다.

③티베트불교는 긍정과 부정의 면을 가지고 있다 : 티베트 스님이 처음 이곳에 온 1970년대 당시, 그들은 서구인들의 '이상향의 환상(Shangri-La fantasies)'을 충족시켜주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부처 임의 가르침인) 지혜와 영감(inspiration)과 더불어 '종파 분쟁' '탄트라 수행' '전통만을 고수하는 보수성' 등도 가져왔다. 서구인들은 티베트불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티베트불교의 어두운 이면에도 주목하고 있다.

④서로 다른 종파와 교리가 공존하고 있다 : 대부분의 아시안 불교 지도자들은 서구의 나라에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서구 불자들의 일반적인 요구와 모든 불교 전통에 대한 탐구로 인해 불교 종파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서구 불자들은 본질적으로 (불교의) 비(非)종파성에 주목하고 있다.

⑤서구인들은 (불교가)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불교를) 찾고 있다 : 서구의 불교는 법통이나 전승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의 순수성과 같은 불교 담론을 지키기 위해 출가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재가자의 요구에도 응하고 있다.

⑥불교와 서구가 만난 곳에 '마음 챙김'이 있다 : '마음 챙김 수행(mindfulness practices)'은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에서부터 외식(eating-out)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서구인)는 지금 '마음 챙김 붐(mindfulness boom)'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의 핵심이 현대 생활의 내면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서구의 불교에서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50년간 서구불교의 모습이 될 것이다.

⑦그러나 마음 챙김만이 불교와 서구의 접점은 아니다 : 마음 챙김 운동(The mindfulness movement)은 서구의 새로운 불교로 과대 포장되어 있고, 서구인을 들뜨게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그 길(마음 챙김)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서구인들은)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데 더 많은 방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 문명에 대한 불교의 영향은 예술, 사회운동, 환경주의, 심리 요법 분야와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삶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⑧서구인들도 명상을 할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 수십 년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던 수많은 서구의 불자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다. 즉, 서구의 불자들은 분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은 서구 불교의 미래의 동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⑨번뇌로 얼룩진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 : 서구의 불자들이 금욕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더라도 스캔들과 번뇌로 얼룩진 삶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⑩또한 우리는 아직까지 서구불교가 세속의 길을 갈지 아니면 종교의 길을 갈지 단정할 수 없다 : 줄리안 베기니(Julian Baggini)의 말처럼. '성장 운동'은 환생과 카르마와 같은 불교의 미신적 요소를 과학과 비교해 떼어내려고 하고, 불교의 세속화를 정제하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서구인)에게 한 가지 큰 문제를 남긴다. '과연 과학을 추종한다는 것이 깨달음을 버린다는 뜻인가?' 또한 '불교는 서구를 시험하는 대체 권력(alternative source of authority)인가?'

오종욱 편집위원

美 플로리다 윈트파크서 제3회 불교영화제

Chenrezig Project 주최… 'Buddha's Lost Children' 등 14편 상영



美 플로리다주 남동쪽 오렌지카운티의 교외 도시 윈터파크(Winter Park)에서 불교영화제가 개최됐다. 인터넷 매체 옵서버(Observer / www.wpmobserver.com)에 따르면, 윈터파크의 대표적이 티베트불교공동체인 Chenrezig Project가 3월 23일~24일, 3월 30일~31일 각각 두 번에 걸쳐 제3회 '플로리다 달마 영화제(Florida Dharma Film Festival, 이하 FLharma)'를 개최했다.

"플로리다 달마 영화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보여주자는 Chenrezig Project의 포교 의지가 담긴 자리"라고 설명한 마크 윈우드(Mark Winwood · 사진, FLharma 총괄진행)는 "이번 영화제에 선보인 14편의 영화는 관람객들에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비와 지혜가 가든 찬 삶의 의미'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티베트불교의 아름다움, 영성, 감성 등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 소통해 티베트 불교를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마크 윈우드는 "올해 영화제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영화제 모든 행사를 무료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제3회 FLharma에서는 16대 칼마파 라마의 일대기를 다룬 〈The Lion's Roar(사자의 포효)〉. 여객기 추락사고 생존자의 성격 변화를 추적한 〈Fearless(대담 무쌍한)〉, 달라이 라마와 1시간 동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0가지 질문을 소재로 한 〈10 Questions for the Dalai Lama(달라이 라마에게 10가지 질문을)〉, 태국의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지역에 살고 있는 스님과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낸 〈Buddha's Lost Children(부처님의 길 잃은 아이들)〉,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배심원의 갈등을 불교의 눈으로 조명한 〈12 Angry Men(화가 난 12명의 사람들)〉, 수행자와 유명 요리사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진실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How to Cook Your Life〉 등을 비롯해 14편의 영화가 윈드홀스 극장(Wind Horse Theatre)과 조합 교회(Congregational Church)에서 각각 상영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윤리학 분야 개척자

세계의 불교학자(12)

피터 하비 英 썬더랜드대 교수



빨리어 본 경전은 부처님 당시의 원음을 잘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서구열강에 의해 인도 등 아시아 문화 연구가 진행되고, 빨리경전협회(Pali Text Society) 등에 의한 빨리 문헌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빨리어 본이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빨리 문헌 연구는 여느 문헌 연구와 마찬가지로 현실과의 괴리 등이 지목되며 비판받고 있다.

英 썬더랜드대학 피터하비(Peter Harvey) 교수는 빨리 문헌 연구를 통해 불교윤리학(Buddhist Ethics)이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테라와다 불교도라고 말하는 불교신자이기도 하다.

영국을 중심으로 불교윤리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로는 피터하비 교수 외에도 데미안 키온(Demian Keown) · 이안 헤리스(Ian Harris) 교수 등이 있다.

'불교윤리학' 용어는 최근까지도 생소했으나 안락사, 생명복제 등 여러 이슈에서 불교적 견해가 요구되면서 대중화 · 중요시되고 있다. 불교윤리학의 학문적 완성은 고대 문헌의 현대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특히 2500여 년 전 부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피터하비 교수는 맨체스터대학을 다니며 사마타(Samatha) 명상그룹을 통해 불교를 만났다. 사마타 명상은 1962년 태국인 승려 나이 분만(Nai Boonman)에 의해 영국에 소개된 단체로 멘체스터대학 불교학생회를 통해 영국의 지식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피터하비는 1976년부터 사마타 명상그룹의 명상지도사로서 활동하며 랭카스터대학에서 니니안스마트(Ninian Smart)를 지도교수로 비교종교학 관점에서 불교를 연구했다.

영국의 불교학연구 조류는 크게 둘로 나뉜다. 그 첫째가 옥스퍼드 캠브리지 중심의 문헌학적 연구 조류로 고전 문헌의 엄밀한 해석에 치중한다. 두 번째가 랭카스터 중심의 비교종교학적 조류이다. 비교종교학적 연구는 다양한 종교현상에 주목해 이를 비교 · 연구하는 방법이다.

피터하비 교수는 랭카스터식 연구가 옥스퍼드로부터 비판받는 문헌학적 분석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자신만의 탄탄한 문헌학적 능력을 통해 불식시킨 학자이다. 즉, 다양한 종교현상의 이해를 문헌학적 해석 능력으로 이론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예가 피터하비 교수가 2000년 켐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불교윤리학입문(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이다. 한국에서는 동국대 허남결 교수가 번역 · 출간했다.

책에는 자살과 안락사, 낙태와 피임, 여성문제, 윤회와 행위, 동성애, 전쟁과 평화, 시장과 경재, 비윤리적 충동의 기원 등 현대사회의 첨예한 윤리적 문제들이 불교 · 윤리적 시각으로 풀이돼 있다.

이 책은 불교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서이다. 저자 피터하비 교수는 불교학 및 윤리학에

니니안스마트 지도 통해
빨리문헌연구 · 비교종교학 접목
테라와다 불교도로 수행생활
경전근거 현대문제 해법 제시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를 전재로 서술하고 있다.

일반적인 불교율장 연구서들이 단순히 불교에서 어떤 부분을 권장하고, 어떤 부분을 금지하고 있다는 식의 소개에 그치거나, 교단 내부의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피터하비 교수의 책은 다르다. 기존 율장연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피터하비 교수는 빨리 경전과 율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현실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전한다.

피터하비 교수의 불교윤리학은 경전에서 보이는 다양한 실례들이 자살 · 생명복제 · 전쟁 · 평화 등 인류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문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435㎜×300㎜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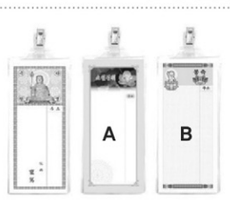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영가 /방수등표大
판매가 35,000원
• 비닐+등표+집게
• 9.6㎝×22㎝
• 100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공단등(6㎝)	@2,500원 (50개이상)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공단등(8㎝)	@3,000원 (50개이상)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공단등(10.5㎝)	@5,000원 (24개이상)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공단등(13㎝)	@10,000원 (12개이상)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공단등(20㎝)	@35,000원 (4개이상)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1Box)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바림등(8㎝)	@3,300원 (50개이상)	• 비 단 접 등(10.5㎝)	340,000원(100개)
• 바림등(10.5㎝)	@6,000원 (24개이상)	• 비 단 접 등(12㎝)	350,000원(100개)
• 바림등(13㎝)	@12,000원 (12개이상)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	@90,000원		

방수전선(한줄50구)
23㎝ / 25㎝ / 30㎝ 5줄이상@ 65,000원
50㎝ 1m / 2m 기타주문생산


LED전구 A형
110,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전구(5W/8W)
@ 45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봉투 : 19×13cm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500원/ 7,000원/ 25,000원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121068-56-042256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귀를 다스리며 깊은잠을 들게하는 선조들의 지혜

100% 수작업으로 만든 안전한 제품, 10년 동안의 연구와 논문으로 특허

저는 예로부터 봄철에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조심스럽게 벗겨 내어 말려 귀에 꽂고 불을 붙여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이봉입니다. 어디에 좋은지 왜 그렇게 했는지 오래도록 알 수 없었지만 꼭 필요한 분들끼리 그 방법을 알고 전해내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100% 수작업 안전필터로 귀를 보호

닥나무 전통 최고급 한지를 십 여 가지가 되는 자생초를 우려낸 물에 담갔다가 다시 말리기를 반복해서 그 효과와 기운이 한지에 스며들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 꾸지뽕 잎사귀를 빻아 쑥뜸처럼 촘촘하게 만든 필터로 중간부분을 막아 이명에 좋다는 꾸지뽕의 효과는 귀로 스며들고 귀속의 안전도 지켜 일석이조의 효과이지요. 귀로 스며든 저의 기운은 아주 오랫동안 한 번도 창문을 열어주지 않은 축축하고 습한 머리와 귀 전체에 자생초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스트레스, 무거운 머리,쉽게 화가날 때

컴퓨터나 핸드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현대인들은 귀가 먹먹하고 불안, 긴장감도 큽니다. 이봉을 사용해 보신 많은 분들은 머리가 가벼워지는 이 경험을 놀라워하십니다.
저를 한 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오랫동안 저를 잊지못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귀와 눈이 환해지고,마음이 편안해져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중력 부족한 학생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은 아래 논문을 간단히 소개한 내용을 꼭 참고하셔요. 꼴지 뇌파가 일등 뇌파로 바뀐답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구요, 물론 직장인들 너무너무 힘드시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다고 저를 많이많이 좋아라 해주십니다. 잠자리가 뒤척여지고 밤이 무서운 분들도 저를 꼭 만나보셔요

해외의 제품 함부로 사용 말아야

전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귀와 머리를 맑게 하는 제품에 대한 흔적은 대한민국과 인디언 뿐이라고 합니다. 인디언의 벽화에서 발견된 그림을 독일사람들 이 힌트를 얻어 의약품으로 승인 내어 쓰고 있다는 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조악하고 위험하게 만들어진 한 개에 100원하는 비슷한 제품을 관광 다녀온 분들이라면 보셨을 거에요.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해외에서 쓰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봉이 있어요. 우리 것을 아끼고 알리고 쓰셔야지요.

귀가 멍하고 귀울림 있을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오래 전부터 청주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신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이봉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신자가 아닌 낯선 할아버지, 할머니 몇분이 찾아오셔서 혹시 이곳이 아무아무게 할아버지가 다니는 절이 맞냐고 하시더랍니다. 스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본인들도 귀에다가 무엇을 꽂고 태워준 그걸 좀 해봐야겠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쭸더니, 며칠 전 이 절에 다니는 아무게아무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할멈이 궁시렁 궁시렁 잔소리를 해대는데 노망이 들었는지 하루종일 중얼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평소 다니시던 절에서 주지스님이 귀에 뭔가를 태워 주셨다는데 바로 그것이였구나, 원래 이 할머니는 잔소리 많기로 동네에 유명한 분이신데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셨다가 바로 이봉을 몇 번 받으시고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되신거지요, 눈도 환해지고 코도 뚫리는 시원하고 재밌는 이야기지요?

일본,뉴욕의 유명 뷰티숍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

뉴욕에서 매우 잘나가는 뷰티숍에서도 저를 만나실수 있답니다. 해외에서 한류를 타고 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곧 이봉을 많은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 ~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중 입니다.
궁금하신 분 들은 모두모두 오십시요. 특별한 시연행사도 합니다. 물론 저를 만나실 수 있는 전국의 한의원도 많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전문 상담원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압현상(SUCTION 효과)

이봉을 태우면서, 미세한 온도의 변화는 귓속 피부온도에 전달, 귀주변의 조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은 일부 높아진 온도로 인해 기화되어 밖으로 배출된다. 이봉을 태울 때 봉 안쪽은 높아진 공기온도로 인해 감압상태가 되어 귓속의 정체된 공기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때 귓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은 기화되어 이봉으로 배출된다(suction 효과). 기화된 노폐물은 낮은 온도의 봉내벽과 부딪치면서 다시 고체로 변한다. 기화된 노폐물이 이봉 벽에 부착되거나 이봉 안에 쌓이게 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노폐물은 귀뜸봉을 하지 않는 한 배출되지 않는다.

눈이 침침하다
귀가 어둡고, 어지럽다.
아이가 폭력적이다.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다.
기(氣)가 뻥 뚫립니다.

진정한 이완감, 휴식
화락하고 안온한 기분
좌우뇌의 온전한 밸런스

이봉의 원료의 성분 등이 기화되면서 대류현상에 의해 피부조직으로 스며들어,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 확인된다. 원료는, 전통적인 제법의 한지와 꾸지뽕, 인동초,쑥, 박하, 구기자, 창포등을 여러차례 적시고 음건하여 예로부터 자생초의 약리작용을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결과적으로 이봉을 통하여 귀 주변과 나아가 귀를 통해 뇌와 근접한 기관의 기혈의 흐름을 왕성하게 하므로 그 결과, 이봉을 뜨기 전과 뜬 후의 뇌파비교를 통해 뇌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뇌 과학의 신기술과 실용적인 뉴로피드백 원리인 뉴로하모니로 거울 보듯이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바란스가 깨진 뇌압이 균형을 찾으면서 스트레스(직장인, 수험생, 가중한 학습을 하는 초등, 유아)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불안심리, 기분장애 등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 질환 및 귀관련 은 물론 뇌 신경들과의 상호 합목적 적인 소통으로 오관(눈,코,귀,입)의 기능을 바르게 하고, 정신활동의 방해를 초래하는 ADHD 등 학습 장애, 정서장애를 개선할 뿐 아니라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다. 뇌는 신체의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봉의 체험은 뛰어난 가정생활요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음을 씻어주는 귀뜸봉은 곧 뇌를 씻어내는 것임을 뇌파의 변화에 의해 기분 변화, 상태변화, 눈, 코, 귀, 목, 뇌 등의 변화를 가져옴을 알게 한다. 이봉으로 현대인들의 심각한 뇌와 귀건강을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정지혜원장,김재수박사의 논문 중

"만명이 넘는 임상과 체험자들의 관심속에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귀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 체험 후 다양한 변화들 중 머리가 맑아지는 원인을 찾았고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이봉 체험 후 평온하고 안정한 뇌파로 바뀌는 놀라운 사례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을 통하여 귀 주변 나아가 귀를 통해 뇌와 근접한 기관의 기혈 흐름 등을 왕성하게 하여 귀의 건강 뿐만 아니라 뇌압의 균형을 찾고 숙면을 취한 듯 머리를 맑게 하고 차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신경과 상호 합목적적인 소통을 갖는 오관(눈,코,귀,입)의 기능을 바르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개발특허: 김 지 문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수험생 및 직장인의 스트레스 해소 불안과 불면증, 시험증후군, 수면부족, 강박관념,우울할 때, 눈이 침침하거나 정신집중이 필요하신 분. ADHD중후군 면역 기능강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 출장이 잦은 분, 휴대폰과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 등등..편안한 휴식과 함께 누워서 이봉을 귀에 대고 불을 붙이게 되면 귀를 통해 우리땅 가까운 곳에서 자란 건강한 자생초의 활기와 따뜻한 약제로 가득 채워져 가벼운 압력과 굴뚝효과로 머리속의 압박감이나 통증을 없애주며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귀가 밝아지고 막혔던 코가 뚫리며 숨쉬기가 시원해지고 후각이 살아나 냄새를 잘 맡게 되는 것입니다.

〈YTN방영 캡쳐〉



10여가지 원료를 다려낸 농축액에 적신 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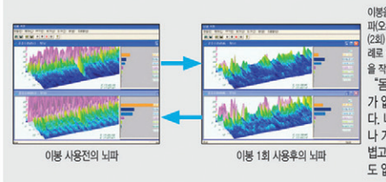
2중 안전 장치로 귀를 보호



음건하여 봉으로 만듬

[이(耳)봉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효과 사례]

성별/나이/성명	증상	횟수
남 / 69 / 운 0 0	고혈압, 당뇨, 편두통, 눈이 침침, 귀가|먹먹하다	11회
변화 / 느낌	머리속이 개운하고, 두통해소, 시력회복, 날아갈 듯한 기분 피부가 윤택해 보이고, 화색으로 젊어 보임	



이봉 사용전의 뇌파 / 이봉 1회 사용후의 뇌파

이봉을 하기 전 뇌파 (왼쪽그림) 이봉을 한번하고 나서 뇌파(오른쪽그림)의 진폭이 높아져 다시 이봉을 하고 나니 (2회) 진폭이 현저히 낮아진 뇌파였지만 먼길을 오신 관계로 한번 더 해드렸다. 체험 후 느낌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돋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글씨가 잘 보인다면서 어, 신기하다. 나 이런 글씨는 안보였는데..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였다. 날아갈 듯 기분이 좋고 몸도 가볍고 상쾌하다. 귀속도 개운하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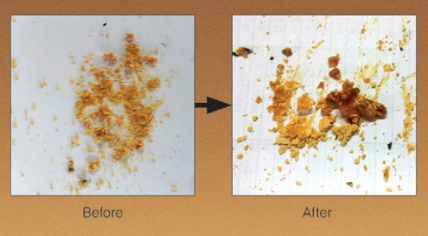
특허제 10-0839663호
〈특허명 - 이비인후과 질환 치료보조용 원통형 뜸봉 이외의 제조방법〉

비염 / 우울 / 귀먹이
편두통 집중력 미약에
관한 임상을 통해
호전된 결과

[2008년 6월 특허등록]

귀울림! 스트레스! 어질어질! 잘 안들리세요?

이(耳)봉


Before After

유사품이 많습니다. 주의 하십시요.
국내특허와 연구 임상 제품은 이(耳)봉 뿐입니다.
www.ebong.co.kr

이젠 그동안 등한시 했던 가장 중요한 머리 · 耳 에 관심을 가지세요

1. 귀가 시원하고 잘 들린다.
2. 눈이 시원하다. 시야가 안개 걷힌 것 같다.
3. 코가 뻥 뚫린다. 냄새를 맡게 되었다.
4.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다.
5.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6. 몸이 가벼워 붕 떠 있는 느낌이다.
7. 피곤이 풀리고 개운하다.
8. 잠을 자고 일어난 느낌이다.
9. 묵직하게 무거웠던 머리가 가볍다.
10. 시원하고 맑은 느낌이다.

"龍"의해를 맞이하여 원암 김지문선생의 "龍"자를 선착순 30분에게 증정합니다.



[주요경력]
· 대전충남서예가협회 초대작가
· 불료미술대전 종려상
·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상
· 대한민국 서예대전 문인화 입상
· 대한민국 현대 서예대전 입상
·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3회
원암 김 지 문

〈아이들〉
꼴찌 뇌파를 일등 뇌파로!!
- 산만한 아이
- 집중력 부족

〈성인〉
-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
- 사소한 일에도 격분한다
-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선착순 100분
20% 할인

주문전화
1544-0272

〈대리점 모집 30인 이상 시연행사 가능〉 동부화재-배상책임보험 1억원가입 수산동천영농조합 입금계좌:[농협] 1544-2395-29(예금주:이은아)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역풍이 화마를 막았으니

사천왕상(四天王像)의 위치(位置)와 명칭(名稱)

낙산사에서 불사에 전념할 때의 일이다. 당시 낙산사 원통보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전각들이 거의 불에 탔다. 불 탄 전각들 한 가운데 있던 조선 후기에 지어진 사천왕각은 원통보전을 향한 방향의 1/3정도 불탄 느티나무들 뒤에서 늠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순수한 나무로만 이루어진 사천왕각과 그 안 4개의 사천왕상은 바로 옆 보물 제479호 동종(銅鐘)과 범종루(梵鐘樓)가 허무하게 불에 무너져 내렸을 때 담담한 모습으로 영겁(永劫)처럼 서있었다.

후에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사천왕각에서 불과 1~2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느티나무들에 불이 붙었을 때, 사천왕각에서 신비로운 역풍(逆風)이 불어 불이 꺼졌다는 것이었다. 사천왕각의 위치와 나무의 위치를 볼 때, 사천왕각 방향에서

낙산사 전소 때 생존한 사천왕상
사천왕상 명칭 잘못 된 절들 많아

바람이 불어 불을 끈다는 것은 무언가 초월적인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낙산사 사천왕각은 사각형의 전각(殿閣)안에 좌우로 두 천왕들이 서있다. 원통보전(圓通寶殿) 방향을 보면서, 좌측 상단에 북방 다문천왕(多聞天王), 하단에 서방 광목천왕(廣目天王), 우측상단에 동방 지국천왕(持國天王), 하단에 남방 증장천왕(增長天王)이 모셔져 있다.

각각의 천왕들의 명칭과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동방지국천왕의 얼굴은 동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손에 악기 중간에 두 개의 눈이 달린 일종의 기타 같은 비파(琵琶)를 들고 있다. 조선후기 이후에는 원나라 라마교(티벳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비파를 든 동방지국천왕이 대부분의 사천왕각과 탱화 속에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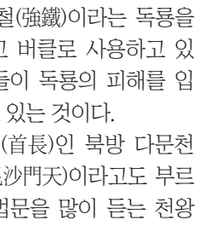
남방증장천왕은 동방지국천왕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있다. 지물(持物)에 관해서는 〈일자불정륜왕경〉이나 〈다라니집경〉 〈만다라도상집〉 같은 경전들에 묘사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조선 후기 증장천왕들은 대개의 경우 얼굴은 적육(赤肉)색의 분노형이고, 갑옷 위에 천의(天衣)를 두르고, 오른 손에는 검을 쥐고, 왼손은 허리에 대고 있다.


동화사 사천왕탱 광목천왕도

서방 광목천왕은 본래 자재천(自在天)의 화신으로 보통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눈을 부릅뜨거나 입을 크게 벌려 나쁜 이야기를 물리치는 역할도 하고,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려, 고통 속에서 도심(道心)을 일으키려는 서원을 세웠다. 광목천왕은 대개 용(龍)을 권속으로 삼기에, 손에 용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강철(強鐵)이라는 독룡을 잡아 허리에 매고 버클로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생명들이 독룡의 피해를 입을까봐 묶어 두고 있는 것이다.

사천왕중 수장(首長)인 북방 다문천왕은 비사문천(毘沙門天)이라고도 부르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는 천왕으로 이 왕만이 부처님의 자비를 계승해서, 진언을 설하는 자격을 얻었기에 밀교에서는 특별한 신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특히 재복(財福)을 불자(佛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요즘 같은 불황에는 절에 오갈 때 꼭 인사드려야 할 것 같다.

많은 사찰들을 다니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천왕각이 사천왕들의 명칭을 틀리게 붙여 놓은 것을 많이 보았다. 심지어는 서울 강남 코엑스 근처의 어느 조계종 대찰에서도 그 명칭이 틀린 것을 보았다. 아미타불 염불로 극락왕생을 하려면서, 다른 분을 부른다면 과연 그 효력이 있을런지는 미지수(未知數)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우울한 내 마음 영화로 치유하자

최근 들어 '치유' '힐링(healing)' '멘붕(멘탈붕괴)' 등 정신 · 마음과 관련한 단어들이 자주 눈에 띈다. 공중파방송 프로그램 제목에서부터 인터넷까지 이러한 단어들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하고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한국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가벼운 우울증 증세가 있어도 주위의 시선 때문에 정신과 병원을 찾기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영화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준형 비커밍연구소-아트테라피센터 소장(現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겸 불교상담심리전문가)은 "영화치료는 내담자가 특정영화를 선정해 영화를 감상한 후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대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습득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통찰을 통해 성장과 치유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치료는 상담과 심리치료에 영화 및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지칭한다. 외국에서는 VCR이 보급된 1990년대부터 영화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영화 치료를 하는 심리상담소가 생겨났다.

영화치료 대상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하다. 왕따, 학교폭력 문제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

김준형 소장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예술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키고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며 "영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와 바람을 잘 반영해 그들의 진로와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치료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도 활용된다. 사진은 재소자들에게 '버킷리스트'와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여주고 키팅 선생이 책상에 올라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말했던 장면을 응용하고 있는 모습. 재소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다.

영화치료 방법으로는 먼저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주인공과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것이 기본이다.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영화를 보면서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부담 없이 얘기하고 속내를 표현한다.

김준형 소장은 "치료에 활용하는 영화는 내담자가 원하는 영화를 먼저 확인하고 그 영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담자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 다뤄지는 문제와 자신의 문제의 연관성을 찾게 된다. 현재 나의 상황과 같은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자기이해를 넓히고 영화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민해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한다.

김준형 소장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어린이는 집단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켰다. 이 학생에게 영화 '별별 이야기' 중 동물의 농장을 보여주면서 역할극을 통해 왕따 당한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빌리 엘리엇'을 통해 빌리 처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 현재 씨름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소장은 "아동 · 청소년에게 영상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이므로 특정 영화 장면이나 스토리를 활용하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준형 소장은 면접관 앞에서 어색하고 자신감 부족한 모습으로 낙방하는 학생에게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 '행복을 찾아서'를 보기를 권했다. 주인공 윌 스미스가 솔직하고 자신감있게 면접을 보는 장면을 자신과 비교해보며 모의면접을 하고 실제 면접을 촬영해 비교하고 체크해보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실연으로 괴로워하는 한 여성에게는 영화 '사랑을 찾아서'와 '그남자의 책 198쪽'을 추천했다.

김준형 소장은 "사랑이 끝난 아픔을 위해서 내담자는 슬픈 영화를 보고 우는 것이 좋다. 실연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상실감에 대한 애도작업을 하면 슬픔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김준형 소장이 전하는 이럴 땐 이런 영화를

***학업 · 진로 고민** : 리멤버 타이탄, 죽은 시인의 사회, 키즈 리턴, 빌리엘리어트, 발레교습소, 스윙 걸즈
***학교 폭력에 시달릴 때** : 우리 형, 싸움의 기술, 말죽거리 잔혹사, 파이터 클럽
***상실감에 젖을때** : 개 같은 내인생, 곰이 되고 싶어요, 기쿠지로의 여름, 마이 걸, 뽀네트
***우울하거나 삶의 의미가 없을 때**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체리향기, 써니,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델마와 루이스, 내 어머니의 모든 것, 쇼생크 탈출, 중앙역
***자살충동을 느낄때** : 글루미 선데이, 디 아더스, 박하사탕, 실비아, 자살관광버스

쇠솥에서 통일신라 불교를 보다

국립중앙博, 5월 6일까지 '색다른 고대 탐험'展

1200여 년 전 신라인들은 우물과 쇠솥에 유물을 담아두었다. 우물에는 토기, 기와, 나무빗 심지어 동물들과 10살 정도의 아이를 넣었으며 쇠솥에는 향로와 부처님이 새겨진 화려한 금동장식판을 넣고 쇳조각들을 덮어 숨겼다. 우물 안에서 이러한 유물들이 왜 발견됐으며 무슨 이유로 불교공예품을 숨겼을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5월 6일까지 '타임캡슐을 열다-색다른 고대 탐험' 특별전을 개최해 이러한 물음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신라의 어느 이름 모를 절터로 추정되는 창녕 말흘리 유적에서 확인된 작은 쇠솥에 담긴 이야기를 공개한다.

박물관은 "500여 점의 금속공예품을 보잘것없는 쇳조각들로 가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보물들을 숨겨놓은 것을 보면 제사나 의례의 목적이 있어 묻어놓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그 때 보물을 감추고 떠날 수 밖에 없는 어떤 급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전시에서는 사자모양의 향로와 손잡이 향로 그리고 절의 지붕 끝에서 맑은 소리를 전하는 금동풍탁(風磬)도 공개한다.


금동풍탁(길이 23.4㎝)

이와 함께 박물관은 신라인들이 깨끗한 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제사를 지내며 우물에 넣었던 유물들을 공개한다. 유물은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7~10세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뼈로 2300여 점이나 되며, 토기와 기와, 나무빗 두레박 금동접시 숟가락 등 목제품과 금속제품 530여 점이나 됐다. (02)2077-9000 이나은 기자

시 쓰는 스님들 '선문학회' 출범

시 쓰는 스님들의 모임 '선(禪)문학회'가 출범했다.

선문학회는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선문학회 동인지 〈존재의 꽃〉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선문학회는 서울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을 회장으로 10여 명의 시인 스님들이 참여하는 문학모임이다. 선문학회원 스님들은 매년 1차례 이상 시낭송회를 열게 된다. 선문학회 동인은 혜민 스님(前 아산 인취사 주지) 구달 스님(양평 예봉사 주지) 행담 스님(삼척 영은사 주지) 수산 스님(양평 유점사 주지) 수철 스님(제주 수보리선원 주지) 청우 스님(영월 법융사 주지)등이 주인공이다. 이나은 기자



오방색 나무에 새긴 '반야심경'

법흥사 5월 13일까지 안강수 초대전

불교 미술의 꽃인 서각(書閣)은 번뇌와 망상의 일상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길 수 있는 탁월한 수행법이다.

단순히 글을 새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깊이 고민하고 작가 자신의 혼을 불어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30여 년간 조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온 안강수 보광불교조각연구소장(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1360)은 법흥사 야외전시장에서 '봄을 여는 평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5월 13일까지 서각 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한문 〈반야심경〉과 〈도덕경〉 등 안강수 소장이 평소 좋아하는 불교 경전과 글귀들을 하나하나 서각하고 화려한 오방색(五方色)의 색감으로 덧칠한 작품을 비롯한 목조불상과 목조달마상 등 2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조각의 세계는 이미 많은 정서적 호환이 있어 설명이 불필요합니다만, 서각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따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안강수 소장은 목조각은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예술의 분야이지만 서각은 그 맥이 점점 끊어져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안 소장은 전통서각의 바탕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띠고자 했다. 색·형·선의 조화와 입체감이 더해진 조형서각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고민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험정신이 강한 작품들로 새김질의 멋을 드러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 작품에 양각·음각·편각 기법을 사용해 다양한 서각을 선보이는가 하면 나무의 결을 살려 그 위에 연꽃의 잎모양을 그리는 등 자연친화적 작품을 선보인다. 100년이 넘은 사찰토기와를 구해 그 위에 서각을 한 작품들도 눈에 띈다.


오방색을 칠한 나무위에 한문 반야심경을 서각한 안강수 소장의 작품 '반야심경'

안 소장은 "이제 서각이라는 장르도 나무에 새김질을 하는 물리적 행위를 벗어나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예술행위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각 초대전을 통해 판매된 수익금은 평화로운세상만들기(이사장 도완)의 청소년 교육지원 기금으로 마련된다. 모금된 기금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아카데미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법흥사(주지 도안)는 3월 30일 법흥사 흥년선원을 개창한 징효 절중 국사의 헌다례를 봉행했다.

헌다례와 서각전을 주최한 도완 스님은 "오늘날 세련된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다 보니 특별한 것만을 좇는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며 "이번 서각작품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우리 곁에 있던 것들이었다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어서 예술가의 깊은 맛이 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평화로운세상만들기는 '내안의 평화를 만들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이 발기인으로 2009년 창립된 단체다.

이곳에서는 ▷'나' 바로알기 명상프로그램 ▷청소년 대장정 프로그램 ▷청소년 평화캠프 ▷평화아카데미 ▷대국민 의식개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33)374-9177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충남 장곡사 괘불탱 전시

통도사성보博 괘불탱 특별전 개최

국보 제300호인 충남 장곡사 괘불탱화가 일반에 공개된다.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10월 21일까지 장곡사 괘불탱을 전시하는 제26회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한다.

장곡사 괘불은 1673년에 조성된 것으로 주존을 중심으로 등장 권속이 삼단으로 열을 지어 정연하게 구성돼 있다.

괘불탱 화면 중앙에는 거대한 주존이 입상의 형식으로 있으며 좌우 여백에는 대칭을 이루도록 권속을 배열했다. 권속은 상단의 4여래와 4보살좌상, 중단의 2여래와 2보살입상, 하단의 사천왕과 천부중으로 구분된다. 중심인물 주변으로는 제자와 나한 등을 배치했다.

화면을 압도하는 크기의 본존은 왼손으로 연꽃 가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줄기 끝을 살짝 받치고 있다. 머리에는 화염(火焰)으로 장식된 보관(寶冠)을 썼으며 보관의 끝에는 흰 관대(冠帶)가 좌우측 어깨 위로 늘어뜨려지고 있다. 머리에 보관(寶冠)을 쓰고 영락(瓔珞)으로 신체를 장엄한 장엄신(莊嚴身)을 주존으로 하는 이 괘불은,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충청지역의 괘불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보박물관은 "이는 앞선 시기 대체로 대웅전(大雄殿)의 중심 불화와 유사한 도상이 조성되던 것에서, 〈장곡사 괘불〉은 점차 입상 형식의 장엄신이 유행하게 되는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055)382-1001

이나은 기자


장곡사 괘불탱, 1673년, 마본채색, 809.0 X 566.0cm, 국보300호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무명(無明)



겨울이었다. 혼자서 야간산행을 한 적이 있다. 일출을 바라보는 마애불을 찍기 위해 아침 해보다 먼저 산에 올라가야 했다. 전날 낮에 올라가 길을 익히고 내려왔다. 40분 길이였다. 다음 날 손전등 하나를 들고 새벽길을 나섰다.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엔 나 밖에 없었다. 나 밖에 없는 새벽길은 무서웠다. 어둠은 내가 알던 어둠이 아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어둠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두려움이었다. 낙엽이 내는 소리마저도 무서웠다. 길은 걸을수록 어두웠고, 일출은 너무나 멀었다.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앞뒤로 어둠뿐이었다. 어둠을 벗어나는 길은 걷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날이 밝기 시작했다. 어둠의 턱 밑에 아침 해가 있었다. 전날 걸었던 길과 다음날 새벽에 걸었던 길은 같은 길이면서 다른 길이었다. 무명이 갈라놓은 길과 길이었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천경해원 선사의 '병든 스님에게 보임 [示病僧]'

아파하는 놈 이 뭣고

四大本來空 (사대본래공)
痛者是甚麼 (통자시심마)
病中不病者 (병중불병자)
巖前綠水聲 (암전록수성)

사대란 본래 공한 것이거니
아파하는 놈 이 뭣고.
앓는 중에서 앓지 않는 것
바위 앞의 푸른 물소리라네

천경해원(天鏡海源; 1691~1770) 스님은 당시 불교계에서 이해되고 있던 삼종선(三種禪)과 다른 이설(異說)들을 비판하고 여래선과 조사선, 의리선과 격외선의 이종선(二種禪)으로 분류하는 등 선 수행의 핵심주제를 간명하게 설파했다. 이는 선사로서의 면모와 더불어 불법의 대의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교학에도 진력한 결과인데 이 시는 '시심마(是甚?)'라는 화두를 주제로 하여 병든 스님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다.

백장 선사가 어느 날 설법을 마치고 대중이 모두 법당에서 내려가자 갑자기 도로 대중을 불렀다. 대중이 모두 고개를 돌리자 백장선사는 "이뭣고"라고 하였다. 이는 대중이 자신의 설법으로 불법을 알았다고 여기는 것을 다시 불러 의문을 던진 것이다.

스님은 응병여약(應病與藥)으로 "이 뭣고" 화두를 주었다. 지·수·화·풍(地·水·火·風)의 四大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본래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 것으로 인연이 흩어지면 사대라고 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하는 주체가 없다는 공사상을 그려내었다. 이어 병으로 앓고 있는 스님에게 '아프다고 느끼는 그 놈이 뭔고'라고 화두를 들라 하였다. 화두를 지어가는 방법을 일러 준 것이다. 나아가 앓는 중에 앓지 않는 자리, 즉 스님의 한 소식을 말구에서 보여 주었다.

'바위 앞의 푸른 물소리'는 그저 평범한 주위에서 항상 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소리는 실체가 없으며 바위와 비탈 등을 만나 소리를 낼 뿐인 것이다. 우리의 사대뿐만 아니라 바위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이러한 인연화합의 이치 속에서 생주이멸(生住離滅)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봄바람에 매화가 망울을 터뜨리듯이 말이다. 간명한 시구 속에 베풀어져 있는 것은 선승의 지극한 자비심인 것이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아사리)



唯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먹기 나름이란 뜻?

- 약인욕료지 若人欲了知
- 삼세일체불 三世一切佛
- 응관법계성 應觀法界性
-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一切唯心造] **오직 식뿐**[萬法唯識] **임을 밝히는 유식불교의 참뜻은 무엇인가?**

유식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수립한 세친의 『유식삼십송』에 대한 주석을 편집·정리한 『성유식론』에 의거하여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이치를 독자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언어로 상세하게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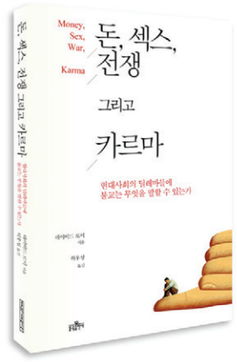
목경찬 지음 | 264면 15,000원

목경찬
불광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 각원사·능인선원·삼광사·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강의.

불광출판사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Money, Sex, War, Karma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교양 강의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왜 늘 돈이 부족한 걸까?
왜 항상 시간에 쫓기는 걸까?
사람들은 왜 섹스에 매달릴까?
그리고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질문들에불교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데이비드 로이 지음
허우성 옮김
240면 /15,000원

“마음의 주인될 때 어른이 된다”

소설가 김형경의 네 번째 심리 에세이



만가지행동
김형경 지음
사람풍경
1만3800원



당신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소설가 김형경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정신분석을 받은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 후 혼자서 긴 여행을 떠났다는 그.

김형경 작가는 그 기간 동안 집약적인 내적 통찰과 맞닥뜨렸고, 폭발적인 감정 역동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김 작가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자기분석이 이어지며 감정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훈습을 시간을 보냈단다. 대단한 무엇을 성취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편안하고 고요하게 살게됐다는 김형경.

〈만가지 행동〉은 소설가 김형경이 펴낸 네 번째 심리에세이이다. 〈좋은 이별〉을 끝으로 심리 에세이를 끝냈다고 생각했다는 저자는 심리에 관한 청탁, 강연, 대담 요청이 이어져 책을 다시 쓰게 됐다고 말한다.

저자는 “통찰은 마술이 아니다. 통찰 이후에는 긴 훈습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경험에 의해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과정에서 내면의 변화나 성장을 이루는 것이 통찰이 아니라 훈습 과정의 성과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저자는 “통찰보다는 훈습 과정이 일곱 배쯤 무거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지나치게 개인적 경험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저자의 지나친 개인적 경험을 담고 있다.

훈습은 ‘정신분석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작업’이다. 유식불교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지각과 의식을 통한 경험이 가장 깊은 층에 있는 아뢰야식에 배어들어 저장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정신분석 작업은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과 저항을 철두철미하게 극복해 치료에 성공하는 것’을 뜻한다.

책에서 저자는 ‘훈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경험이 의식의 어느 지점에 배어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훈습기간 동안 자신과 타인,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의 모든 영역에서 거듭 관점이 변하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책은 네 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장 ‘하던 일 하지 않기’는 훈습 첫 단계에서 행동지침으로 삼은 큰 틀이다.

저자는 이를 유아기에 만들어 가진 이후 검증 없이 사용해 온 낡고 오래된 성격과 생존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내면의 부족하고 부정적인 면을 끌어안는 힘든 일이고, 익숙한 관계들을 정리하면서 지인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고, 불안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수용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한다.

둘째 장 ‘하지 않던 일 하기’는 그동안 회피해 온 마음과 행동의 낯선 영역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새로운 지평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다.

저자는 “이 시기에는 ‘무슨 일이든 하기’라고 혼자 되뇌면서 예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시도했다”고 말한다.

통찰과 훈습 관한 고백서
“종교 통해 마음 건강 얻어”

그리고 “분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자발적 왕따’가 되기도 하고, 불안을 방어하지 않고 ‘무력한 채 머물기’를 시도하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모색했다”고 말한다.

셋째 장 ‘경험 나누기’는 저자가 후배 여성들과 함께 꾸려 간 독서 모임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는 “처음에는 내 경험을 후배들과 나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훈습 과정의 중요한 일부임을 알아차렸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전이와 역전이 양쪽을 고루 경험할 수 있었고, 투사적 동일시나 자기실현 과정을 체험 속에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넷째 장 ‘정신분석을 넘어서’는 정신분석적 심리 치료의 종결과 그 너머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책에서 영적 건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 동서양 종교에 담긴 지혜의 도움을 받아 영적 건강을 해결해 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잊고 지냈던 아름다운 ‘원효길’ 걸어 보자

탐사 전문기자가 펴낸 697km 원효길 안내서



원효길을 따라 걷다보면 이르게 되는 안성 석남사, 입구에서부터 고찰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산티아고 길은 세계적인 순례길이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가 걸었던 전도와 이 순례길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도보 여행, 정신적 · 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길을 걷는다.

탐사 전문기자인 전상천은 궁금했다. 왜 우리의 궁핍한 영혼, 가난한 정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머나먼 스페인까지 날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겐 우리의 남루한 삶을 위로해 줄 가르침과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길이 없는지.

〈길에서, 원효를 만나다〉는 저자 전상천의 이 같은 의문에서 비롯된 책이다.

저자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 그러면서도 그 진면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원효에 집중했다. 한국불교의 영원한 스승 원효 대사.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수원, 화성에 이르는 697km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스스로 파계승이 되어 민중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고, 전국 방방곡곡을 자신의 두 발로 걸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

끊임 없는 전쟁의 고통과 가난으로 시름하는 민중들에게 구원의 희망과 사랑을 알리기 위해 걷고 또 걸었던 원효.

저자는 원효가 걸었던 길 하나하나에 스며든 민중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연민을 발견해 냈다. 저자는 “오랜 사람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과 정신은 그가 창건한 절,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걷고 앉았던 산길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전설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원효가 평생을 두고 걸었던 697km의 순례길은 야고보가 걸었던 길 못지 않은 스케일 안에 수많은 이야기와 가르침을 담고 있다. 저자는 원효의 길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뒤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천년의 역사가 배인 여러 건축물들이 전국 산하의 길과 길 사이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원효길은 원효 대사가 출생한 경산시에서 시작된다. 신라 수도였던 경주를 거쳐 원효가 창건한 천년사찰을 따라 전국의 산하를 휘젓는다. 대구를 넘어 낙동강이 흐르는 안동 하회마을을 지나고 문경의 하늘재길과 남한강이 도도히 흐르는 여주 신륵사를 지난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원효가 깨달았다는 평택과 화성에 다다른다.

경주서 수원 · 화성 잇는 원효길은
스페인 산티아고길 버금가는 순례길

저자는 “원효길은 880km에 이르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뒤지지 않는 대장정의 길이다”라고 말한다.

이 길 위에 저자는 원효의 행적을 큰 기둥으로 삼아 각 지역의 역사 · 문화 등을 엮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원효길을 구체화시켰다.

이제 1300년 전 원효가 걸었던 길을 걸어보자. 원효가 일생동안 설파한 사랑과 구원의 고갱이가 무엇인지, 우리 전통문화의 진수가 무엇인지, 우리 곁에 늘 있어온 산과 강과 하늘이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었는지를, 나의 두 발로 걸으며 느껴보자.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길에서, 원효를 만나다
글 전상천 · 사진 조형기
형설Life
1만2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1~3/2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친절한 간화선	월암	담앤북스
5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운주사
6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글씨미디어
7	마음수업	이광정	휴
8	유식불교의 이해	목경찬	불광출판사
9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산 외	불광출판사
10	원하고 행하니 이루어지더라	보경	불교시대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아름다움만이 나비의 가치일까



아이들은 무심코 길을 가다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 마냥 즐거워한다.

우리 아이들은 나비를 그저 신기하고 기이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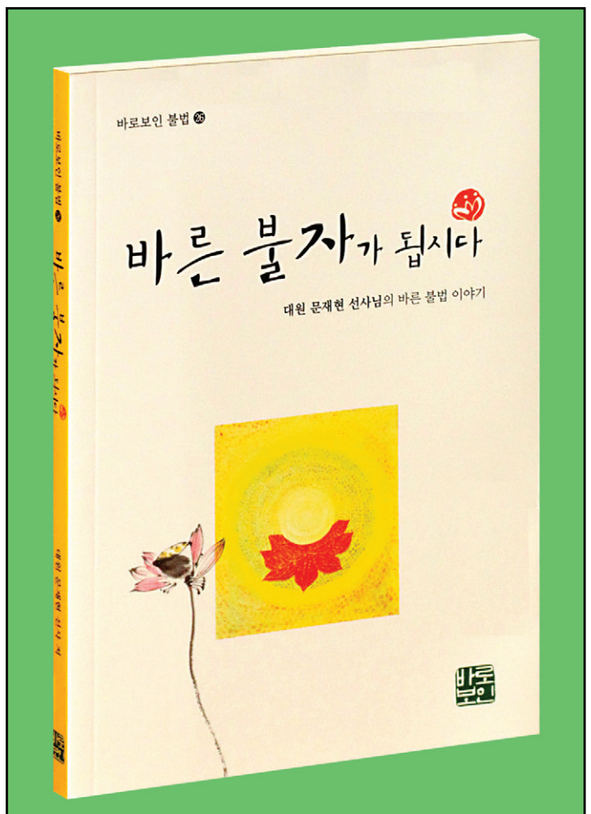
나비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이고, 자연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다.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는 나비도 살 수 없고, 나비가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

천적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비처럼 인간 또한 나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나비가 좋아지는 나비책〉은 나비의 생활을 이해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책이다. 책을 만나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나비를 더 좋아하게 되고,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나비가 좋아지는 나비책 | 신유항 지음 | 다른세상 | 1만4000원

조동섭 기자



신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요즘 불자님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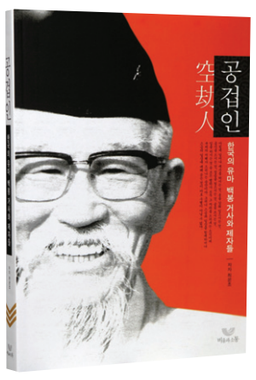
☎031-534-3373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공겁인 空劫人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와 제자들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의 생생한 언행 기록
8년여 자료조사와 인터뷰로 되살린 가르침

이 책은 백봉 거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열한 명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고 수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뷰와 녹취, 비디오 촬영에는 1년 반이 걸렸지만, 각자의 수행기 작성 등 자료조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8년간의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결실이 바로 이 책이다.

백봉 거사의 감동 깊은 구도기와 깨달음,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진솔한 수행담은 재가 불자를 비롯한 출가 수행자에게도 의미심장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백봉 거사 문하 제자들의 깊은 불연(佛緣)과 간절한 발심,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재가 수행자들의 각고의 노력, 스승의 인간적 면모와 제자들의 고뇌, 그리고 화두 타파와 깨달음, 스승의 인가(또는 인정)에 대한 가감 없는 기록을 통해 독자의 마음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운초 지음 | 부분 칼라 | 440쪽 | A5 | 값 16,5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화제의 책 (신간)

행복해요 불교명상

◀ 불교명상의 ‘원리’와 ‘12주 수행’ 프로그램 ▶



저자 김동한(반야) | 302쪽

1장. 불교명상, 왜 행복한가
1절. 부처님은 최고의 행복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2절. 불교명상을 하면 왜 행복해지는가
3절. 불교명상을 하면 왜 건강해지는가

2장. 불교명상, 그 원리는 무엇인가
1절. 삼라만상의 인식과 마음 작용
2절. 불교수행의 덕목과 불교명상의 체계

3장. 불교명상, 어떻게 수행하는가
1절. 불교명상의 세계(世界)
2절. 불교명상의 두 축과 실천 수행법

4장. 불교명상, 12주 프로그램
1주. 입재명상 2주. 정견명상
3주. 정사명상 4주. 보시명상
5주. 지계명상 6주. 인욕명상
7주. 정어명상 8주. 정업명상
9주. 정명명상 10주. 정진명상
11주. 보리명상 12주. 회향명상

• 불교명상 가이드 : 1주~12주

① 불교명상의 핵심 수행법 : ‘사마타’와 ‘위빠사나’
즉 지관(止觀), 정혜(定慧)를 통섭 기술하였습니다.
② 불교명상의 실제 수행법 : 상좌불교의 ‘위빠사나명상’과
대승불교의 ‘간화선(看話禪, 화두명상)’을 통섭 기술하였습니다.
③ 불교수행 덕목인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통섭 기술하였습니다.
④ 불교교리 측면과 행복학 측면에서 통섭 기술하였습니다.
⇒ 불교명상 수행의 생활화를 통한 행복 과 건강 증진!

〈교보문고〉〈영풍문고〉에서 절찬 판매 중!

저희 ‘개발원’에서 구입시 할인 : 3권 이상은 권당 12,000원, 1~2권은 권당 14,000원 (정가 14,000원)
전화 신청 → 입금(국민은행 055-05-0024-151 김동한) → 빠른택배 발송
▶문의 및 신청 : 본사 (031)908-6171 / 사무소 (02)438-6171
월드인재개발원(행복불교명상센터) www.biz-academy.co.kr

"행복도 배워야 한다"

'보현행원품' 강의서 펴낸 법련사 보경 스님

보현보살이 세운 10가지 발원을 적은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에 속해 있다. '품(品)'이라는 뜻이 말해주듯 단독으로 분리돼 수지독송 되기도 한다. '보현행원품'이 적고 있는 보현보살의 원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며, 궁극에는 불법의 완성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이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최근 '보현행원품'을 강의한 〈원하고 행하니 이루어지더라〉를 펴냈다.

저자는 소문난 '글쟁이'이다. 송광사가 자리한 조계산의 대나무·편백나무들처럼 저자의 문장 사이사이 가려 쓰인 단어들의 수려함은 일품이다.

책은 저자가 설법교안지인 〈법화와 설법〉에 연재했던 글들을 추려 내놓은 것들이다. 저자는 불광사 광덕 스님의 번역본을 인용해 한 줄 한 줄 저자만의 명쾌한 해설을 달았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인디언 오하마족 격언을 소개한다.

요즘 사회 문제화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과 폭행 등을 보며 사회공동체의 역할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었다.



원하고 행하니 이루어지더라
보경 스님
불교시대사
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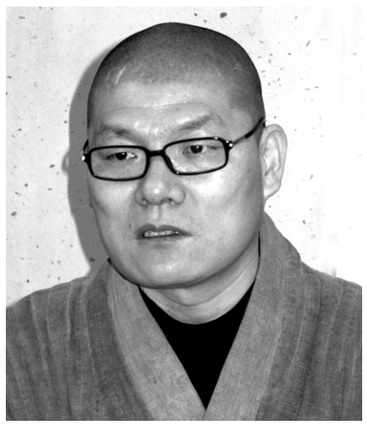
저자는 "불교에서는 '개인'이라는 개념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대중과 공동체, 다수가 살아가는 도량을 함께 가꿔나가는 정신을 더 소중히 생각한다"고 말한다. "깨달음은 개인의 능력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 '벗'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저자는 이를 좋은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한다.

저자는 "보현보살이 세운 10가지 원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현행자'라고 부른다. 이웃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실현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행복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진나라 평공(재위 558~532) 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평공이 신하들을 물리치고 난 후 홀로 오후의 한가한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거울을 비춰 보았는데, 귀밑에 흰서리가 가득 내려있었다.

그것을 본 평공은 새삼스럽기도 하고 산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 멀리 앞을 보지 못하는 악사 사광(師曠)이 앉아 있었다.

평공이 사광에게 다가가 넋두리를 했다.

"내 나이 일흔이니 공부를 하려 해도 이미 저문 듯하구나."

서광이 말했다.

"왜 촛불을 켜지 않으십니까?"

난데없는 사광의 말에 평공은 불쾌했다.

"신하인 주제에 감히 임금을 놀리려는 것이냐?"

사광이 대답했다.

"저 같은 맹인이 감히 임금님을 놀릴 리 있겠습니까? 신이 듣기론 그렇습니다."

사광의 말이 계속됐다.

"'어려서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막 떠오르는 해와 같고, 장년에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중천에 뜬 해와 같고, 노년에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저녁에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가는 것이 어찌 캄캄한 길을 가는 것과 같겠습니까?"

평공은 깜짝 놀랐다.

"그렇구나!"

저자는 말한다.

"부처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무량겁을 지나도록 설법할지라도 다함이 없다. 우리가 그런 불보살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한국불교 애정어린 비판 장군죽비

연세대 신규탁 교수가 바라본 한국 근현대 불교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작금의 한국불교를 못마땅해 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신 교수는 한국불교 현실에 대해 애정 어린 비판을 아끼지 않는 학자로 불교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신규탁 교수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화엄사상과 선불교를 전공했다. 그런 그가 한국불교에 주목한 까닭은 한국불교를 누구보다도 아끼기 때문이다.

한국 근현대 역사의 격동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파란만장했다. 불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불교 문헌연구자인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이런 격동을 통찰하면서, 불교의 전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저서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구〉에 담았다.

저자는 책에서 왜곡되고 편협해진 오늘날의 불교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100년간의 전통을 밝혀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교 현실을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

올 4월 11일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종단 등록을 한 지 50주년 기념일이다. 불교의 역사는 길지만, 교단으로 조직된 것은 그다지 길지 않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의 허가에 의한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 태고사법'이 공포된 것도 고작 1941년 5월 1일의 일이었다. 길게 잡아야 70년의 역사이다.

저자는 현재 한국불교의 모순을 고발하기 위해 현재의 역사와 근접한 근현대 시기에 주목했다. 저자의 한국불교를 향한 장군 죽비는 학자적인 소양과 더불어 평소 염불, 간경, 참선을 게을리 하지 않는 수행력에 힘 입은 바 크다.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구
신규탁 저
새문사
2만7000원

왜곡·편협된 한국불교 바로 잡으려
100년 전 불교 모습 파헤쳐
조계종 출범 50주년 필독할 만

저자가 〈경국대전〉을 비롯한 각종 불교 관계 법령을 섭렵해, 불교 밖에서 불교 내부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

특히, 현재 조계종서 시행 중인 '예불문'이 잘못됐다고 논증하는 저자의 배짱은 가히 신념이라 할 만하다. 깎을 것은 깎아 내리고, 추킬 것은 추켜 올리는 논지의 전개 또한 투명하다. 저자는 "현재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책은 저자의 이 같은 지적의 연유를 담고 있다.

책은 한국 근현대 지성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 들어 볼 만하다. '조계종' 등록 50주년인 올해 저자의 장군죽비의 외침이 더 크게 들린다.

조동섭 기자

붓다의 가르침은 생활 필수품



안양규 박사, 행복메시지 한권에 모아

일간지를 펴보면 온통 불행의 연속이다. 살인 전쟁 갈등 폭력 사기 비방 등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신문에 우리네 삶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볼 때, 현대인의 삶은 온통 문제 투성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삶이 고통스러울 수록 붓다의 메시지는 감로수처럼 와닿는다. 누구보다 투철하게 고(苦)를 고심했던 붓다이기에.

〈행복을 가져오는 붓다의 말씀〉은 행복을 백사장에서 바늘찾기 보다도 어렵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단박에 행복을 전하는 책이다.

저자 안양규 박사(英 옥스퍼드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붓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에 기초해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2600여 년전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푼 붓다.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붓다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말한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붓다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붓다의 가르침은 단지 박물관에 진열된 유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적용해야 할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저자는 "가끔 시간을 내어 놀이 삼아 박물관을 찾아 유물 관람하는 방식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바른 인생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저자의 견해와는 달리 붓다가 살았던 시대의 종교 정치 문화 등 사회 제반 현상이 현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붓다의 가르침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도 있을지 모른다.

저자는 이런 이들의 오해는 붓다의 가르침의 본질을 오해한데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인간 본질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인간의 본질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강조한다.

"인간의 고통과 그 원인을 깊이 다루는 붓다의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고 유익하다"고.

저자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붓다의 가르침이 크게 소용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고통의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에겐 붓다의 가르침이 가장 효과적인 약이다"라고 말한다.

책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뉘어있다. ▷붓다의 인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붓다에 관한 경전 ▷붓다의 가르침을 베우기 위한 마음자세에 관한 내용 ▷행복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 ▷붓다의 전생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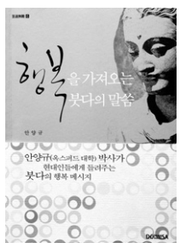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맑아지고 세상사가 분명해 진다.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주위 사람도 그만큼 더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 "이해하는 만큼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자란다"고 말한다.

특히 "붓다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자신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각각의 경전은 독립돼 있지만 그 자체가 완결된 법문이라고 본다. 때문에 저자는 경전을 읽는 데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고 말한다.

"경전은 장편소설이 아니므로 자신이 원하는 경전을 먼저 읽어도 무방합니다. 단지 소설 읽듯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흥미 위주로 속독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자신의 허물을 보고 고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해 집니다."

조동섭 기자



행복을 가져오는 붓다의 말씀
안양규 지음
도피안사 펴냄
1만4000원

무병장수와 극락왕생 기원

윤달 맞아 행해지는 생전예수재 해설

윤3월이 든 올해는 사찰마다 생전예수재가 한창이다.

생전예수재는 말 그대로 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두는 재이다. 살아 있는 지금의 내가 '나'를 위해 지내는 재이다. 이 재는 단순히 현생의 번뇌와 고통을 없애고, 내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에서 벗어나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첫째가 내상을 대비해 선한 공덕을 쌓는 것이요, 둘째가 참회이다.

〈생전예수재〉는 생전예수재의 올바른 기원, 예수재 의식의 의미, 재단 구성 등 생전예수재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책에는 일상발원 기도문과 극락왕생 발원문도 수록됐다.



생전예수재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엮음
조계종 출판사
4000원

특히, 지장기도 일지는 예수재 기간 동안 지참하면서 실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책은 무상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만과 죄업에 대한 뼈저린 참회야말로 예수재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말한다.

조동섭 기자

범음범패학인모집

▣ 기초의식 :
1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6시까지
2 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까지
내용 : 목탁불공 및 종성(도량석) 각단청 예불

▣ 중 급 반 :
초의식 교육이수한 자
내용 : 태징,북 다루기,49재 및 각종재,천수바라 다라니,관욕화의재,요잡바라

▣ 고 급 반 :
시련, 괘불이운,종사이운,예수재 등 큰행사에 필요한 향화게,도량게,다게,법고 작법.

▣ 호적 및 관악기 이수반 :
개인교수식,악보화해서 쉽게 터득할 수 있게 지도함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합장
학장 범성 010-9243-0113

법화경독송 천 일 기 도

(2012. 3. 25 ~ 2014. 12. 19)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심으로 귀의하오며
고려사와 인연 있는 불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평안이 깃들고, 업장소멸 소원성취를 발원하며, 고려사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해 부처님 최고의 대승경전인 묘법연화경(법화경)을 천일동안 일천번 독송하는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축원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00 ~ 03:00 법화경 전품 독송

▶1차 백일기도 (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재 봉행)
■ 기 간 : 2012년 3월 25일 ~ 7월 2일
■ 내 용 :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② 법화경 사경 ③ 염불 ④ 108배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동참금 : 10만원
■ 접 수 : 전화접수 가능
■ 문 의 : 032) 932-3525 / 070-4147-6525

※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 개금불사 동참자(접수중)는 천일동안 축원하여 드림.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임제불교 조계종

종 정 적진당 지암
부종정 적공당 자은

원로원장 : 석진도 원로위원 : 지 언
총무원장 : 석법산 총무부원장 : 석제현
감사원장 : 석월산 조직원장 : 석동일
사회복지원장: 석무애 호법원장 : 석법철
문화부장 : 석지훈 사회부장 : 석보원

불기 2556년 3월 25일
임제불교 조계종 제2대 총무원장 취임식 및 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법계고시 : 대종사 2명 : 적공당 자은, 적심당 진도
종 사 9명 : 석법산, 석월산, 석지언, 석제현, 석동일, 석법철, 석무애, 석보원, 석지훈
종덕 2명, 대덕 5명, 중덕 3명
총 21명 참여, 보살계 150명

■ 총무원 : 경북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171번지 심곡사 휴대폰 011-537-2311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번지 청암사 휴대폰 010-3807-8428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여왕이 신라에만 있었던 까닭?

신라는 남녀 '차별' 아닌 '차이' 보여줘

1. 성골남진과 성조황고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대발해에는 여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의 고려와 조선 및 대한에도 여왕이나 여성 대통령은 추대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유독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 첫째 이유는 53년간 재위하였던 진평왕에게 왕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석·김씨의 교대에 의해 왕위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김씨로의 교체 이후 아직까지 왕자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 때문에 진평왕은 재위 중에 자신의 지위를 계승할 후보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한때 진평왕은 자신의 형(眞智王)의 아들인 용춘(龍春)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진평왕은 '도량이 넓고 어질며[寬仁] 총명하고 민첩한[明敏]' 덕만(德曼, 善德)의 품격을 본 뒤 그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게 되었다.

지귀(志鬼) 설화와 선덕에게 배필을 구해주겠다는 당 태종의 발언에 따르면 선덕여왕은 미혼(未婚)처럼 보인다. 결혼 전의 미려(美麗)한 덕만을 사모한 지귀(志鬼)의 사랑의 불길이 영묘사를 태우고 자신은 심귀(心鬼)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불전에 실린 인도의 설화[心火燒塔]의 변용에 의한 것이며 미혼 때의 이야기로 추정된다. 또 태종의 발언 역시 '여인이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조롱'으로 이해될 뿐 사실이 아니다. 선덕여왕(632~647)은 먼저 '음'(飮, 飯의 誤記, 갈문왕과 결혼한 뒤 을제(乙祭)와 용춘(龍春)과도 결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의 첫 배필은 '반'(飯)으로 불린 갈문왕이다.

왕자 없던 진평왕 덕만 후계자 염두
여인의 왕위계승 위해 진종설 제창

당시 '-반'(飯)으로 불린 사람은 백반(白飯)과 국반(國飯) 두 사람 뿐이었다. 삼촌인 국반은 사촌 동생인 승만(勝曼, 眞德女王)의 아버지였다. 그렇다면 덕만(선덕여왕)의 남편은 다른 삼촌인 백반 갈문왕이었음이 분명해 진다.

하늘의 사자로부터 상황(上皇, 先代 왕들)의 옥대를 전수받았던 진평왕은 덕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다. 하지만 이전 신라의 역사에서는 여인이 왕위에 오른 예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진평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종설(眞宗說)을 제창하였다. 우선 왕실의 종성(種姓)을 붓다의 찰제리(剎提利) 종성에 결부시키고 '신성한 왕조의 황통'을 잇기 위해 '성'(聖)의 개념을 창안하여 성골(聖骨)을 신성시했다. 그리고 진평왕은 이어 '성골 남자가 끊어졌다'[聖骨男盡]고 널리 알렸다. 이것은 성골 여자의 왕위 계승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덕만은 성골 여인이었다. 결국 성골의 신성시는 성골 이외의 종성에 대한 배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진평왕이 갑자기 승하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덕만의 즉위 당시 그의 남편인 백반 갈문왕은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해서 대신(상대등)이었던 을제(乙祭, 閼川의 漢字式 표기)가 일정기간 왕권을 대리하여 정사를 도맡았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 '신라전'에서 종친인 '대신 을제가 국사를 잡았다'[大臣乙祭柄國]고 한 것이나 〈삼국사기〉 법흥왕 조목에서 '대신 을제가 국정을 총괄적으로 담당했다'[大臣乙祭摠持國政]고 한 것에서 우리는 선덕여왕이 옹립되기 전까지 그가 과도(過渡)정권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그의 즉위를 634년으로 적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리고 진평왕의 재위기간(53년)과 그가 왕의 맏딸이었음을 고려하면 선덕여왕이 재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는 아마도 50대 초반(52~53세)의 중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신라 여성들의 지위와 위상

몇몇 기록들에 의하면 선덕여왕은 진평왕이 승하한 해이자 그의 원년(632)까지만 해도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위 전이나 즉위 후에도 일부 귀족들은 여전히 여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진평왕의 승하 이후 재위 2년(633)을 맞이한 선덕여왕은 정월에 신궁(神宮)에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제사장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 아래 종속시켰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위 3년(634) "정월에 연호를 인평(仁平)이라 고치고, 분황사(芬皇寺)를 창건하였다." 부왕인 진평왕의 연호(建福)에 이어 자신의 연호로 '인평'을 개원(改元)한 것은 국내외에 신라의 독존적인 국가의식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증좌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세운 분황사는 '향기로운 황제'[芬皇]임을 과시하는 여황의 치세를 기념하는 사찰이라 할 수 있다.

당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은 재위 4년에 '국인'(國人)들이 선덕여왕을 '성조황고'(聖祖皇姑)로 부르기 시작했다. '신성한 왕조를 이어받은 여인'을 뜻하는 성고황조란 존호는 선덕여왕의 왕위 계승의 당위성을 천명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때부터 왕권이 대내외적으로 안정되어 갔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선덕여왕이 세 가지 일을 알아맞췄다'는 설화는 이때 즈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귀족사회는 처음부터 여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가 여성들에 대해 차별이 심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 등에 견주어볼 때 신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라는 선덕(善德)여왕을 필두로 진덕(眞德)여왕과 진성(眞聖)여왕의 시대를 열었다. 물론 선덕여왕 이전의 탈해, 미추, 나물, 실성, 눌지왕은 모두 사위로서 왕위에 올랐다. 선덕여왕 이후의 흥덕, 경문, 신덕왕도 사위로서 왕위에 올랐다. 나아가 외손주였던 걸해, 지증, 진흥왕도 왕위에 올랐다. 사위와 외손주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왕비인 여성들의 지위와 위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위와 외손주에게 왕위를 내어준 점에서 본다면 신라사회는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 등에 견주어 여성들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경주 황남대총의 두 합장 무덤의 유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남녀 사이가 '차별'이 아니라 '차이'였다는 사실이다. 남편이 안장된 남분에는 금관과 함께 고리장칼과 정강이 가리개 등이 부장되었지만, 아내가 안장된 북분에는 부인대(夫人帶)와 순금제금동관이 부장되어 있었다. 남분의 금동제 관은 장식이 단순하고 규모도 작았지만, 북분의 순금제 관은 장식이 화려하고 규모도 컸으며 왕과 최고의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신라에서는 남해왕의 비인 운제부인이 선도산 성모가 되어 국신(國神)으로서 기림을 받기도 하고, 아노(阿老)의 경우처럼 여성으로서 제사장을 맡기도 했다.



선덕여왕은 분황사를 창건하고 '신성한 황실의 여인'을 뜻하는 '성고황조'를 존호로 썼다. 사진은 634년(선덕여왕3) 창건된 분황사 경내의 법당 모습이다.

선덕여왕 왕권강화 위해 분황사 건립
선덕여왕 필두로 여왕시대 열려

고대사회나 현대사회나 경제력은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경북 봉화의 축서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함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이찬의 딸인 명단(明端)의 이름이 시주자로 새겨져 있다. 이것은 당시 여인들이 '시주'라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불탑의 조성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길쌈은 주요한 역할이었다. 당시 신라에서 거둔 세금이었던 견포와 마포 등의 길쌈을 통해서 만든 직물이었으며 이것은 화폐의 기능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라의 직물생산을 담당했던 여성 관리자인 '모'(母)의 존재나 현존하는 몇몇 기록들에 실려있는 여자들의 실명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도 차별이 없이 균분 상속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신라 여성들의 자유로운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3. 여왕시대의 개막

살펴본 것처럼 제27대 선덕여왕은 즉위 전이나 즉위 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위를 확립하기 어려웠다. 고대의 신분사회에서 전에 없던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명분의 축적이 필요했다. 때문에 '성골 남자가 없다'고 강조해야만 '성골 여자가 왕위에 오를 명분'을 쌓을 수 있었다. 진평왕 재위 초기부터는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선물을 교환하면서 긴밀한 교류를 가졌다. 왜국을 다녀온 신라의 사신을 통해 스이꼬(推古) 여왕의 통치에 대한 보고도 들었다. 진평왕은 선덕을 왕위에 추대하기 위해 진종설과 도리천(忉利天)설의 시설을 통해 그가 즉위할 수 있는 화경을 조성하였다.

선덕여왕 역시 재위에 오른 뒤에는 새로운 연호의 반포하고 분황사를 창건하였다. 아울러 '신성한 황실을 이은 여인'을 뜻하는 존호인 '성조황고'를 사용하였다. 또 여왕의 주변에서는 여왕이 1) 당 태종이 보낸 3색의 모란꽃 그림에 향기가 없음을 알았고, 2) 여근곡(女根谷)에 백제의 장군 우소가 이끄는 군사 오백 명이 숨어들었음을 알았으며, 3) 그가 죽을 달과 죽을 날을 알았다는 '지기삼사'(知機三事)의 기록을 통해 그의 선견지명과 예지력을 뒷받침해 주었다. 선덕여왕의 출자(出自)에 대해 안함(安含)은 '도리천녀'(忉利天女)로 추존하였고, 자장(慈藏)은 '찰리종'으로 추존하였다. 선덕여왕은 이들 두 사람이 제시한 불연국토(佛緣國土)설과 황룡사 구층탑의 조성을 통해 불교적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들이 노니는 신유림을 낭산(狼山)으로 조성하고 수미산을 본딴 제천소(祭天所)인 첨성대를 세워 이곳을 중심으로 한 불교적 우주관을 건립하였다.

그리하여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왕시대를 열었다. 그를 이은 제28대 진덕여왕은 국반 갈문왕의 딸로서 6년간 재위했다. 그는 선덕여왕 만년에 일어난 비담의 난을 제압한 뒤 김유신과 김춘추 등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진덕여왕은 즉위하여 직접 '태평가'(太平歌)를 짓고 비단을 짜서 무늬를 놓아 사신을 보내어 당 태종에서 보냈다. 그는 낭산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어 도리천녀인 선덕여왕의 세계관을 이어갔다. 이어 진덕여왕은 정월 초하루의 아침 조례를 행했고 처음으로 시랑(侍郎) 호칭을 사용했다. 또 경문왕을 이은 제51대 진성여왕은 대구(大矩)화상과 각간 위홍(魏弘)에게 명을 내려 신라의 상중하대 향가의 안목인 〈삼대목(三代目)〉을 편찬하게 했다. 물론 이들 세 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왕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지위에 대해 개방적인이었던 신라사회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 왕위계승은 개방적 신라사회 탓
고구려·백제·가야에선 볼 수 없어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는 여성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직계의 왕자가 없으면 방계의 왕자를 세웠다. 그리고 백제는 직계의 왕자 뿐만 아니라 형제의 상속을 병행하였고, 왜(倭)국의 통치자로는 직계와 방계 왕자를 동시에 파견하였다. 반면 신라는 선덕여왕을 필두로 하여 여인을 왕위에 추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위와 외손주까지 왕위에 옹립할 정도로 개방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진평왕에게 단지 왕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선덕여왕의 즉위는 신라사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위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대구 팔공산 부인사(符印寺, 夫人寺)에는 선덕여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숭모전(崇慕殿)과 그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매년 음력 삼월 보름이면 이 지역 여인들이 모여 선덕여왕을 기리는 숭모제(崇慕祭)를 지금도 열고 있다.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4월 6일(금) 14:00

-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하나?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수가 있다.
-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히는 가정
-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속성반 : 대상 - 법당, 포교원, 철학관 운영자

명리, 육효 초보반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옆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합반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특 혜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硏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남의 잘못을 들춰낼 때는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라
"첫째, 들추려는 잘못이 사실인지 확인하라. 둘째, 시기가 적절한지 살펴라.
셋째, 이치가 상대방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넷째, 부드럽고 조용하며 시끄럽게
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내지 않아야 한다.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파동에너지 양생기공
1. 파동술로 만성질병을 고치는 법
2. 파동술로 가위눌림,빙의,불면증을 고치는 법
3. 파동술로 장시간 병명없이 시달림의 고통을 퇴치하는 법
현재 명리나,풍수,지압,침,활법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권장합니다
051)722-6426 / 011-9785-6426
010-3768-7387 부산 태백정사

역학 개인지도
1. 사주,궁합,택일,조상,성명학
2. 가장 알기쉽고 정확하게
3. 음양오행의 근거로 강의합니다
4. 단기간 완성
5. 개인 및 그룹지도
6. 출장강의도 환영함 (사찰포함)
010-4237-9088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범 송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우주기(氣)천도재
재물을 차리지 않고 특별한 우주기(氣)천도재?
1.시공을 초월한 천도재법?
2.목탁,염불을 하지않는 새로운 천도재법
3.빙의치료,퇴마,천도재 전문
4.조상,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한 천도재
※ 질병, 액운,우환이 많은분 상담
일광사 011-586-6091
031)321-955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역학 기문둔갑 (명리)
상담 비법전수
–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수강즉시 바로상담 책임지도)
– 역학 : 명리, 기문둔갑으로 영가지도. 병방론 지도.
사주, 신수, 궁합, 성명학
우울증, 공포, 빙의, 퇴마(직접상담)
묘불사 주지 직강
051)557-5075
010-2507-1042

사주명리학 작명학 수강생 모집
한 사람의 사주로 !!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사업)운, 건강 운,
자녀 학과(직장)운, 결혼 운, 부모님 건강 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극락왕생 못한 영가를
알 수가 있어 영가천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과서는 본 학원에서 한글로
편집하여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문의처: 유심명리학원
TEL: 010-3711-507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3세까지 미취학
아동과 함께 숙식가능
(부산시내, 대한불교조계종)
010-2826-2887

상 담 안 내
천도재 최고로 잘 모시는 절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예견
고민 완전해결
대구은행 087-13-035968
010-2125-46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정방사
50대후반에서 60대중반
010-5219-7021

입학, 취직 사업
각자에게 맞는
직업 선택.
재물소통 전문상담
자성스님
국민 220401-04-069516 임은자
010-7459-0108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영통호흡기도
• 영과 통할 수 있게 하는 호흡기도법을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010-2563-5550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65세 이하)
011-774-4099

처사님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 마산)
염불 배울 수 있음
010-3428-6665

비구니 기도스님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비구니 스님이나 행자 스님 모십니다
(경북 북부지역)
054)633-6695

병에서 해방
그 어떤 병도 원인을 알면 치유할 수 있다.
스님의 신통력과 법력으로 치유한다.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여수동 755번지 범 용 사 대원스님 합장
연락처 : 055)352-8045 / 010-5453-8611

급 안 내
• 청동, 관세음보살님 입상.....(높이 155cm, 년대 약150년 이상, 금액 1000만)
• 목, 남순 동자님 입상.....(높이 78cm, 년대 약200년 이상, 금액 200만)
• 패엽경.....(가로20cm세로55cm, 매수 약150매, 300만)
• 목, 문수, 산신 동자상 5분..(높이 60~70cm 사이, 년대 150년이상, 합계 150만)
• 석조, 조사상 2분.....(높이 40cm 넓이 28cm, 년대 약200년, 2점 300만)
위의 성물을 불사자금 관계로 급히 안내하오니 소장하여
모실분은 연락주시고 꼭 하실분은 위 금액을 절충 가능합니다.
경북 안동 덕인행 불자 합장 010-4154-9095
큰스님 글씨, 경봉, 월하, 일붕스님과 청광화백 달마와 그림을 불사에 설판하여 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신심이 돈독하신 공양주 하실 분 모십니다
051)721-0449
011-579-6444

비구니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가야공원)
051)891-1051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승납 10년 전후, 40대)
경주 017-206-0113

서울 경기지역
문중 절, 시골집, 가든, 법당,빈터
무상임대나 저렴가격 관리
맡기거나 불사에
도움 주실분 찾습니다
010-3131-0772

3년 동안 숙성한 진짜 100% 효소 145가지의 약초가 들어간 백초 효소
백초효소는 불가에서 승려나 수도자들이 오랜기간 토굴에서 참선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머리를 맑게 하기위해 먹던 약초입니다.
< 백초효소를 권장하고 싶은 사람 >
– 목과 어깨가 빠근함, 일어설 때 느끼는 현기증,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비만, 변비, 요통, 식욕감퇴, 불임, 생리불순 등 자율신경 실조를 인한 제반증상과 갱년기 장애 등
– 각종 암, 당뇨병 등 만성병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자연요법을 실시할 경우 최고의 자연식품.
시중시세 절반 스님들에게 보급가액 1병 5만원
(2병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보급처 신토불이 영농조합
cafe.daum.net/jijangsw.8899
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번지 부처골 지장선원 ☎ 054) 383-8553 , 011-9585-4908
입금계좌 :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배우자를 찾습니다
• 46세(67년.12.1일생) 자시
• 직업 : 개인택시, 아파트 소유 • 아버님 : 스님
불교신자로 인연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자녀없는 재가여성 불자님도 좋습니다)
010-5160-8955 / 055-744-1994

행자(비구니)구합니다
1. 신체조건에 관계없음
2. 학력 관계없음
3. 나이 관계없음
4. 불법을 구하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011-858-0306

관광버스
대우차, 2003년식, BH120,
6기통, 43인승,
노래방, TV양호, 타이어양호,
엔진양호, 무사고, 전체도색(빨강)
가격 : 1천 9백 7십만원
010-8675-338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관음사
• 법 명 : 원기 (속명 : 김석배)
• 주 소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1224-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체 탈 도 첩
• 종단명 : 사단법인 한국불교 정토종
• 직 위 : 총무원장
• 성 명 : 이재송
• 법 명 : 무 각

위 스님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정토종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종단 불화합과
공금유용 등 종도들간의 화합, 불화 문제로
인해 부득이 체탈도첩을 공고함.

2012년 3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불교 정토종
종 회 의 장 혜 명
법인이사장 지 산

극락사 사찰 운영하실 분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노스님 시봉하실분
전북 김제 극락사 납골공원
010-4427-2256

만세력 없이 사주 보는 비법 장소가 필요없음, 즉시 활용 가능
농협 071-02-217956 이민혜
보시금 30만원
010-6621-4599

미륵도에 일몰이 아름다운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민박이나 몸 수양 하실 분 환영
011-9532-0707

전통 범음범패 (바라,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1. 교육과목 :
기초 – 도량석, 아침종송, 사시마지, 저녁예불, 각단예불, 목탁, 요령, 북, 태징, 동광쇠, 타법
기본 – 천도재의식 : 1. 시련,대령,관욕,39위,
2. 봉청짖소리,대령소(고혼소)복천계, 향화청(짖소리),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짧은소리
3. 상단, 관음시식, 상용영반
4.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요잡바라, 화의재바라
5. 나비춤(도량게,다게)
고급 – 생전예수제,수륙재,방생,시다림, 종사영반 , 다비식, 종사이운, 괘불이운
2. 개강일시 : 2012년 3월 3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토요일 오후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서강빌딩5층)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 051)442-1817 010- 2554-5582 (총무국장)
한 국 불 교 태 교 종 부 산 서 부 종 무 원

도심불사 포교당을 함께 운영하실
비구, 비구니 스님과
사무장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41)835-3933
010-8353-3337

무료 이름 감정
평생 불리울 이름,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명, 개명, 무료상담
010-4063-0087
지리산 부성사
주지 금봉 합장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법보시 상담환영>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30~40대)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9416-7743

대중 불자 스님께!
도현 스님의 기통(氣通)찬
① 심신 병고 (비만, 혈압, 당뇨, 암 · · 고민) 근본 치유 예방
② 염불 · 간화선 · 수행 성취
③ 신속 정확한 운신수 첩학
묘법 전수 불사 해결 바람
신불산 불국토 건강도량
心佛정사 道炫 합장
011-855-8180

불자정보 26 | 882호 | 전면광고

2012년 4월 4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1,500평
- 가액 : 18억

※ 9억 지불후 잔여금 후불 가능. 조절 불가임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14평
- 가액 : 3억 5천

토 굴

- 위치 : 충남
- 법당 : 8평
- 요사 : 18평
- 부지 : 40평
- 가액 : 4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창 원

- 대지: 200평(국유지 500평)
- 법당 20평, 원통전10평, 지장전 20평
- 용왕당 6평, 삼성각 6평, 요사방 3칸
- 전통한옥으로 전각 다수
- 가액: 6억 (은행 2억 포함)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원, 수련원, 선방, 포교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북한산 자락)
- 평수 :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 가액 : 15억

- 사찰, 수련원, 요양원(연수원)
- 강화도 (투자 가치있는 명당터)
- 평수 : 1만 2천평
- 가액 : 12억

주인직접 011-372-7744

사찰 및 부전스님안내

- 사찰 또는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 부전 생활이 필요한 스님
- 사찰만을 전문으로 안내하며 부전스님 안내드립니다.

♣ 부전생활에 필요한 덕목 및 사시예불. 목탁. 전문의식 단기교육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8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방)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5511-7000/070-4128-8975
(부산푸른부동산) 혜화.보현 합장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삼천포 남해안 바닷가
- 전망최고, 위치 최고의 부지
- 토목공사완료, 즉시건축가능
- 4차선국도인접 , 진주에서 15~20분 거리
- 1천평에서 2천평
- 가액: 전화상담

010-6776-3308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 사찰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1-282-6098

토 지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추계리(금계산 용목동)
- 지목:전, 면적: 1250㎡(1필지), 가액: 5500만원
- 현재 신축하우스 1동 소재함(15m*6m)
- 금계산 정상아래 해발 500m위치함
- 진입도로개설,차량통행,토목공사 평탄 완료, 전기시설
- 당진~대전간고속도로 유규IC 근접(약7km거리)
- 조망 최고자리임,추천용도, 암자, 공부자리

010-2429-20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2층)
- 30평 가량
- 법당, 방2, 거실, 주방, 화장실 등
- 삼존불, 맞춤탱화 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277-014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용호2동, 큰시장 근처
- 불사하기 좋음, 위치 좋음, 주택 뒤
- 법당, 삼존불, 아미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인등, 산신인등, 영가단, 맞춤탱화,
- 평수 21평, 법회가능
- 방1, 다락2, 주방큼, 수세식화장실, 샤워가능
- 전세 25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주차가능

010-4747-8796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포천시 송우리 근교
- 1층 50평, 위패단
- 2층 법당 35평
- 요사채, 공양실20평, 선방 6개
- 산신각, 휴게실 20평
- 가액: 14억(상담 후 절충)

010-7130-724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남향)
- 총평수 613평 중 대지 350평
- 별도부지 263평
- 건평 1동 130평(옥상사용가능)
- 방4, 대형방3, 심야전기보일러 수세식화장실 3, 주차시설완벽 큰도로 30m, 집기포함
- 가액: 6억 5천만원(상담후절충)

011-3188-124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 평수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8390-6654
010-7154-6654

사찰(급)안내

- 위치: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8억(조정가능)
- 평수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 도계동
- 3층 대형 상가건물 내
- 2층 45평, 큰법당에 시설 완벽
- 가액: 시설비 포함 1억 8천만원

010-4668-655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주방,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100만원 가액절충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내
- 별장식 암자
- 평수 200여평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

011-623-4487
011-229-413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500평, 임법당30평, 요사40평,
-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도량기운 좋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452-8374
010-7164-713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두서면
- 대웅전 20평, 목조, 기와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당
- 요사채, 공양간
- 대지: 1500평, 국유지 4만평 이용가
- 포장도로, 1급수 계곡을 길게 접함
- 가액: 4억(약간절충)

010-5346-4138

상 가 안 내

- 포교원하면 정말 좋습니다
- 부산 지하철 1호선 역세권
- 대지 170평 / 건물 : 650평
- 감정: 22억 5천만원
- 가액:13억

010-8676-277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내
- 지하철 2호선 3분거리, 교통좋음
- 평수: 대지 62평, 주택 2층법당 15평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108불, 인등
- 1층요사채 18평
- (20평 전세 6500안고) 1억 7천 5백만원

018-564-3390
019-581-3081

사찰(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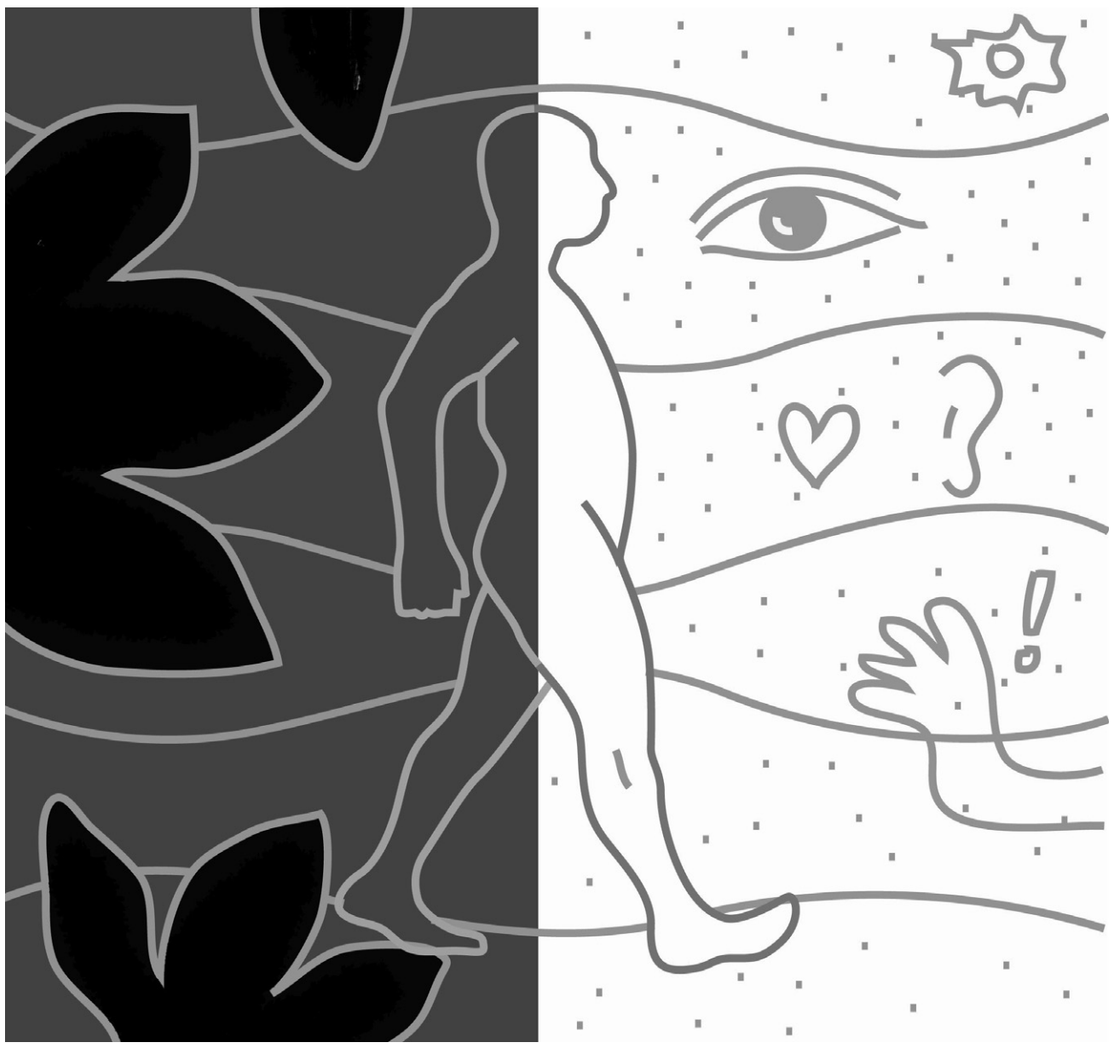
- 위치 :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아산로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98,999,1000,1001,1002,1003,1004,1005,1006,1007,1008,1009,1010,1011,1012,1013,1014,1015,1016,1017,1018,1019,1020,1021,1022,1023,1024,1025,1026,1027,1028,1029,1030,1031,1032,1033,1034,1035,1036,1037,1038,1039,1040,1041,1042,1043,1044,1045,1046,1047,1048,1049,1050,1051,1052,1053,1054,1055,1056,1057,1058,1059,1060,1061,1062,1063,1064,1065,1066,1067,1068,1069,1070,1071,1072,1073,1074,1075,1076,1077,1078,1079,1080,1081,1082,1083,1084,1085,1086,1087,1088,1089,1090,1091,1092,1093,1094,1095,1096,1097,1098,1099,1100,1101,1102,1103,1104,1105,1106,1107,1108,1109,1110,1111,1112,1113,1114,1115,1116,1117,1118,1119,1120,1121,1122,1123,1124,1125,1126,1127,1128,1129,1130,1131,1132,1133,1134,1135,1136,1137,1138,1139,1140,1141,1142,1143,1144,1145,1146,1147,1148,1149,1150,1151,1152,1153,1154,1155,1156,1157,1158,1159,1160,1161,1162,1163,1164,1165,1166,1167,1168,1169,1170,1171,1172,1173,1174,1175,1176,1177,1178,1179,1180,1181,1182,1183,1184,1185,1186,1187,1188,1189,1190,1191,1192,1193,1194,1195,1196,1197,1198,1199,1200,1201,1202,1203,1204,1205,1206,1207,1208,1209,1210,1211,1212,1213,1214,1215,1216,1217,1218,1219,1220,1221,1222,1223,1224,1225,1226,1227,1228,1229,1230,1231,1232,1233,1234,1235,1236,1237,1238,1239,1240,1241,1242,1243,1244,1245,1246,1247,1248,1249,1250,1251,1252,1253,1254,1255,1256,1257,1258,1259,1260,1261,1262,1263,1264,1265,1266,1267,1268,1269,1270,1271,1272,1273,1274,1275,1276,1277,1278,1279,1280,1281,1282,1283,1284,1285,1286,1287,1288,1289,1290,1291,1292,1293,1294,1295,1296,1297,1298,1299,1300,1301,1302,1303,1304,1305,1306,1307,1308,1309,1310,1311,1312,1313,1314,1315,1316,1317,1318,1319,1320,1321,1322,1323,1324,1325,1326,1327,1328,1329,1330,1331,1332,1333,1334,1335,1336,1337,1338,1339,1340,1341,1342,1343,1344,1345,1346,1347,1348,1349,1350,1351,1352,1353,1354,1355,1356,1357,1358,1359,1360,1361,1362,1363,1364,1365,1366,1367,1368,1369,1370,1371,1372,1373,1374,1375,1376,1377,1378,1379,1380,1381,1382,1383,1384,1385,1386,1387,1388,1389,1390,1391,1392,1393,1394,1395,1396,1397,1398,1399,1400,1401,1402,1403,1404,1405,1406,1407,1408,1409,1410,1411,1412,1413,1414,1415,1416,1417,1418,1419,1420,1421,1422,1423,1424,1425,1426,1427,1428,1429,1430,1431,1432,1433,1434,1435,1436,1437,1438,1439,1440,1441,1442,1443,1444,1445,1446,1447,1448,1449,1450,1451,1452,1453,1454,1455,1456,1457,1458,1459,1460,1461,1462,1463,1464,1465,1466,1467,1468,1469,1470,1471,1472,1473,1474,1475,1476,1477,1478,1479,1480,1481,1482,1483,1484,1485,1486,1487,1488,1489,1490,1491,1492,1493,1494,1495,1496,1497,1498,1499,1500,1501,1502,1503,1504,1505,1506,1507,1508,1509,1510,1511,1512,1513,1514,1515,1516,1517,1518,1519,1520,1521,1522,1523,1524,1525,1526,1527,1528,1529,1530,1531,1532,1533,1534,1535,1536,1537,1538,1539,1540,1541,1542,1543,1544,1545,1546,1547,1548,1549,1550,1551,1552,1553,1554,1555,1556,1557,1558,1559,1560,1561,1562,1563,1564,1565,1566,1567,1568,1569,1570,1571,1572,1573,1574,1575,1576,1577,1578,1579,1580,1581,1582,1583,1584,1585,1586,1587,1588,1589,1590,1591,1592,1593,1594,1595,1596,1597,1598,1599,1600,1601,1602,1603,1604,1605,1606,1607,1608,1609,1610,1611,1612,1613,1614,1615,1616,1617,1618,1619,1620,1621,1622,1623,1624,1625,1626,1627,1628,1629,1630,1631,1632,1633,1634,1635,1636,1637,1638,1639,1640,1641,1642,1643,1644,1645,1646,1647,1648,1649,1650,1651,1652,1653,1654,1655,1656,1657,1658,1659,1660,1661,1662,1663,1664,1665,1666,1667,1668,1669,1670,1671,1672,1673,1674,1675,1676,1677,1678,1679,1680,1681,1682,1683,1684,1685,1686,1687,1688,1689,1690,1691,1692,1693,1694,1695,1696,1697,1698,1699,1700,1701,1702,1703,1704,1705,1706,1707,1708,1709,1710,1711,1712,1713,1714,1715,1716,1717,1718,1719,1720,1721,1722,1723,1724,1725,1726,1727,1728,1729,1730,1731,1732,1733,1734,1735,1736,1737,1738,1739,1740,1741,1742,1743,1744,1745,1746,1747,1748,1749,1750,1751,1752,1753,1754,1755,1756,1757,1758,1759,1760,1761,1762,1763,1764,1765,1766,1767,1768,1769,1770,1771,1772,1773,1774,1775,1776,1777,1778,1779,1780,1781,1782,1783,1784,1785,1786,1787,1788,1789,1790,1791,1792,1793,1794,1795,1796,1797,1798,1799,1800,1801,1802,1803,1804,1805,1806,1807,1808,1809,1810,1811,1812,1813,1814,1815,1816,1817,1818,1819,1820,1821,1822,1823,1824,1825,1826,1827,1828,1829,1830,1831,1832,1833,1834,1835,1836,1837,1838,1839,1840,1841,1842,1843,1844,1845,1846,1847,1848,1849,1850,1851,1852,1853,1854,1855,1856,1857,1858,1859,1860,1861,1862,1863,1864,1865,1866,1867,1868,1869,1870,1871,1872,1873,1874,1875,1876,1877,1878,1879,1880,1881,1882,1883,1884,1885,1886,1887,1888,1889,1890,1891,1892,1893,1894,1895,1896,1897,1898,1899,1900,1901,1902,1903,1904,1905,1906,1907,1908,1909,1910,1911,1912,1913,1914,1915,1916,1917,1918,1919,1920,1921,1922,1923,1924,1925,1926,1927,1928,1929,1930,1931,1932,1933,1934,1935,1936,1937,1938,1939,1940,1941,1942,1943,1944,1945,1946,1947,1948,1949,1950,1951,1952,1953,1954,1955,1956,1957,1958,1959,1960,1961,1962,1963,1964,1965,1966,1967,1968,1969,1970,1971,1972,1973,1974,1975,1976,1977,1978,1979,1980,1981,1982,1983,1984,1985,1986,1987,1988,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2027,2028,2029,2030,2031,2032,2033,2034,2035,2036,2037,2038,2039,2040,2041,2042,2043,2044,2045,2046,2047,2048,2049,2050,2051,2052,2053,2054,2055,2056,2057,2058,2059,2060,2061,2062,2063,2064,2065,2066,2067,2068,2069,2070,2071,2072,2073,2074,2075,2076,2077,2078,2079,2080,2081,2082,2083,2084,2085,2086,2087,2088,2089,2090,2091,2092,2093,2094,2095,2096,2097,2098,2099,2100,2101,2102,2103,2104,2105,2106,2107,2108,2109,2110,2111,2112,2113,2114,2115,2116,2117,2118,2119,2120,2121,2122,2123,2124,2125,2126,2127,2128,2129,2130,2131,2132,2133,2134,2135,2136,2137,2138,2139,2140,2141,2142,2143,2144,2145,2146,2147,2148,2149,2150,2151,2152,2153,2154,2155,2156,2157,2158,2159,2160,2161,2162,2163,2164,2165,2166,2167,2168,2169,2170,2171,2172,2173,2174,2175,2176,2177,2178,2179,2180,2181,2182,2183,2184,2185,2186,2187,2188,2189,2190,2191,2192,2193,2194,2195,2196,2197,2198,2199,2200,2201,2202,2203,2204,2205,2206,2207,2208,2209,2210,2211,2212,2213,2214,2215,2216,2217,2218,2219,2220,2221,2222,2223,2224,2225,2226,2227,2228,2229,2230,2231,2232,2233,2234,2235,2236,2237,2238,2239,2240,2241,2242,2243,2244,2245,2246,2247,2248,2249,2250,2251,2252,2253,2254,2255,2256,2257,2258,2259,2260,2261,2262,2263,2264,2265,2266,2267,2268,2269,2270,2271,2272,2273,2274,2275,2276,2277,2278,2279,2280,2281,2282,2283,2284,2285,2286,2287,2288,2289,2290,2291,2292,2293,2294,2295,2296,2297,2298,2299,2300,2301,2302,2303,2304,2305,2306,2307,2308,2309,2310,2311,2312,2313,2314,2315,2316,2317,2318,2319,2320,2321,2322,2323,2324,2325,2326,2327,2328,2329,2330,2331,2332,2333,2334,2335,2336,2337,2338,2339,2340,2341,2342,2343,2344,2345,2346,2347,2348,2349,2350,2351,2352,2353,2354,2355,2356,2357,2358,2359,2360,2361,2362,2363,2364,2365,2366,2367,2368,2369,2370,2371,2372,2373,2374,2375,2376,2377,2378,2379,2380,2381,2382,2383,2384,2385,2386,2387,2388,2389,2390,2391,2392,2393,2394,2395,2396,2397,2398,2399,2400,2401,2402,2403,2404,2405,2406,2407,2408,2409,2410,2411,2412,2413,2414,2415,2416,2417,2418,2419,2420,2421,2422,2423,2424,2425,2426,2427,2428,2429,2430,2431,2432,2433,2434,2435,2436,2437,2438,2439,2440,2441,2442,2443,2444,2445,2446,2447,2448,2449,2450,2451,2452,2453,2454,2455,2456,2457,2458,2459,2460,2461,2462,2463,2464,2465,2466,2467,2468,2469,2470,2471,2472,2473,2474,2475,2476,2477,2478,2479,2480,2481,2482,2483,2484,2485,2486,2487,2488,2489,2490,2491,2492,2493,2494,2495,2496,2497,2498,2499,2500,2501,2502,2503,2504,2505,2506,2507,2508,2509,2510,2511,2512,2513,25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22,2523,2524,2525,2526,2527,2528,2529,2530,2531,2532,2533,2534,2535,2536,2537,2538,2539,2540,2541,2542,2543,2544,2545,2546,2547,2548,2549,2550,2551,2552,2553,2554,2555,2556,2557,2558,2559,2560,2561,2562,2563,2564,2565,2566,2567,2568,2569,2570,2571,2572,2573,2574,2575,2576,2577,2578,2579,2580,2581,2582,2583,2584,2585,2586,2587,2588,2589,2590,2591,2592,2593,2594,2595,2596,2597,2598,2599,2600,2601,2602,2603,2604,2605,2606,2607,2608,2609,2610,2611,2612,2613,2614,2615,2616,2617,2618,2619,2620,2621,2622,2623,2624,2625,2626,2627,2628,2629,2630,2631,2632,2633,2634,2635,2636,2637,2638,2639,2640,2641,2642,2643,2644,2645,2646,2647,2648,2649,2650,2651,2652,2653,2654,2655,2656,2657,2658,2659,2660,2661,2662,2663,2664,2665,2666,2667,2668,2669,2670,2671,2672,2673,2674,2675,2676,2677,2678,2679,2680,2681,2682,2683,2684,2685,2686,2687,2688,2689,2690,2691,2692,2693,2694,2695,2696,2697,2698,2699,2700,2701,2702,2703,2704,2705,2706,2707,2708,2709,2710,2711,2712,2713,2714,2715,2716,2717,2718,2719,2720,2721,2722,2723,2724,2725,2726,2727,2728,2729,2730,2731,2732,2733,2734,2735,2736,2737,2738,2739,2740,2741,2742,2743,2744,2745,2746,2747,2748,2749,2750,2751,2752,2753,2754,2755,2756,2757,2758,2759,2760,2761,2762,2763,2764,2765,2766,2767,2768,2769,2770,2771,2772,2773,2774,2775,2776,2777,2778,2779,2780,2781,2782,2783,2784,2785,2786,2787,2788,2789,2790,2791,2792,2793,2794,2795,2796,2797,2798,2799,2800,2801,2802,2803,2804,2805,2806,2807,2808,2809,2810,2811,2812,2813,2814,2815,2816,2817,2818,2819,2820,2821,2822,2823,2824,2825,2826,2827,2828,2829,2830,2831,2832,2833,2834,2835,2836,2837,2838,2839,2840,2841,2842,2843,2844,2845,2846,2847,2848,2849,2850,2851,2852,2853,2854,2855,2856,2857,2858,2859,2860,2861,2862,2863,2864,2865,2866,2867,2868,2869,2870,2871,2872,2873,2874,2875,2876,2877,2878,2879,2880,2881,2882,2883,2884,2885,2886,2887,2888,2889,2890,2891,2892,2893,2894,2895,2896,2897,2898,2899,2900,2901,2902,2903,2904,2905,2906,2907,2908,2909,2910,2911,2912,2913,2914,2915,2916,2917,2918,2919,2920,2921,2922,2923,2924,2925,2926,2927,2928,2929,2930,2931,2932,2933,2934,2935,2936,2937,2938,2939,2940,2941,2942,2943,2944,2945,2946,2947,2948,2949,2950,2951,2952,2953,2954,2955,2956,2957,2958,2959,2960,2961,2962,2963,2964,2965,2966,2967,2968,2969,2970,2971,2972,2973,2974,2975,2976,2977,2978,2979,2980,2981,2982,2983,2984,2985,2986,2987,2988,2989,2990,2991,2992,2993,2994,2995,2996,2997,2998,2999,3000,3001,3002,3003,3004,3005,3006,3007,3008,3009,3010,3011,3012,3013,3014,3015,3016,3017,3018,3019,3020,3021,3022,3023,3024,3025,3026,3027,3028,3029,3030,3031,3032,3033,3034,3035,3036,3037,3038,3039,3040,3041,3042,3043,3044,3045,3046,3047,3048,3049,3050,3051,3052,3053,3054,3055,3056,3057,3058,3059,3060,3061,3062,3063,3064,3065,3066,3067,3068,3069,3070,3071,3072,3073,3074,3075,3076,3077,3078,3079,3080,3081,3082,3083,3084,3085,3086,3087,3088,3089,3090,3091,3092,3093,3094,3095,3096,3097,3098,3099,3100,3101,3102,3103,3104,3105,3106,3107,3108,3109,3110,3111,3112,3113,3114,3115,3116,3117,3118,3119,3120,3121,3122,3123,3124,3125,3126,3127,3128,3129,3130,3131,3132,3133,3134,3135,3136,3137,3138,3139,3140,3141,3142,3143,3144,3145,3146,3147,3148,3149,3150,3151,3152,3153,3154,3155,3156,3157,3158,3159,3160,3161,3162,3163,3164,3165,3166,3167,3168,3169,3170,3171,3172,3173,3174,3175,3176,3177,3178,3179,3180,3181,3182,3183,3184,3185,3186,3187,3188,3189,3190,3191,3192,3193,3194,3195,3196,3197,3198,3199,3200,3201,3202,3203,3204,3205,3206,3207,3208,3209,3210,3211,3212,3213,3214,3215,3216,3217,3218,3219,3220,3221,3222,3223,3224,3225,3226,3227,3228,3229,3230,3231,3232,3233,3234,3235,3236,3237,3238,3239,3240,3241,3242,3243,3244,3245,3246,3247,3248,3249,3250,3251,3252,3253,3254,3255,3256,3257,3258,3259,3260,3261,3262,3263,3264,3265,3266,3267,3268,3269,3270,3271,3272,3273,3274,3275,3276,3277,3278,3279,3280,3281,3282,3283,3284,3285,3286,3287,3288,3289,3290,3291,3292,3293,3294,3295,3296,3297,3298,3299,3300,3301,3302,3303,3304,3305,3306,3307,3308,3309,3310,3311,3312,3313,3314,3315,3316,3317,3318,3319,3320,3321,3322,3323,3324,3325,3326,3327,3328,3329,3330,3331,3332,3333,3334,3335,3336,3337,3338,3339,3340,3341,3342,3343,3344,3345,3346,3347,3348,3349,3350,3351,3352,3353,3354,3355,3356,3357,3358,3359,3360,3361,3362,3363,3364,3365,3366,3367,3368,3369,3370,3371,3372,3373,3374,3375,3376,3377,3378,3379,3380,3381,3382,3383,3384,3385,3386,3387,3388,3389,3390,3391,3392,3393,3394,3395,3396,3397,3398,3399,3400,3401,3402,3403,3404,3405,3406,3407,3408,3409,3410,3411,3412,3413,3414,3415,3416,3417,3418,3419,3420,3421,3422,3423,3424,3425,3426,3427,3428,3429,3430,3431,3432,3433,3434,3435,3436,3437,3438,3439,3440,3441,3442,3443,3444,3445,3446,3447,3448,3449,3450,3451,3452,3453,3454,3455,3456,3457,3458,3459,3460,3461,3462,3463,3464,3465,3466,3467,3468,3469,3470,3471,3472,3473,3474,3475,3476,3477,3478,3479,3480,3481,3482,3483,3484,3485,3486,3487,3488,3489,3490,3491,3492,3493,3494,3495,3496,3497,3498,3499,3500,3501,3502,3503,3504,3505,3506,3507,3508,3509,3510,3511,3512,3513,3514,3515,3516,3517,3518,3519,3520,3521,3522,3523,3524,3525,3526,3527,3528,3529,3530,3531,3532,3533,3534,3535,3536,3537,3538,3539,3540,3541,3542,3543,3544,3545,3546,3547,3548,3549,3550,3551,3552,3553,3554,3555,3556,3557,3558,3559,3560,3561,3562,3563,3564,3565,3566,3567,3568,3569,3570,3571,3572,3573,3574,3575,3576,3577,3578,3579,3580,3581,3582,3583,3584,3585,3586,3587,3588,3589,3590,3591,3592,3593,3594,3595,3596,3597,3598,3599,3600,3601,3602,3603,3604,3605,3606,3607,3608,3609,3610,3611,3612,3613,3614,3615,3616,3617,3618,3619,3620,3621,3622,3623,3624,3625,3626,3627,3628,3629,3630,3631,3632,3633,3634,3635,3636,3637,3638,3639,3640,3641,3642,3643,3644,3645,3646,3647,3648,3649,3650,3651,3652,3653,3654,3655,3656,3657,3658,3659,3660,3661,3662,3663,3664,3665,3666,3667,3668,3669,3670,3671,3672,3673,3674,3675,3676,3677,3678,3679,3680,3681,3682,3683,3684,3685,3686,3687,3688,3689,3690,3691,3692,3693,3694,3695,3696,3697,3698,3699,3700,3701,3702,3703,3704,3705,3706,3707,3708,3709,3710,3711,3712,3713,3714,3715,3716,3717,3718,3719,3720,3721,3722,3723,3724,3725,3726,3727,3728,3729,3730,3731,3732,3733,3734,3735,3736,3737,3738,3739,3740,3741,3742,3743,3744,3745,3746,3747,3748,3749,3750,3751,3752,3753,3754,3755,3756,3757,3758,3759,3760,3761,3762,3763,3764,3765,3766,3767,3768,3769,3770,3771,3772,3773,3774,3775,3776,3777,3778,3779,3780,3781,3782,3783,3784,3785,3786,3787,3788,3789,3790,3791,3792,3793,3794,3795,3796,3797,3798,3799,3800,3801,3802,3803,3804,3805,3806,3807,3808,3809,3810,3811,3812,3813,3814,3815,3816,3817,3818,3819,3820,3821,3822,3823,3824,3825,3826,3827,3828,3829,3830,3831,3832,3833,3834,3835,3836,3837,3838,3839,3840,3841,3842,3843,3844,3845,3846,3847,3848,3849,3850,3851,3852,3853,3854,3855,3856,3857,3858,3859,3860,3861,3862,3863,3864,3865,3866,3867,3868,3869,3870,3871,3872,3873,3874,3875,3876,3877,3878,3879,3880,3881,3882,3883,3884,3885,3886,3887,3888,3889,3890,3891,3892,3893,3894,3895,3896,3897,3898,3899,3900,3901,3902,3903,3904,3905,3906,3907,3908,3909,3910,3911,3912,3913,3914,3915,3916,3917,3918,3919,3920,3921,3922,3923,3924,3925,3926,3927,3928,3929,3930,3931,3932,3933,3934,3935,3936,3937,3938,3939,3940,3941,3942,3943,3944,3945,3946,3947,3948,3949,3950,3951,3952,3953,3954,3955,3956,3957,3958,3959,3960,3961,3962,3963,3964,3965,3966,3967,3968,3969,3970,3971,3972,3973,3974,3975,3976,3977,3978,3979,3980,3981,3982,3983,3984,3985,3986,3987,3988,3989,3990,3991,3992,3993,3994,3995,3996,3997,3998,3999,4000,4001,4002,4003,4004,4005,4006,4007,4008,4009,4010,4011,4012,4013,4014,4015,4016,4017,4018,4019,4020,4021,4022,4023,4024,4025,4026,4027,4028,4029,4030,4031,4032,4033,4034,4035,4036,4037,4038,4039,4040,4041,4042,4043,4044,4045,4046,4047,4048,4049,4050,4051,4052,4053,4054,4055,4056,4057,4058,4059,4060,4061,4062,4063,4064,4065,4066,4067,4068,4069,4070,4071,4072,4073,4074,4075,4076,4077,4078,4079,4080,4081,4082,4083,4084,4085,4086,4087,4088,4089,4090,4091,4092,4093,4094,4095,4096,4097,4098,4099,4100,4101,4102,4103,4104,4105,4106,4107,4108,4109,4110,4111,4112,4113,4114,4115,4116,4117,4118,4119,4120,4121,4122,4123,4124,4125,4126,4127,4128,4129,4130,4131,4132,4133,4134,4135,4136,4137,4138,4139,4140,4141,4142,4143,4144,4145,4146,4147,4148,4149,4150,4151,4152,4153,4154,4155,4156,4157,4158,4159,4160,4161,4162,4163,4164,4165,4166,4167,4168,4169,4170,4171,4172,4173,4174,4175,4176,4177,4178,4179,4180,4181,4182,4183,4184,4185,4186,4187,4188,4189,4190,4191,4192,4193,4194,4195,4196,4197,4198,4199,4200,4201,4202,4203,4204,4205,4206,4207,4208,4209,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5〉 다음 생으로 진화하는 識

빼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사후 재생 가져오는 것은 업에 의해 조건 지어진 識



재생식은 재생시에 존재하는 이숙식(異熟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생순간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새 존재는 바로 앞의 존재와 연관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그 개체의 과거 전체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숙식은 그 전에 있던, 재생을 일으키는 정신적 요인인 상카라, 즉 의지적 형성력 또는 업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비담마에 나오는 재생식이라는 용어에 상응하는 말을 경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관심을 끄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부(中部)〉의 106경에서는 이 이숙식을 '진행식'으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숙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으로 진화하는 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도 불변의 존재가 아니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식에 의지하여 명색, 정신 · 물리적 존재가 일어납니다. 식은 또 한편으로는 명색에 의해 조건 지어집니다. 이렇듯 식과 명색은 상호 의존적이며, 그들이 함께 새로운 존재를 이룹니다.

연결식은 영구불변하지 않는다

〈장부(長部)〉의 〈대연경(大緣經)〉(15경)에 보면 부처님이 당신 시자인 장로 아난다에게 법문하시는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식이 모태에 들지 않거나 모태에 들었다가 떠나버려도 명색이 발육, 성장할 수 있겠느냐."

아난다 장로는 부정적 대답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태아의 발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현대 생물학에 의하면 '새로운 인간의 생은 아버지의 정자가 모태에서 난자와 합쳐지는 기적 같은 순간에 시작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탄생의 순간입니다. 과학은 이처럼 물리적 요인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순전히 정신적인 제 삼의 요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중부〉의 38경 〈갈애의 멸진에 이르는 큰 경〉이 지적하듯이, 존재의 잉태는 세 가지 요인들의 동시발생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하고, 어머니가 수태기에 있고, 그리고 간답바(gandhabha)가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제 삼의 요인 간답바는 식, 또는 연결식, 내지 진행식을 가리킵니다. 주석가 붓다고샤에 따르면 간답바는 '자궁에 들어가려 하고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야흐로 그 상황에서 태어나려 하고 있는 존재 즉 유정은 업이라는 역학적 구조에 의해서 내몰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간답바는 '아기의 수태를 주재하는 유사신(類似神)도 아니며 베다 산스끄리뜨의 간다르와가 암시하듯 '육체를 갖지 않은 정령'도 아니란 점입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어떤 정령도, 영혼도, 아(我)와 같은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후에 한 개체의 재생을 가져오는 것은, 상카라 또는 업의 형성력에 의해 조건 지어진 식(識)인 것입니다.

존재 또는 개체의 재생을 결정하는 정신적 요인인 식은 자아나 영혼이나 아(我)와 같은 실체의 형태로 항존(恒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 역시 조건 지어지고, 변화에 복종합니다. 부처님 재세시에도 항구 불변하는 자아나 영혼이라는 형태의 식이, 인간 속에 내재하여 일생을 지속하고 죽음이 오면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전생하여 삶을 함께 묶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재세시의 일부 형이상학자들은 '심(心)이나 의(意)나 식(識)이라 불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구하고 일정하고 영구하고 불변하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부〉38경에서 우리는 그 생생한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아띠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의 직계 제자 한 사람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법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계속 운항하며 지속하는 것, 생을 전전하며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식(識)이다."

사아띠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자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아띠여, 네가 말하는 그 식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표현을 하고, 느끼고, 선하거나 불선한 행위의 결과를 때론 여기서, 때론 저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건을 떠나서는 어떤 식도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식은 조건에 의지하여 생기한다는 것을 설명해 그의 그릇된 믿음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아띠는 동일한 식이 표현자로서 또 경험자로서 지속된다고 말하여 식을 모든 정신적 활동의 배후에 있는 행위의 주체로 보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은, 의식의 흐름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결코 존재의 순환을 줄곧 같은 상태로 부서지지 않고 지속하는, 변함없이 상주하는 어떤 단일체가 아니란 점이 충분히 논급되었을 것입니다. 식 역시 조건 지어지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항구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재생 결정하는 식은
정령도 영혼도 자아도 아니다

식은 조건에 의지하여 생기
식과 명색은 상호 의존적

잉태는 세가지 요인 동시 발생
아버지 · 어머지 결합
어머니 수태기에 있고
간달바[연결식] 있을 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다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삶의 흐름

그것은, 사아띠가 생각했듯이,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전전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의식을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은 꼭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끊어진 마디마디가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흐른다.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묘사하려면 '강'이나 '개울'이란 비유가 적절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또는 주관적 삶의 흐름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잠깐 불교 심리학이 말하는 바왕가(bhavaṅga)에 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바왕가 찟따(bhavaṅga citta) 또는 바왕가 소따(bhavaṅga sota)는 사람의 정신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마음의 세 가지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의식 · 잠재의식 · 무의식의 셋입니다. 의식의 수준이란 알아차림의 수준을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의식 수준은 마음의 다섯 감각 기관으로 알려진 다섯 통로를 통해 줄곧 작용합니다.

마음의 잠재의식층은 우리가 언제든 간에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을 담고 있는 영역입니다. 의식층의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정신 생활의 잠재의식 수준은 마음대로 의식 속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들의 저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수준은 마음대로 기억해 낼 수 없는 과거의 모든 경험 내용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때때로 외부의 자극이 없는 가운데 그 스스로 의식수준에 떠오르기도 하며 최면술과 같은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정신적 원인들의 창고로서 무의식의 마음에 특히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이란 책에서 무의식적 활동의 예를 무수히 들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스리랑카) 학자들이 바왕가 찟따를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과 동일하게 보고 있지만 저는 완전히 일치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런 수준들의 식(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마음, 위티 찟따(路心)와 바왕가 찟따(有分心)를 말합니다.

위티찟따는 의식수준에서만 일어나는 사유 과정으로 깨어 있을 동안 다섯 감각 기관을 통해 작용합니다.

바왕가 찟따는 깨어 있을 때나 꿈이 없는 깊은 숙면 상태에서나 똑같이 작용하며 따라서 의식수준의 밑면에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구의 개념과 전적으로 궤를 같이 하지는 않는, 일종의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잠재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마음이란 개념의 전 범위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륜시리즈 7"(고요한 소리刊)의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882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포교원(급)안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 32평 시설완벽
- 법당 :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 2칸, 시설비 2,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실버타운, 요양시설, 적지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 모두 갖춘(명당), 식수1급수
- 현,전원주택, (옛날 학교터)
- 554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517-8526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 석가 삼존불, 지장, 칠성, 신중, 산왕, 소불 120, 인등
- 방2, 주방, 거실, 다락방
- 실평수 35평 , 법당 20평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9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7178-5892

사찰(급)안내
- 경북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명당
- 대지 500평
- 법당 :25.5평, 요사채 40평
- 철골 토기와 박포
- 석가모니불, 좌우 3존불
- 칠성 104위, 산신탱화, 최고의 명당
- 가액: 5억 8천만원

010-4078-1778
011-529-7799

사찰(급)안내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근처
- 대지 224평
- 법당 30평, 요사채 10평, 산신각, 옥외화장실2개, 하우스 1동
- 주차장, 텃밭, 천연염색 가능
- 대출 1억 가능
- 가액: 3억 2천만원

011-9588-5923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한적한곳
- 임야: 13,000평
- 전,답 대지 1,600평
- 법당(조립식) 25평
- 요사채 10평
- 가액: 1억 7천만원

010-8030-2467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포항시 해도동
- 3층건물중 2층, 25평
- 보증금 5백만원, 월 3십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387-7973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 1층 요사채 50평
- 2층 법당 50평
- 옥상 : 지장보살 입상, 대종
- 대지 75평, 시설 A급
- 가액: 4억 7천만원(시설비 포함)

010-3621-8747

암자터,토굴안내
- 위치: 산좋고 물맑은 공주 정안면
- 상류계곡, 세종시 5분거리
- 옹달샘 있고, 365일 물이 흐르고 있음
- 평수 8300평
- 건물 40평, 25평(2동)
- 가액: 10억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4130-0606

사찰안내
- 울산(통도사, 석남사 중간지점)
- 공기 좋고 교통 좋음
- 평수: 240평
- 건물: 창고 화장실(별도), 법당 (20평), 요사채20평
- 시설: 완벽, 심야보일러
- 가액: 2억 9천 5백만원

010-8364-0816
052)264-0810

토굴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 청암면 면사무소 위
- 김봉권마을 밑, 큰 길 도로옆
- 깨끗한 가옥
- 방2, 부엌, 평수 90평
- 가액: 2천 7백만원

010-7166-8873

사찰 명당부지 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삼가면
- 한옥 황토집3채
- 대지 약1천평
- 주변 경관 산세 수려하고 전국 교통망 편리 (진주, 창원,대구..20~40분거리)
- 가액: 22억

055)934-4488
010-3521-6920

농가주택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입암
- 한적한곳
- 남향에 위치한 대지포함
- 건물 2동에 좋은 조건
- 다용도
- 가액: 4천 900만원
- 주인직

010-8899-88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 30평, 방2, 주방,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 950만원

010-2208-774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 3층건물의 3층, 평수 35평
- 옥탑방 포함, 옥상 사용가
- 시장입구
- 버스정류장 앞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약간

010-5607-0108

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시내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

사찰안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010-2501-3671

포교원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인등 230불
- 법당1,방4,바텐식주방,창고1, 화장실2(실내,외각 1개)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현대식 시설
- 전세5천 월30,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대행 스님

진실한 내 마음 하나에서 일체 만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봄이 돼서 좀 따뜻하니까 자리가 좁아도 마음이 한결 낫습니다. 정말 감사하구요. 또, 절을 짓게 돼서 감사하구요, 허허허…. 여러분도 마음을 졸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봐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그대로 직접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고, 또 스님네들이 가르치신다 하더라도 과거의 방편을 쓰시니까 현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이래서 큰 걱정이 됩니다. 세계를 다 따져봐도, 전 우주를 다 따져 봐도 우리는 한 생명이며 모두 한 진리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먼 데서 찾지 마시고 못났든 잘났든 내가 나온 자리에서 바로 나를 찾으세요. 아랫눈썹과 윗눈썹이 마주치듯 정신계와 물질계가, 즉 육신과 정신이 둘이 아니게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건만도 너무 가까워서 찾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몸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지 않고 타의에서 찾는다면 영원히 찾지 못한다." 하구요. 그런데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찾느냐. 각 개체의 소임자들을 다 만나기 위해 굽이굽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또 봐도…, 이 여러분 육체 속을 가만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정신계가 벼룩만하게 축소돼서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진흙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뭐 온통 난리일 겁니다. 세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찾으러 거길 들어갔을 때에, 굽이굽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자갈밭을 걷고 가시밭을 걷고 흙탕물에 빠져 가면서 걷고 할 때에 그것을 고(苦)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마음의 생활은 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굽이굽이 넘어가면서 닥쳐오는 모든 것을 거기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하는 자체가 굽이굽이 닥쳐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비유했듯이 이 속에 들어가서 굽이굽이 걷고, 빠지고, 나오고 온통 이렇게 돌아치는 이 경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세계를 찾아서 가는 길이죠.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가 있는 가운데 중세계에서 살면서 상세계로 치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세계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고, 하세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여러분한테 어떠한 게 앞에 닥치든 또는 안에서 일어나든, 모든 것을 그 나오는 자리에다가 놔라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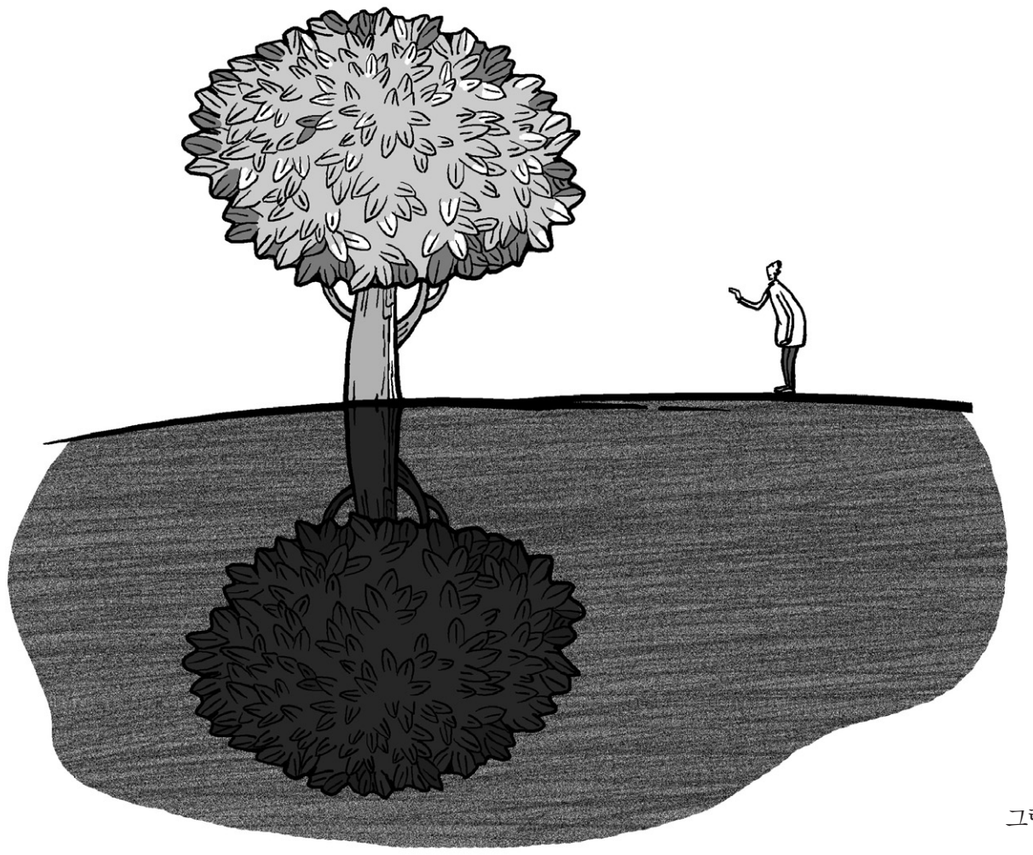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것은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등 동물에게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의식처다 이겁니다. 생명, 모습, 의식들이 하는 농간이다 이겁니다. 이 의식들이 모두 입력이 돼서 차례차례로 나오는데 그 억만 가지, 아니, 헤아릴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그것을 팔자 운명이니 뭐니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 속에다 다시 놔라. 다시 놓으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현재 내가 거기다가 놔서 입력하는 것만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 드렸지만 듣기는 들었으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음으로써 대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를 따르되 믿지는 마라. 너를 먼저 알아야 부처의 마음도 알고, 몸은 공체(共體)로서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는 도리도 알 수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했듯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겪어야 할 문제가 뭐냐. 그것이 지금 우리 생활에서 겪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둘로 보지 말고 거기다 놓고 놓고 또 가고, 또 놓고 또 가고 한다면, 바로 홀연히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믿지 못하고 놓지 못한다면, 아니, 놓는다는 말도 붙지 않습니다. 뭐, 놓는다 안 놓는다 이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죠. 왜냐하면, 저 나무들 보셨죠? 뿌리가 윗 줄기하고 그냥 맞붙어 있어요. 흙이 덮여서 가려져 있지만 맞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흙이라는 무명에 가려서 뿌리를 못 보게 되고, 인간은 자기의 관습, 욕심, 착이라는 그 무명에 가려서 자기 뿌리를 못 본다고 하고 이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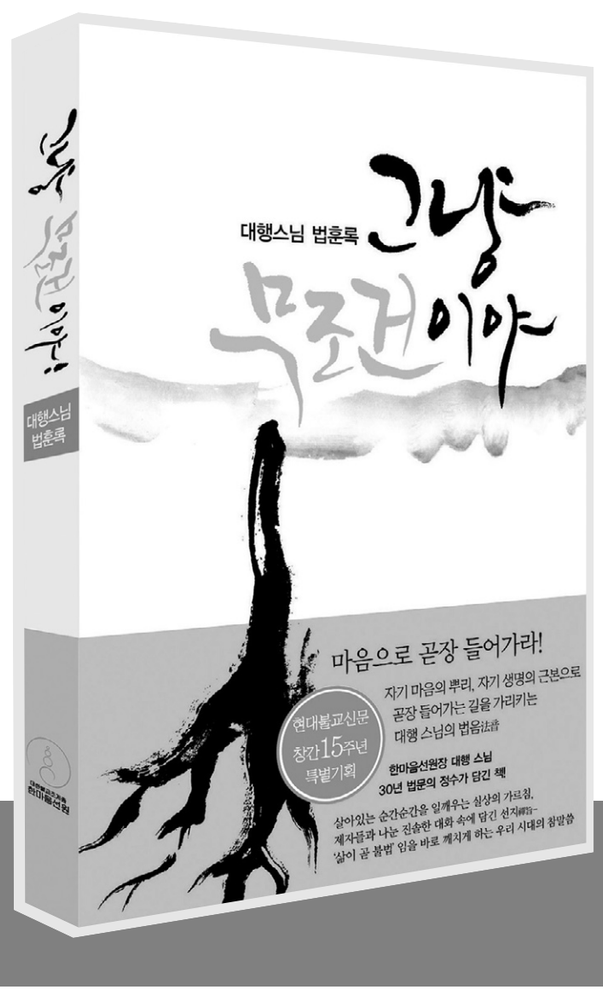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든 고난을, 자성의 고난을 다 겪고 나면 홀연히 연꽃이 피듯이…, 진흙땅에서 연꽃이 핀다고 했죠? 저런 진흙땅에서 연꽃이 피는 거야 누구나가 보고 누구나가 말하고 누구나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몸이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다고 한 거죠. 마음이 체가 없는데 묻을 건덕지가 있어야 묻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묻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관습과 집착과 욕심과 애정과 원한, 이런 모든 게 쌓여서 연꽃이 피지 못하고 자성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진흙땅에서 연꽃이 피어도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다는 그 뜻을 한번 새겨 보시도록 하세요. 우리 인간의 꽃이, 즉 마음이 홀연히 피어나면 그 꽃이 바로 마음의 연꽃입니다. 이 마음의 연꽃이 피면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의 연꽃은, 즉 육근(六根), 육진(六塵), 이렇게 할 때, 육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연꽃을 참나라고 이름해서 붙이는 거죠. 참나를 찾는 데에 그 방편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진(漏盡)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게 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일곱 발자국을 떼었는데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연꽃이 발 밑에 피어나서 그걸 밟고 나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을 때에, 즉 말하자면 용무입니다. 내가 이 발자국을 떼어 놔야겠다 하고 떼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가겠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갈 때가 되면 그냥 그냥 갑니다. 그렇게 발자국을 하나하나 떼어 놓을 때, 뒷 발자국은 없어지면서 앞 발자국 떼어 놓을 때마다 그것이 용무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법이다 이겁니다. 몸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들어 있는 한 개체가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 그러니까 연꽃으로 비유하자면 '내 마음이 연꽃이 피어나듯이 움죽거린다.' 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발짝 떼어 놓을 때 내 마음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움죽거린다 이겁니다. 움죽거리는 연꽃이란 얘깁니다. 지는 연꽃이 아니라 움죽거리는 연꽃! 그래서 연꽃이 피게 되면 지는 것도 없고 피는 것도 없는 것이 연꽃이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꽃을 밟고 일곱 발자국을 나왔다.' 이러는 건,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본 뿌리, 즉 불종(佛種)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발자국을 떼어 놓는다고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또, 타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찾아야 하는 거죠. 내 몸을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갑니까, 그냥 놓고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오직 자기 자신만을 똑바로 믿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이, 마음은 아무 요동이 없이 그냥 발자국을 떼어 놓죠.

살림살이도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왜? 살림살이도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이 발자국 떼어 놓는 것처럼 순간 보고 흘러가고 이것 보고, 이것 보고 흘러가고 저것 듣고, 저것 듣고 흘러가고 이것 듣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내내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붙들고, 언짢으면 언짢다고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게 놔지질 않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언짢아도 한 찰나, 좋아도 한 찰나인 것을 좋다고 붙들고 즐겁다고 야단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 또 언짢으면 언짢다고 울고 가슴 아파하고 그냥 그걸 붙들고 늘어지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거면, 만약에 부도가 났다 이럴 때, 그 과정을 내내 붙들고 그냥, 어떡하면 빠져 나갈까 하고 온통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게 되죠.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일체를 다요.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도가 나서 숟가락 하나도 건질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있기에 그거를 몽땅 놔 버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만 거기다 놓고 그냥 뛰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는 부도를 다 해결하시고 참 고맙다고 하셔서 당신한테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질 않아요. 흙물이라면 흙물대로 놔 버려야 새 물을 또 쓸 텐데, 흙물 담아진 거를 그냥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새 물이 들어올 사이가 없죠.

이거 심각한 얘깁니다. 우리 사는 데만 심각한 게 아니라 세세생생에 어떡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또 심각하구요. 우리 모습을 이대로만 가지고 있을까, 요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가지고 나올까 하는 것도 심각하구요. 그 한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모두 심각하죠. 그래서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온통 여러 가지를 다 찾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어떻게 다 바깥으로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 이름들을? 이름을 아무리 불러 봤자 그건 헛거예요. 진실한 내 마음 하나에서 일체 만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수행해서 나부터 알아야 하고 나부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부터 찾아야 부처님의 마음도 찾고 여러 가지 일체 만물의 마음을 다 찾는 셈이죠.

그러니 이 안의 의식들이 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습니다.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자기하고 인연이 돼서 바로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몸에 다 있는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몸 속의 개체에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속의 자체를 모두 조복받기 위해서 굽이굽이를 전부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모든 거를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찾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말입니다, 작으면 내가 작아지고, 크면 내가 커지고 그래서 똑같이 맞추어야 이게 둥글어지죠. 그래서 크고 작은 걸 다 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거를 거기 놓고 가다 보면 모두가 바로 한마음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해 주는데 그게 한생각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이지마는 깨달은 부처님들의 생각은 한생각입니다, 한생각! 한생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 생명들의 의식도 하나로, 부처님의 그 마음 하나로 계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조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들이 전부 보살이죠.

그러니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고 어떤 때는 더듬더듬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집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잘 집어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되고, 또 반쯤 집어 먹다 보면 그냥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안 먹고 말아 버리거든요. 이러니 어떡합니까.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집어 먹어서 소화가 잘되게 해야, 모든 개체가 하나로 귀합이 되게 조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내가 한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분들의 생각은 한 생각이지 두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거기서 하나가 돼 버리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소인이 하는 거고, 허허허…, 대불(大佛)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 용무로서, 그냥 생존해 살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용무공법이죠. 그러니까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을 둘이 아니게끔, 무의 법에서 유의 법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평등공법(平等空法)을 알아서 자유자재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자제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자제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뿐만 아니죠. 이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가는 더불어 같이 구덩이에 빠지지마는 눈 뜬 사람이 장님을 끌고 갈 때는 옳게 끌고 간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는 부모가 관을 하게 되면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그 자제들에게 저절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나가서 안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마음으로 관을 열심히 하세요. 그 상대방이 나갈 정도라면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런 도리를 가르쳐 줘도 안 듣는 거죠. 그럴 때에 남이 한 번 할 거 두 번씩 세 번씩 한다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친밀하고 절친하다 하는 가설도 있구요. 가설도 천차만별이지마는 그래도 자식이라는 가설이 제일 가깝죠.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의 가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내버려 두고 있다 보면 "어머니, 제가 속을 많이 썩였죠?" 하면서 저절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어떤 분이 말하는데, 자식이 아주 거북한 종교를 믿어 가지고 부모를 배척하고 안 보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태 삼 년이 지나니까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저희가 무척 잘못됐노라고 사과를 하고, 이제는 어머니 따라서 종교도 믿어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발빼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가산도 탕진을 하고 들어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남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보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보고 따르라. 말과 뜻과 행을 보고 따르라. 그러면 거기서 들은 것이 지금 사람 사는 진리와 같으면 따르라 이거죠. 어느 사람이 교수인데 자녀들을 군에도 보내지 않고 그러는 종교를 믿었대요. 군에도 보내지 않고 어디 뭐 특별한 데를 내보내지도 않는 종교가 있대요. 난 모르는데 말입니다. 아, 그래 가지고선 자식들을 공부도 안 시켰죠. 군대도 안 보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자살했어요. 그렇게 위에서 한 번 자살을 하니까 그 자식들도 자살을 하고 부인 하나만 남았어요. 멀지도 않은 이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는 아예 절에 들어가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입산을 했는데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가족이 다 그냥 멸망한 셈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종교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고통을 덜고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좀 살자, 중세계라는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알아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게 살아 보자 하는 것도 종교를 믿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살아나가는 거 보니까요, 일일이 날짜를 봐서 이사를 가고, 팔자 운명을 보고, 삼재가 걸렸다 하면 야단들이고 온통 뭐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몰라서 얘긴 다 못해요. 그런데 지금 살기도 바쁘고 죽겠는데 그런 거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보름, 백일 동안을 기도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부인은 기도드리러 가고 남편하고 애들은 자기가 밥해 먹고 일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파탄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르고 진실하게 믿어야 하느냐. 나는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자기 찾을 권리도 있고, 자기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엄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예 꿈에라도 형식적인 고깃덩어리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믿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똑바로 진짜로 믿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싹이 뿌리를 그냥 믿는 거지 어떻게 남이 믿어라 믿어라 이래서 믿는 겁니까, 응? 자기 종성(種性)을 진짜로 믿어야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고, 아파 줄 사람도 없고, 잠을 자 줄 사람도 없고, 똥 누고 밥 먹고 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제각기 자기 모습 속에서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도 공생(共生)이요, 공심(共心)이요, 바로 공체(共體)요, 공용(共用)이요, 공식화(共食化)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이제 불이 났다든지 싸움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소임 맡은 군인들은 해군이면 해군, 육군이면 육군, 공군이면 공군 다 맡은 바대로 소속이 돼 가지곤, 딱 부르면 그냥 쫙 모이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자기한테 있어서 자성불(自性佛)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달리는 생각 마시고 오로지 그거부터 실천을 하시도록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보고 듣고 일거수일투족 하는 것이 다 어디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데 왜 자기를 못 믿습니까? 보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전부 자기 속에서 하게 하는 거지, 자기 중심처에서 하게 되는 거지 딴 데서 나오는 겁니까? 거기를 알면 무(無)의 법도 유(有)의 법도 능수능란하게 모두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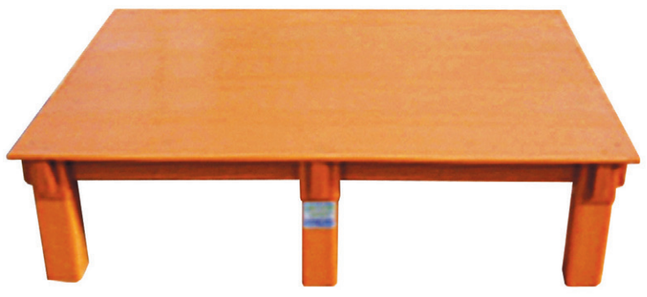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떼어 놓죠?
살림살이도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좋아도 한 찰나, 언짢아도 한 찰나인 것을
좋으면 좋다고 붙들고 야단이고 언짢으면 언짢다고 붙들고 늘어지니
그게 놔지질 않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6년 4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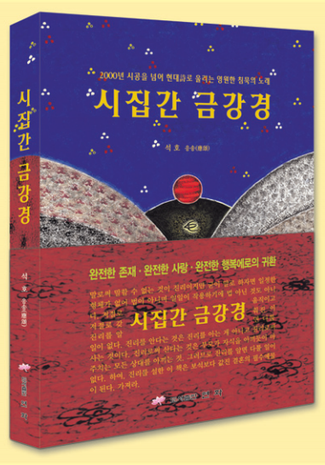
◆ 3칸겹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폴리프로필렌 자재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부가세 운송비 별도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금강경이 시집갔다?



화제의 책
시집간 금강경

응 송: 석 호 스님
신국판 359쪽
값: 15,000원
도서출판 연 화 刊

완전한 존재(無相), 완전한 사랑(無住),
완전한 행복(妙有)에로의 귀환!

단 한 번의 정독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금강경 하면 단연 석호스님의 〈시집간 금강경〉입니다. 진리는 잡을 수 없지만 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책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 정독하십시오

〈전국 서점 및 인터넷서점 절찬 판매중〉

도서출판 연화 053)253-1923

'적 하 수 오'
묘 목 분 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광면 흑석1리 368

불자 세상보기

불교의 윤달은 복짓는 달



활안 스님
금강선원장

"윤달은 무탈한 달
서슴없이 이웃 돕는 기간
나보다 남먼저 살피자"

윤달(潤月)은 천문학에서 연유된 언어이다. 달력에 기록한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년에 한번 씩 들어있는 달이다. 공짜로 들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공달(空月) 여벌달 덤달 혹은 유독히 드러나 빛나는 달이라 하여 윤달(潤月)이라 부르기로 한다.

흔히 윤달은 손이 없는 달, 즉 다른 달과는 달리 탈이 없는 달, 나쁜 것에 걸릴 것이 없는 달이라고 해서 집수리 · 이사를 하거나 조상의 산소를 고치거나 묘를 이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윤달에 했고, 어른이 있는 집에서는 윤달수의라 하며 윤달에 수의를 장만하는 풍습이 있었다.

2012년 올해에는 윤달이 3월에 들어 있어 '윤삼월(潤三月)'이라 부른다. 금년 용해(壬辰年)를 오행으로 볼 때는 검정용(黑龍)에 해당해 '흑룡의 해'라고 부른다.

임진년인 1592년 일본인들이 침략해 와서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고 했다. 그보다 앞서 고려때에도 몽골군이 임진년에 침입해 강화도로 피난을 해야 했던 해이기에 임진년은 거국적으로 꺼리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래 윤달이 든 해는 한겨울과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산역(山役)을 중심으로 묘지 수리를 많이 했다. 수리(水利) · 성가(成家) · 중창(重創) 등 일도 많이 했다. 다만 굴왕성이 든 해만큼은 절에서는 불사(佛事)를 삼갔다.

윤달은 가욋달로서 실제로는 없는 달, 없는 날이다. 무슨 일이든지 부정을 타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흑룡의 해라 해서 건축 · 수리 · 개업 · 결혼 · 개수 · 묘장까지도 꺼리는 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임진왜란처럼 왜란이 있을 리도 없고 고려 때처럼 몽고군이 쳐들어 올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한미 · 한EU간 FTA를 통한 경제적인 침략이나 남북관계에 조심하면 될 것이다.

또, 기후 풍토 등으로 때문에 한냉 · 풍토병이 유행할 염려가 있지만 이 또한 미리 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원래 불교에서는 공달에는 좋은 일을 하는 달이라고 했다. 때문에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조선(祖先)과 스승들에 대해 미진했던 일을 완성하는 해로 여겼다. 특히 무명에 가리워진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대장경 불사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경읽기 · 사경 · 백고좌법회 · 연등법회 등은 주로 윤달에 봉행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윤달에는 예수재 · 수륙재 · 영산재 등 불공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복을 함께 빌어주고 무주고혼들을 천도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불자들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부모 · 형제 · 자매가 되는 복지불사를 널리 행해왔다.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장학금을 줬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지어주기도 했다. 병든 사람들에게는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다니는 절이나 사찰, 암자 등이 헐고 부서진 것이 있었으면 눈여겨 두었다가 윤달을 맞아 그것을 수리하고 새로운 불상 · 불화를 조성해 포교전법을 실천했다.

마을사람끼리 3년 동안 모은 좀드리쌀로 동네 다리를 놓거나 상여를 만드는 풍습도 있었다. 이는 마지막 길 떠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전송하자는 취지로 이것이 생여계 · 굴둑계 · 다리계 등이다.

윤달은 세상의 고통을 줄여주고 중생에게 열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는 중생들에게 성현의 가르침을 맛보게 하여 사회적으로 윤리도덕을 실천했던 해이다.

냇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등 철렵을 즐기고 방종을 일삼았던 사람들도 윤달만큼은 방생을 하고 정진에 힘썼다. 가난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자신의 댕기를 팔아 불사에 보탬이 되고자 힘쓰며 복을 지었던 것이 윤달이었다.

불자들 각자 임진년 윤삼월을 맞아 빈 달이 윤달이 되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길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조화로운 삶의 과보



이 평 래
충남대 명예교수

"이상세계 제시해 준 종교
피 · 땀 등 노력 있어야 구현
인류 함께 행복 · 평화롭길"

인간은 모두 현실세계에서 살지만 이상세계를 동경한다.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를 하는 사람, 경제를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등, 무엇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상세계를 가장 잘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 종교일 것이다.

어느 종교이든 그 종교가 제시한 이상세계를 들여다보면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차있다.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종교라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믿는 종교적 삶만이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과연 어디가 이상세계이며,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해법이 천태만상이다. 우주는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불교의 해법이다. 아주 명쾌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한 우주에서 살고 있다. 공중을 나는 새들조차도 이 우주를 벗어나서 다른 우주로 갈 수 없다. 또 다른 우주는 없기 때문이다. 사후의 영혼이 가는 천국을 아무리 찬송하고 찬양해도 그것은 허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상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의 피와 땀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노력의 결정이다. 그런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선 먹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모두 다 그렇다. 그 방식이야 어떠하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은 예외일 수 없다. 아무리 고고하고 고매한 수행자라도 먹지 않고서는 도를 닦을 수 없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한다. 일은 마음만 먹어서는 안되고, 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몸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일이 제대로 풀린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모든 인류가 함께 살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이다. 결국 이상세계의 실현도 인류의 공동 작업일수 밖에 없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태어나자마자 들숨을 쉬기 시작하여 죽을 때 날숨을 마지막으로 목숨을 거둔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맑은 공기 속의 산소뿐이다. 맑은 공기는 우리 몸에 저절로 들어올 수 없다. 허파를 빌려야 한다. 그렇지만 허파 자체는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횡격막이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가슴을 열고 닫아주어야 한다. 이때 허파에서 들숨과 날숨이 가스교환을 하여 우리 몸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한다.

들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보통 0.03% 섞여있지만, 날숨에는 3%나 섞여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산소이지 이산화탄소가 아니다. 이산화탄소를 거의 다 배출시키기 위하여 날숨을 서서히 길게 내쉬는 것이다. 그래서 Yoga에서는 입식단(入息短)?출식장(出息長)---들숨은 짧게 쉬고 날숨은 길게 쉰다---의 호흡법을 철저하게 가르친다. 맑은 공기가 허파 속에 들어와도, 허파는 공기를 온몸으로 나를 힘이 없다. 온몸으로 나르는 일은 피가 한다. 그런데 피도 또한 제 힘으로는 온몸을 순환할 수 없다, 피를 순환하게 하는 것은 심장의 펌프질이다.

심장은 커다랗게 우심방?우심실, 좌심방?좌심실의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심장의 좌심실뿐이다. 좌심실의 판막은 태어나서 죽을 때가지 펌프질을 한다. 펌프질을 멈추면 사람은 죽는다. 펌프질을 갑자기 멈춘 것을 심장마비라고 한다. 우심방?우심실은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흐리고 탁한 피의 집결지이고, 좌심방?좌심실은 온몸으로 나갈 맑고 깨끗한 피의 배포장이다.

이렇게 하여 피의 적혈구는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산소를 운반해서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도록 한다. 숨을 쉬는 것도 이와 같이 여러 기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기관 하나라도 자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

우리가 동경하고 그리는 이상세계도 그렇다. 모든 인류가 함께 발원하고 동참해야 행복과 평화의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

社說

새 종정스님의 법어 되새기자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3월 28일 추대됐다.

이날 종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참나 가운데 대안락과 평화가 있다"고 말했다. 종정스님은 "마음의 가지가지 갈등과 잡념을 없애고 진리에 이르는 지름길은 참선"이라며 '참나'를 찾는 방법도 일러줬다.

"온 세계가 한 집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법어를 통해서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을 전했다.

종정스님은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통 받는 이웃과 중생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며 병들고 가난한 이를 내 몸 같이 사랑하고 보살피자"는 말로 대신했다.

남북이 분단된 공업(共業)은 비폭력을 통해 풀 수 있다는 가르침도 있었다. "남북이 함께 비폭력 · 자비무적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대결구도가 허물어지고 남북동포가 하나돼 통일조국을 성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이 그 예이다.

진제 종정스님은 대중 각자에게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라는 화두를 주며, 그 실천법으로 참선의 생활화를 제안했다. 수행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나눔도 강조됐다.

종정스님의 큰 가르침이 조계종 구성원을 비롯한 불자들의 실천으로 이어져 뭇생명이 편안해지길 기원한다.

공심(公心)이 종단 발전 이룬다

조계종 제189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27~30일 열렸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기대했던 선거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등이 통과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중앙종회의 기능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3년 만에 개정될 줄 알았던 종헌부터 교구 · 비구스님 등 기득권 앞에 막혀 버린 것이 한 이유다. 또, 조계종이 앞장 서 민족문화말살 운운하던 정부의 새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관련한 반대 결의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된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종회가 이렇게 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있다. 종헌이 부결될 때 보여준 의원스님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종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81명의 2/3인 54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표결 당시 56명이 재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격론이 오간 사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한 것은 종회의원 스님들 다수가 종헌 개정에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 스님들은 수개월에 걸쳐 40여 차례 회의를 열고 종단발전을 위한 대안을 고심해 종헌 및 종법 제개정안들을 내놓았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종헌종법특위를 통해 상정됐다. 그러나 종회에서는 종헌을 제외한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종책질의에서도 집행부 각 부서마다 "이번 집행부는 법안발의를 않는다" "00부가 할 일이 그것인데 왜 않고 있느냐"는 질책이 잇따랐다.

기득권에 발목 잡힌 종회, "뭘대로 되겠지" 병이 만연한 집행부의 이런 행보가 계속되면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 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ID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악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봄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멸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점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부터 변이 정상적으로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점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또한 좋아지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히 없어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은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꺽인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아래는 고기나 멸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혈도 확 좋아져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와 좋은제품은 만나기 힘들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몸이 돌고 서서히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게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아직 정액에 있어 좋은 정액이 튀어 나왔고 심장도이 소심하게 여려 였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고급형구입시 선착순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